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한글편지에 나타난 파생부사 연구

-16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자료를 중심으로-

강 선 지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2023년 8월



한글편지에 나타난 파생부사 연구

-16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자료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문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강 선 지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지도교수 배 영 환

강선지의 문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5월

심사위원장	최 대 희	인
위 원	신 우 봉	인
위 원	배 영 환	인

<차례>

<국문 초록>

I. 서론	1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1
2. 선행 연구 검토	2
3. 연구 대상과 구성	5
II. 이론적 논의	18
1. 한글편지의 특성	18
2. 부사의 정의와 범위 한정	20
3. 파생부사의 특성	22
III. 파생부사의 유형	26
1. ‘-이’에 의한 파생	27
1.1. 명사/어근+‘-이’	28
1.2. 용언의 어간+‘-이’	31
1.3. 부사+‘-이’	51
2. ‘-히’에 의한 파생	55
2.1. 명사/어근+‘-히’	56
2.2. 용언의 어간+‘-히’	58
2.3. 부사+‘-히’	60
3. ‘-오/우’에 의한 파생	62

4. 그 외 접사에 의한 파생	68
5. 활용형과 공용형의 부사화	75
5.1. X+어미	75
5.2. X+조사	78
IV. 통사의미적으로 특이성을 보이는 파생부사	87
1. 별로	87
2. 아마도	89
3. 아무리	91
4. 꼭잡내	92
5. 차마	93
V. 결론	93
VI. 참고문헌	97

<Abstract>

<표 차례>

<표 1> 연구 대상 한글편지 목록	5
<표 2> 단순부사 어휘 목록	8
<표 3> 합성부사 어휘 목록	9
<표 4> 파생부사 어휘 목록	10
<표 5> 선행 어기+‘-이’가 결합하여 파생된 부사 비율	27
<표 6> 명사/어근+‘-이’가 결합하여 파생된 부사 목록	28
<표 7> 용언의 어간+‘-이’가 결합하여 파생된 부사 목록	31
<표 8> 부사+‘-이’가 결합하여 파생된 부사 목록	51
<표 9> 명사/어근+‘-히’가 결합하여 파생된 부사 비율	56
<표 10> 명사/어근+‘-히’가 결합하여 파생된 부사 목록	56
<표 11> 용언의 어간+‘-히’가 결합하여 파생된 부사 목록	58
<표 12> 부사+‘-히’가 결합하여 파생된 부사 목록	60
<표 13> 부사+‘-오/우’가 결합하여 파생된 부사 목록	63
<표 14> 부사+‘그 외 접사’가 결합하여 파생된 부사 목록	68
<표 15> ‘X+어미’가 결합하여 파생된 부사 목록	76
<표 16> ‘X+조사’가 결합하여 파생된 부사 목록	78

한글편지에 나타난 파생부사 연구
-16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자료를 중심으로-

강 선 지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요약>

한글편지는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난 후 이른 시기부터 쓰이기 시작하였는데, 일반 평민뿐만이 아니라 궁중과 왕족, 남성, 시녀 등 그 사용 범위가 포괄적이고 넓었다. 이처럼 기존 간찰(簡札)이 사대부 계층 이상의 남성 전유물이었다면, 한글편지는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 또한 한글편지는 간찰(簡札)이나 언해(諺解) 자료와는 달리 한역(韓譯)의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현실 언어가 어떤 자료보다 많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가령 어휘적 측면에 있어서 다른 간본 자료들보다 이른 사용양상을 한글편지에서 관찰할 수 있었는데, ‘그적긔(그저긔/그저씩/그짓긔)’와 ‘것구로(것고로)’가 그러하다.

한편 부사는 중세, 근대, 현대 할 것 없이 문장 내의 어느 성분을 수식, 한정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 서술어를 한정하는데, 문장 표현에 있어서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특성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품사라 할 수 있다. 특히, 부사는 복합어의 비중이 타 품사에 비해 높는데, 접사, 조사, 어미들이 앞말과 결합하며 형성되는 파생부사의 생산성이 높은 편이다. 이는 다른 품사들에 비해 부사가 복합어의 형태론적 유형이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사는 특정 성분이나 문장을 한정하고 수식한다는 점에서 문장의 이해와 표현을 정밀하게 할 수 있는 품사이다. 한글편지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정해져 있고, 친소의 목적이 강한 편지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떤 자료보다 부사의 모습을 보다 세밀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역으로 본다면 부사의 이러한 특성 역시 한글편지에 보다 잘 드러날 것이다.

본 연구는 16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한글편지에 나타난 파생부사의 모습을 형태론

적으로 고찰하고, 특이성을 보이는 파생부사를 통사론·의미론적으로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16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한글편지 1,459건에 나타난 부사 어휘 1,226개를 추출하고, 이를 단순부사, 합성부사, 파생부사로 나누었다. 또한 이 중 파생부사는 조어법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후행하는 접미사, 어미, 조사 등에 따라 각각 나누어 목록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조어법적인 특징에 따라 각각의 예문과 함께 형태론적 분석을 하였다.

한편, 한글편지에서는 특이성을 보이는 파생부사들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현대국어와 통사적 혹은 의미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몇몇 파생부사들은 특정 지역이나 신분들이 주로 사용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이성을 보이는 부사로는 ‘별로, 아마도, 아무리, 뭍춤내, 츠마’가 있었는데, ‘별로’는 현대국어와 달리 긍정의 서술어와 공기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의미 역시 현대국어와는 다르게 ‘특별히’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아마도’는 현대국어에서의 사용되는 의미와 함께 ‘아무쪼록’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쪼록’의 의미로 쓰이는 ‘아마도’의 62회가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자료인 「송규렴가 선찰 언간」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17세기 자료인 「진주하씨묘출토언간」에서 총 17회의 사용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찰」과 「진주하씨묘출토언간」의 발신자가 모두 경상도 지역을 거주지 혹은 출생지로 두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아마도’가 경상도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알 수 있는 어휘가 아닐지 추정해 보았다. ‘아무리’는 현대국어에서의 의미와 함께 ‘어떻게’의 의미로도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통사적으로도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아무리~하다’가 쓰일 때, ‘흔들’이 생략되어 쓰인다는 점이 그러하다. ‘뭍춤내’는 현대국어와는 달리 부정어와 공기하는 현상이 관찰되었고, ‘마침내’의 의미보다는 현대국어의 ‘끝내’와 통사론, 의미론적으로 더 유사해 보였다. 그리고 한글편지에서는 왕실 편지에서만 ‘뭍춤내’의 양상이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츠마’는 앞선 파생부사들에 비해 뚜렷한 의미 차이를 보이는 부사는 아니었지만, ‘츠마’를 ‘매우’로 해석함에 무리가 없어 보이고, 현대국어와 달리 긍정어와 공기한다는 통사구조 상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I. 서론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16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한글편지¹⁾ 자료에 나타난 파생부사의 모습을 형태론적으로 고찰하고, 특이성을 보이는 파생부사를 통사론·의미론적으로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16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한글편지 자료에서 수집한 모든 부사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크게 단순부사, 합성부사, 파생부사로 나눌 것이며, 이를 다시 고유어와 한자어로 분류할 것이다. 또한 파생부사는 조어법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후행하는 접미사, 어미, 조사 등에 따라 각각 나누어 목록을 분류할 것이다.

한글편지는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난 후 이른 시기부터 쓰이기 시작하였는데, 일반 평민뿐만이 아니라 궁중과 왕족, 남성, 시녀 등 그 사용 범위가 포괄적이고 넓었다. 이처럼 기존 간찰(簡札)이 사대부 계층 이상의 남성 전유물이었다면, 한글편지는 특정 계층에 관계 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 또한 한글편지는 간찰(簡札)이나 언해(諺解) 자료와는 달리 한역(韓譯)의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현실 언어가 어떤 자료보다 많이 반영되었을 것이고, 일상어와 당대 현실 발음, 음운의 변화 과정까지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연성으로 인해 특정 공동체의 언어, 또는 특정 시기의 언어를 두루 살필 수 있어 공시적·통시적으로 살피기에도 적합한 자료이다.

한편 부사는 중세, 근대, 현대 할 것 없이 문장 내의 어느 성분을 수식, 한정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 서술어를 한정하는데²⁾, 문장 표현에 있어서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특성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품사라 할 수 있다. 특히, 부사는 복합어의 비중이 타 품사에 비해 높는데, 접사, 조사, 어미들이 앞말과 결합하며 형성되는 파생부사의 생산성³⁾이 높은 편이다. 이는 다른 품사들에 비해 부사가 복합어의 형태론적 유형이 다양

1) 조선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성별과 계급에 관계 없이 가장 광범위하게 향유했던 문서는 간찰(簡札)이었다. 간찰에는 한문간찰과 한글간찰이 있는데, 이 중 한글간찰을 ‘언간(諺簡)’ 또는 ‘한글편지’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글편지’로 특정하여 기술하려 한다.
2) 부사는 서술어를 한정, 수식하는 주된 역할을 하지만 부사, 관형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역할도하므로 부사의 통사론적 특성을 단정지을 수는 없다.
3) ‘생산성(productivity)’은 파생어의 특성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이다. 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다룰 것이다.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사는 특정 성분이나 문장을 한정하고 수식한다는 점에서 문장의 이해와 표현을 정밀하게 할 수 있는 품사이다. 한글편지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정해져 있고, 친소의 목적이 강한 편지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떤 자료보다 부사의 모습을 보다 세밀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역으로 본다면 부사의 이러한 특성 역시 한글편지에 보다 잘 드러날 것이다.

기존 부사의 단어 형성에 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이루어졌는데, 특히 접미사의 기능과 의미를 밝히려는 노력들이 있었고 그 성과 또한 뚜렷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현대국어나 중세국어에 대해 중심으로 다루었고 근대국어에 나타난 부사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다. 한글편지에 나타난 부사를 연구한 논문들 역시 특정 가문 편지에 나타난 부사를 연구한 논문들이 주를 이룰 뿐, 한글편지 전반에 나타난 부사를 다룬 논의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글편지에 쓰인 부사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거나, 특정 어휘를 중심으로 의미를 규정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전체 부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사라는 어휘의 중요성에 비해 연구가 그리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못했다. 본고에서 다룰 부사들은 앞서 언급했듯, 16세기~20세기 초에 나타난 어휘들이니 만큼 근대 국어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⁴⁾ 따라서 보다 활발한 근대국어 시기의 파생부사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한글편지에 나타난 부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본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본고는 한글편지에 나타난 부사 어휘의 양상을 살피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선행 연구들을 고찰할 것이다. 먼저 부사에 관한 연구들을 살피고, 그 후 한글편지에 나타난 부사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겠다.

국어 부사에 대한 연구는 연구 대상을 기준으로 형태론적·통사론적·의미론적으로 나눌 수 있고, 시대를 기준으로 중세·근대·현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고는 16세기~20세기 초까지의 한글편지들에 나타난 부사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중세·근대

4) 본 연구의 시대구분은 이기문(1961)의 의견을 따른다. 후기 중세국어는 한글창제(1443)부터 16세기 말(임진왜란)까지, 근대국어는 17세기부터 19세기(갑오개혁)까지를 전제로 한다.

부사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들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민현식(1987)에서는 15, 16세기 자료에 나타난 부사를 대상으로 유의어 목록을 확정하고, 그 특성을 살피고 있는데 부사를 ‘닭은꼴 유의어’와 ‘다른꼴 유의어’로 나누어 그 양상을 검토하고 있다. 민현식(1988)에서는 중세국어 어간형 부사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이전 논문들에서는 개괄적으로 다루었던 부분을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어간형 부사의 유형과 분포를 어간 말 자음과 모음의 특성에 따라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민현식(1992)에서는 성상부사를 감각성, 평가성, 심리성, 존재성 심리부사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 단어 간 어원론적 의미 분석이 이루어졌다. 단순한 유의어 집합의 나열이 아닌, 비교 과정을 통한 연구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단, 이 연구들이 중세국어 시기에 한정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동석(2015)에서는 중세국어에 나타난 부사 파생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접미사의 결합형, 용언의 활용형, 체언의 곡용형, 용언의 어간이 각각 부사로 파생되어 쓰이는 어휘의 형태론적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 고정익(1985)에서는 부사를 통사론적으로 고찰하고 있는데, 수식 양상에서 나타나는 통사적 제약과 품사적 제약을 기술하면서 현대국어와는 다른 통사론적 특징을 살피고 있다.

근대국어 자료에서 부사를 논의한 연구는 중세국어에 비해 그리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아마 시대적인 특성상 근대국어는 중세와 현대의 특징을 두루 갖추고 있어 근대만의 뚜렷한 특성을 규정 짓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근대 부사는 중세와 현대를 이어주는 교량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이승명(2002)에서는 후기 중세국어와 근세국어의 부사가 변화하는 모습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있는데, 이 두 과정과 집단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틀로 통합하는 방법론으로 연구에 접근하고 있다.⁵⁾ 임유종(1998)에서는 개화기 교과서를 중심으로 개화기에 쓰인 부사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문법 기능소와 호응하는 부사, 그리고 어휘 범주를 수식하는 부사로 나누어 목록을 제시하고 부연하고 있다. 근대국어를 갑오개혁을 기준으로 한 개화기 국어로 재분류하여 다루었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와는 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금영(2012)에서는 부사 ‘행여’를 통시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특히 중세국어 이후의 그 분포 양상과 의미의 변화를 중세, 근대, 현대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행여’는 주로 ‘기대’의 의미를 갖는 한자

5) 이승명(2002)에서는 ‘근대’라는 용어 대신 ‘근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어 부사로 사용되었으나, 일부 ‘가정’이나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문에 쓰이면서 점차 한자 본래의 의미 기능을 잃고 ‘가정’이나 ‘추측’의 의미를 지니는 부사로 발전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한글편지에 나타난 부사를 연구한 논문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현전하는 한글편지에 나타난 부사만을 다룬 논의는 거의 없는 편이고, 특정 한글편지에 나타난 부사를 다룬다거나, 혹은 한글편지에 나타난 부사를 부분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금영(2020)에서는 송준길가의 미주해본 한글 편지 247편에 나타난 부사 중 현대와 차이를 보이는 부사를 중심으로 형태론적, 통사론적, 의미론적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 다른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는 부사를 고찰했다는 점에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⁶⁾ 배영환(2017)에서는 한글편지 자료의 어휘적 특징을 ‘방언형의 사용’과 ‘언간 특이형’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 또한 간본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형태상으로는 유사하지만 용법상에서는 차이가 있는 어형 등도 제시하면서 언간 자료에 나타난 어휘의 특징을 고찰하고 있다. 또한 부사류에서의 어휘적 특징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를 통해 언간에 사용된 부사의 특이형을 살펴 볼 수 있었다.⁷⁾ 박부자(2014)에서는 한글편지 자료의 어휘사적 가치를 언급하고 있는데, 발신자에 따른 언어차이를 보여주는 예로 부사 ‘아무쪼록’의 의미를 갖는 부사인 ‘아므려나/아므려나/아므리나/아므나/아마도/아므도로나/아모도록/아모조록/아모쪼록’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들의 세기별 분포도를 통해 빈도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이들 어휘 간의 경쟁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어휘를 통해 16~19세기 언중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자연스러운 국어 어휘의 모습과 그 변화를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큰 의의라 여긴다. 이현주(2014)에서는 한글편지에 나타나는 중복형식⁸⁾의 성격을 밝힘으로써 왜 유독 언간에 이러한 중복형식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언어 수행 면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는 수의적인 언

6) 이금영(2020)에서는 ‘막이, 여기다이, 오록이, 총열히, 툼툼, 티평, 급급, 디관절, 불촉히, 점점이’와 같이 다른 문헌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거나 혹은 사전류에 부사로 표기되지 않은 어휘들을 확인하고 의미를 추정하고 있다.

7) 배영환(2017)에서 언급한 특이성을 지닌 부사에는 ‘브경이/브경히, 싱심도, 훌터’가 있는데, 이 중 ‘브경이/브경히’는 언간 자료에서만 나타나고 다른 자료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는 부사로, ‘가벼이 여기지 말고’, ‘꼭’이라는 의미를 지녔다고 제시한다. ‘싱심도’ 역시 다른 자료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고 언간에서 나타나는데, ‘마음대로’ 또는 ‘절대로’ 정도로 파악할 수 있는 부사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훌터’는 ‘훌치다’의 의미와 유사성이 있을 것이라 추정하면서, 시기적으로도 17세기에서 18세기 언간에서 확인되고 이후의 언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이성을 보여주는 부사라 언급하고 있다.

8) 이현주(2014)에서 언급하고 있는 ‘중복형식’이란, ‘재점(再點)’이라 불리는 반복 부호를 말한다.

어 현상이라 언급하면서, 중복형식은 대부분 ‘표현의 강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의적인 표면구조 현상으로서 이러한 현상이 화용론적으로 동기화된 것이라 밝히고 있다. 보통은 심리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부사 ‘매우, 너무, 아주’ 등이 쓰여야 하는데, 한글편지에서는 그 기능을 중복형식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경제적인 기술 방식을 추구하는 한글편지의 매체적 특징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글편지에도 강조성 정도부사는 높은 빈도수의 쓰임을 보인다는 점⁹⁾에서 다소 의문이 남는다.

지금까지 기존의 논의를 살펴볼 때, 한글편지에 나타난 부사 어휘를 전반적으로 다룬 논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글편지에 대한 연구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면, 부사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역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논의는 16세기부터 20세기 초 한글편지에 나타난 부사 어휘를 대상으로 목록을 작성해 보고 그 중 파생부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3. 연구 대상과 구성

본 연구는 16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한글편지 1,459건에 나타난 부사 어휘 1,226개를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 대상인 부사 어휘들이 쓰인 한글편지 목록을 시대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연구 대상 한글편지 목록¹⁰⁾

한글 편지 명	건수	작성 시기
순천김씨묘출토연간	188	1550~1592년
죽산안씨 연간	1	1571년
송강 정철 연간	1	1573년
이응태묘출토연간	1	1586년
김성일 연간	1	1592년
허목 연간	1	1595~1682년
선조 연간	1	1603년

9) 가령, ‘너무(너머/너모)’는 19세기 한글편지에서 약 50회의 사용 빈도를 보인다.

10) <표 1>의 한글편지 명과 작성 시기는 황문환 외(2013),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에서 참조하였다. 본 연구는 한글편지에 나타난 부사 어휘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하므로, 편지명, 건수, 작성 시기를 제외한 발수신자 정보와 소장처 등의 정보는 생략하였음을 밝힌다.

나주 임씨가 『총암공수목내간』 연간	8	1611~1683년
진주하씨묘 출토 연간/ 현풍곽씨 연간	163	17세기 전기
은진 송씨 송준길가 『선세언독』 연간	40	17세기 전반~18세기 전반
효종 연간	1	1641년
나주임씨가 『임창계선생묵보국자내간』 연간	18	1649~1696년
『숙명신한첩』 연간	67	1652~1688년
『속휘신한첩』 연간	35	1653~1696년
진성이씨 이동표가 연간	37	1658~1700년
고령박씨가 『선세언독』 연간	21	1660~1803년
해주오씨 오태주가 『어필』 소재	12	1665~1683년
명안 공주 관련 연간		
송시열 연간	2	1671년, 1679년
송규렴가 『선찰』 연간	124	1684~1709년
은진송씨 동춘당 송준길가 연간	96	17세기 후반~18세기 중반
신창맹씨가 『자손보전』 연간	20	18세기 초반~19세기 초반
월성이씨 연간	3	1716년
추사가 연간	45	18세기 중반~19세기 중반
정조대왕 연간	3	1754~1793년
정순왕후 연간	1	1759~1805년
성대중 연간	1	1760~1812년
김윤겸 연간	1	1767년
의성김씨 학봉 김성일가 연간	167	18세기 후반~19세기 후반
순원왕후 연간	1	1802~1857년
추사 연간	40	1818~1844년
안동권씨 연간	1	1830년
정약용 연간	1	1831년
『순원왕후어필』 연간	25	1837~1852년
순원왕후어필봉서 연간	33	1841~1856년
효정왕후 연간	1	1845~1887년
현상궁 연간	1	1847~1907년
은진 송씨 송병필가 연간	91	1863~1922년
하상궁 연간	1	1875~1895년
흥선대원군 연간	4	1882~1885년
여흥민씨 민영소가 명성황후 연간	134	1882~1895년
여흥민씨 민영소가 명성황후 궁녀 연간	36	1883~1895년
『명성성후어필』 연간	1	1894년
순명효황후 연간	10	1894~1904년
조용선 편저 『봉서』 소재 연간	40	19세기 중반~20세기 초반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16세기~20세기 초 한글편지에 나타난 전체 부사 총 1,226개를 추출하였다.¹¹⁾ 그리고 16세기~20세기 초 한글편지에 나타난 전체 부사 목록을 단순부사, 합성부사, 파생부사로 나누고, 이를 다시 고유어와 한자어로 분류하였다. 또한 파생부사는 조어법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후행하는 접미사, 어미, 조사 등에 따라 각각 나누어 목록을 분류하였다.

부사 분류에 대한 본고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시적 차원에서 분류할 것이다. 가령, 현대 국어의 ‘차마’는 15세기부터 ‘차마’의 형태로 쓰였는데, 이는 ‘참다’의 옛말인 동사 ‘츄다’의 어간 ‘츄-’에 연결어미 ‘-아’가 결합한 활용형이 부사로 쓰이게 된 것이다. 이처럼 통시적 차원에서 어원을 고려하여 부사를 분류할 것이다.

둘째, 어근 단독으로 쓰이는 부사의 경우, 즉 접미사가 생략된 부사의 경우도 파생어로 다룰 것이다. 가령, ‘필(必)’은 필히(必-)에서 ‘-히’가 생략된 형태이다.

셋째, 본고에서는 부사를 고유어와 한자어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쾌이’는 ‘쾌히(快-)’의 의미로 사용되는 파생부사인데, 이처럼 표기와 의미에서 ‘쾌’와 ‘쾌(快)’처럼 음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한자어로 분류할 것이다.

넷째, 가령 ‘그지업시’를 분석하면, ‘끝, 한도’를 의미하는 ‘그지’와 ‘없-’이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지업시’는 ‘어근+어근+접사’의 구조를 띤다. 이는 적접 구성요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형태론적 분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어근+어근)+접사’의 구조라고 보기에 파생어로 보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극진극진이, 고죽고죽이’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섯째, 부사 중에는 품사통용을 보이는 어휘들이 다수 관찰된다. 가령, ‘오늘’은 명사와 부사가 통용되어 쓰이는 어휘이다. 홍종선(1991:227), 심재기(1982:404)에 의하면, 시간부사와 명사가 함께 쓰여 품사통용을 보일 때, 명사가 형태 변화없이 부사로 쓰인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하여도 ‘오늘’을 명사로만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분명 부사로 쓰이고 있기에 품사통용을 보이는 어휘들 중 부사의 용법이 있다면 부사로 보고 목록화 할 것이다.

11) 본고의 연구 대상인 한글편지 부사 어휘들은 황문환 외(2017),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에 실려 있는 어휘들을 대상으로 뽑아 모았음을 밝힌다.

연구 대상인 단순부사, 합성부사, 파생부사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2> 단순부사 어휘 목록

고유어	한자어
가득, 가장/가장/가중, 각금, 감감, 갓, 갓득, 거둑, 거리, 거위, 거의, 거진, 겹포, 갓가식로/갓가스로/갓?사로/갓싸스로/갓거스로, 고디, 고리, 곡, 곱곰, 구루, 겨요/겨우/겨유/계오/계요/계우/계유, 곧/곳, 구만, 그득, 그러, 그렁성, 그리, 그르, 그만, 그양, 그여, 그저/그저, 글, 글니, 괴디, 괴저, 기시, 긴, ㄱ득, ㄱ로, ㄱ장, ㄱ금, ㄱ초, ㄱ/긔, ㄱ득/긔득, 남죽, 낫비, 녁녁, 노, 뉴로노상/노상, 느루/느리/늘, 니만, 니지, ㄴ일, 다, 다만/다믄/다몬, 다함, 달/닷, 닷다치, 다시, 닷시/닷치, 대저, 당근, 더, 더고/더고나/더구나, 더디, 더러, 덜, 더러나, 더리, 덕, 덴드기, 덤, 덩, 도, 도모지, 들, 드, 드시, 또, 마양, 막, 막오, 마즈/므자/므즈, 만, 매, 모, 모도지, 모디리, 모레, 문, 문/뭇, 뭇씨/뭇시, 문져, 미리, 문득/문득, 뭇양/뭇양, 미, 바삭/바삭, 발셔/벌셔, 밧비, 밧속, 번거리, 범벅, 부러/브러, 브득, 비록, 부대/부디/부디/브디/브디/브디, 브로, 브룻, 브삭, 불리, 불셔/불셰, 뻑, 뻑, 사뭇, 삼가, 상히/상히, 새삼, 서로/서르/서로/서루, 설오, 석석, 설, 설마, 소위, 손소/손수, 쇠,	가령(假令), 가사(假使), 결단코(決斷), 과연(果然), 근근(僅僅), 디우금(至于今), 뎡뎡(漣漣), 다강(大綱), 막비(莫非), 무비(無非), 무진(無盡), 매일/매일(每日), 뱉뱉(浬浬), 별양(別樣), 분명(分明), 분분(紛紛), 불가불/불?불(不可不), 비단(非但), 상상(常常), 불과/불과(不過), 설스(設使), 시방(時方), 실상(實狀), 실즉(實即), 십분(十分), 여간(如干), 역(亦是), 역시(亦是), 우선(于先), 위선(爲先), 위연(喟然), 응당(應當), 이왕(已往), 이위(已矣), 일간(日間), 일시(一時), 일양(一樣), 일향(一向), 일절(一切), 연(然), 일층(一層), 잠전(暫前), 장근/장근(將近), 장(長)/장(長)/중(長), 잠시/잠시(暫時), 장춧(將次), 제일/제일(第一), 점점/점점(漣漣)/점점(漣漣), 종니(終乃), 종시/종시/종스(終是), 종야(終夜), 종일/종일(終日), 종종/종종(種種), 종춧(從次), 즉금(卽今), 즉극(卽刻), 지금(只今), 진시(趨時), 진정한(真正), 즈연(自然), 지삼(再三), 징징(錚錚), 차차(次次)/차차(次次)/차차(次次), 천만(千萬), 첩첩(疊疊), 총총/총총(悤悤), 필경(畢竟), 혹(或), 항상(恒常), 혹은(或間), 혹시(或是), 혹은(或者), 홀연(忽然)

<p>쇼위, 쉬, 쉬엄, 순, 수/쉬/ 스글, 슬긱 /슬긱, 슬슬, 식식, 슬들, 시로, 썩, 썩, 썩작/썩작, 쏘, 쏙, 짜로, 썩, 썩, 썩, 썩썩, 썩, 아니, 아마, 아이, 안죽, 아직/아죽, 아으라/아흐라, 아조/아쵸/ 아쵸/아쵸, 안, 안니/안이, 암만, 앓가, 앙앙, 어니, 어드, 어득, 어셔, 어이/어히, 얼나, 얼쑤, 엇, 엇데, 엇디, 예인, 여테, 엇디/엇찌/엇지, 역의, 연심, 영, 오히려, 오늘/오늘, 와락, 왜, 우이/우이,우예, 원간, 원악, 아죽, 으실, 으작, 으지/웃지, 이내, 이러, 이디/이닷, 이러, 이로/이루, 이리/일리, 이만, 이제/이제, 익겡, 임의, 일죽/일죽, 자쵸, 잔득, 잠, 작작, 잘, 잠간/잠싼/좁간, 잘, 저, 저마작, 제곰, 적근뎡/저근뎡/저근뎡, 저리, 적적, 전탕, 절리, 점, 정, 좀, 죄, 좀/좁, 즈러, 즉재, 질질,진작/진작/진적/진죽/진죽/진짓, 즈뎡, 죽, 즐, 채, 쳐, 츠리, 출아니, 춤, 치, 케케, 테로, 통, 퍽, 포, 피련, 하, 하마, 한창, 함기, 함부로, 핫, 해, 훌훌, 혈마/현마/혈마, 훌적, 훌, 흐, 흐마, 혼자/혼즈/혼자/혼저/혼저/혼차,흠기/ 흠씩, 훈창, 흠물며/흠물며</p>	
--	--

<표 3> 합성부사 어휘 목록

고유어	한자어
가초가초, 거포거포, 겨요겨요/겨유겨유/ 계유계유, 고로고로, 골골, 구디구디, 그러구러, 그렇저렇, 그리저리, 그저/ 그저, 갑히갑히, ㄱ장ㄱ장, 나날/날날, 도란도란, 도히도히, 두곤두곤, 두로두로, 내내/니니, 독독, 바히바히, 밤낮/밤낮, 부디부디/브대브대/브되브되/브디브디, 만만, 비속비속, 빙긋빙긋, 때때, 뽅뽅, 스마스마, 솔솔, 엇지엇지, 쎄쎄/찌찌/ 쎄쎄/찌찌, 이러툷/이러툷, 어셔어셔, 어나뎃/어늑뎃/어니뎃, 잘못, 이리드레/ 이리저리, 여긔더긔, 입때/입찌/잇디, 익식익식, 쟈쎄/젧찌, 쯤쯤조, 진동한동, 차마차마, 철네철네, 춤아/춤아, 한낮/ 훈낮, 훈갓/훈긋, 훈동안, 훈찌	각각(各各), ㄱ이ㄱ이(可-可-), 근근(間間), 즉즉(卽卽), 년년(年年), 당당(長長), 즈시즈시(仔細仔細), 즉시즉시(卽時卽時), 일일(日日), 쯤쯤(次次)

<표 4> 파생부사 어휘 목록

	고유어	한자어
'이' 결합 부사	가마니, 가만이, 가치, 갓가이, 각 ㄱ이/갓치, 거동저이, 거룩이, 고단이, 고디, 고로이, 고마이, 고이, 고즈기, 곱이, 공번되이, 과그리/과글리, 과시미, 관겨이, 구디/구지, 관겨이, 괴로이, 굵거이, 구석구석이, 그지업시, 그지업시, 그득이, 기피, 고죽고죽이, 기리,	가이(可-), 각벼리/각별이(各別-), 간간이(間間-), 간단이(簡單-), 간절이(懇切-), 경선이(徑先-), 경업시(景--), 고고이(高高-), 고연이(固然-), 공교로이(工巧-), 공순이(恭順-), 공정이(公正-), 공여니/공연이(空然-), 과이(過-), 쾌이/쾌이(快-), 괴이(怪-),

	<p>급작되이, 급죽이, 괴로이, 기피, 길이, ㄱ므니, ㄱ이, ㄱ이업시, ㄱ티/ㄱ치/ㄱ티, ㄱ작되이, 나이, 낫낫치, 녅녅이, 널니/널이, 니기, 놀라이, 늦거이, 니도이, 다긴이, 단단이, 달니/달리, 답답이, 대단이, 대스로이, 덧업시, 덕이, 드리, 두더기/둘거이/뚫거이,디단이, 든든이/든 든니/든 든이,만만이, 마니/마이/만니/만이,도뢰, 말업시, 맛당이, 멀즈기, 멀죽이, 무던이/므더니, 므셔이, 뭍술이, 먼니/먼리/멀니/멀리/멀이,믹이, ㅁ이/ㅁ이이, 바이, 반가이, 반다이, 밤낫업시, 밤낫읍시, 버릇업시, 반드시, 벽벽이, 번거이, 번번이, 벼리, 변변이, 부다니, 부지업시, 브즈런이, 불근이, 브경이, 블령이, 브질업시, 브즈런이, 불이, ㅼ기, 사오나이, 새로이, 서운이, 섭섭이, 새암되이, 설워, 설이, 속절업시, 수이/쉬이/슈이/쉴이, 술수리, 쉽스리, 슈고이, 식현이, 시로이, 시현이, 슈고로이, 심심이, 솔드리/솔드리/ 솔드리, ㅅㅅ치/ㅅㅅㄱ티/ㅅㅅㅅ치/ ㅅㅅ티, ㅅㅅㅅ이, ㅅㅅ난이, 시로이, ㅅㅅ이, ㅅㅅ질이, 아득이, 안샨이, 아으라니/아으라이, 알드리, 어득이,</p>	<p>극진극진이(極盡極盡), 귀둥이(貴重), ㄱ티기/ㄱ티이(奇持), ㄱ연이(巖然), 극심이(極甚-), 극진이(極盡-), 급급이(急急-), ㄱ구이(崎嶇-), 긴급이(緊急-), 긴진이(緊緊-), ㄱ절이(懇切), ㄱ년이(年年-), ㄱ스로이(例事--), 대득이(大得-), 도련이(猝然-), 막막이(漠漠-), 디도/대되/디되(大都), 능이(能-), 막연이(漠然-), 망측이(罔測-), 무단니/무단이(無斷), 명명이(明丹), 면면이(面面-), 무궁이(無窮-), 무슈니/무슈이(無數), 무심이(無心-), 무스이(無事-), 무양니/무양이(無恙-), 무정이(無情-), 무탈이(無煩-), 무한이(無限-), 무스이(無事-), 미령이(靡寧-), 미편이(未便-), 민망이(憫惘-), 박절이(迫切-), 번극이(煩劇-), 분명이(分明-), 불가이(不可-), 불안이(不安-), 불평이(不平-), 불행이(不幸-), 분명이(分明-), 분연이(奮然-), 성실이(性實-), 속속이(速速-), 수업시(數--), 수편이(隨便-), 슈상이/슈상이(殊常-), 순이(順-), 순전이(純全-), 실업시(實--), 심상이/심상이(尋常), ㅅㅅ이(色色), 스스로(私私-), 안강이(安康-),</p>
--	---	---

	<p>어려이, 어렵프시, 어즈러이, 어히업시, 언현이/얼연이/얼현이, 업시, 얼푸시/얼프시, 약약이, 업수이, 엇더이/어엇비/에엇째, 외로이, 의례이, 의전이, 이러ㅏ시, 잔상이, 일죽이/일죽이, 즈롬업시, 쥬족이, 져기/적기/적이, 즐거이, 쥬착업시, 잔상이, 천천이, 초록이, 츠기, 탄실이, 튼튼이, 턱업시, 펍이, 흐르시, 흘일업시</p>	<p>스스로이(私私--), 안녕이(安寧-), 여네이(如禮-), 영화로이(榮華--), 완년이(完然-), 완완이(緩緩-), 완홀이(緩忽-), 왕왕이(往往-), 요란이(搖亂-), 요원이(遙遠-), 요절이(要切-), 우연이(偶然-), 웅장이(雄壯-), 원통이(冤痛-), 위황이(危慌-), 으수이(依數-), 은근이(愍懃-), 응당이(應當-), 의구이(依舊-), 의수이(依數-), 의심저이(疑心--), 일일이(一一-), 일저리(一切), 이삭이(愛惜-), 자샤이/즈샤이/즈샤이/즈샤이(仔細), 우여니(偶然-), 작실이(着實-), 적실이(的實-), 절절이(切切-), 정신업시(精神--), 전연이(全緣-), 졸연이(猝然-), 종용이(從憑-), 죄송이(罪悚-), 준절이(峻截-), 지그기(至極-), 지그미(只今-), 즈여니/즈연이(自然), 착실이(着實), 창황이/창황이(蒼黃), 착실이(着實), 청정이(淸定-), 촌촌이(寸寸-), 총이(悤-), 측량업시(測量--), 친이(親-), 친절리/친절이(親切), 츄실이(充實-), 총총이(悤悤-), 쾌청이(快晴-), 태연히(泰然-), 태평이(太平-), 탁실이(着實-), 특이(特-), 편니/편이(便-),</p>
--	--	---

		<p> 티평이(太平-), 편안이(便安-), 평히(平-), 평안니/평안이(平安-), 평복이(平復-), 평온이(平穩-), 평탄이(平坦-), 폐로이(弊-), 풍성이(豐盛-), 핏근이(逼近-), 한업시(限--), 현슈이(懸殊-), 현저이(顯著-), 홀연이(忽然-), 황송이(惶悚-), 황연이(晃然-), 황황이(惶惶-), 홀연이(欸然-), 후히(厚-), 흔쾌이(欣和-) </p>
<p>‘히’ 결합 부사</p>	<p> 가죽히, 고단히, 고디식히, 고약히, 고요히, 고죽히/고죽히, 고집피, 관겨히, 군히, 급작저히, 갑히, 급급히, 낙낙히, 넉넉키, 니도히, 대히, 답답히, 대단히, 대히, 되히, 두르히, 둔둔히, 마히/만히, 도히, 망조히, 바히, 불상히/ 불상히, 브경히, 새로히, 서의히, 섭섭히/섭섭히, 성벽히, 성히, 슈슈히/슈히, 식환히, 짝히, 수히, 아득히/아득히, 아으라히, 알히, 울히, 옷작키, 의연히, 이미히, 작히, 전일히, 조용히/조용히, 조히/쪼히, 쪼용, 짝짝히, 죽히 /직히/작히/죽키, 출히, 통히, 훌훌히, 흐운히 </p>	<p> 가히(可-), 감히(敢-), 격히(激-), 간고히(艱苦-), 경히(耿耿-), 경선히(徑先-), 고고히(高高-), 고극히(苦劇-), 고독히(孤獨-), 고이히(怪異-), 고적히(孤寂-), 골몰히(汨沒-), 공연히(空然-), 과도히(過度-), 괴상히(怪狀-), 구구히(區區-), 구차히(苟且-), 과히(過-), 궁히(窮-), 경히(輕-), 극진히(極盡-), 급급히(急急-), 귀히(貴-), 극히(極-), 급히(急-), 기기히(箇箇-), 급박히(急迫-), 념념히(念念), 긴히(緊-), 능히(能-), 다행이/다행히(多幸-), 당히(長-), 당슈히(長壽-), 던테로(全體), 던혀(全,-), 덩녕히(丁寧-), 독히(足-), 둥히(中-), 디완히(遲緩-), 디디로(代代-), 망극히(罔極-), </p>

	<p> 명명히(明明-), 무궁히(無窮-), 무사히(無事-), 무수히(無數-), 무스히/무스히(無事-), 무양히(無恙-), 무익히/무익히(無益-), 마령히(摩寧-), 민망히(憫惘-), 박익히(迫阨-), 박키/박히(薄-), 분주히(奔走-), 비히(倍), 세세히(細細), 속히(速-), 쇼쇼히(小小-), 시급피(時急-), 순히(順-), 실히(實-), 심히(甚-), 쾌히(快), 신기히(神奇), 영히(永-), 여네히(如禮-), 요란히(搖亂-), 요요히(遙遙-), 요원히(遙遠-), 용이히(容易-), 자세히(仔細-), 적막히(寂寞-), 절박히(切迫-), 정녕히(丁寧-), 졸연히(猝然-), 조급히(躁急-), 종용히(愆憑-), 족히(足-), 지리히(支離), 직히(直-), 장히/장히(壯-), 진히(津-), 지극히(至極-), 자세히(仔細-), 조시히(仔細-), 착실히(着實-), 착실히(着實-), 첩첩히(疊疊-), 초략히(草略-), 초초히(草草-), 친히(親-), 쾌히(快-), 쾌히(快-), 쾌히(快), 편히(便-), 허히(虛-), 총망히(悤忙-), 탐탐히(耽耽-), 편편히(便便-), 평선히(平善-), 평순히(平順-), 평안히(平安-), 한심히(寒心-), 허다히(許多-), </p>
--	---

		허소히(虛疏-), 험후히(歇后-), 홀런히(忽然-), 호화히(豪華-), 험히(歇-), 황낙히(荒落-), 흥히(凶)
‘-오/우’ 결합 부사	것고로/것구로, 너모/너무, 마조 /므지, 미오/미우, 아오로, 외오/외우, 조초/쥬초, 쥬조/쥬쥬/쥬주/ 쥬쥬/자쥬/쥬로/쥬록/쥬롭	
‘-혀’ 결합 부사	도로여/도로혀	전혀(全-)/던혀(全-), 흥여/흥혀(幸)
‘-내’ 결합 부사	겨으니, ㄱ으내, 마춤내/므춤내, 봄내, 여롬니/여롬내/여름니, 몬내/몬니/몯내/몯니	
‘-로’ 결합 부사	새로/시로, 날로/날노	별니/별노/별로(別-)
어근형 부사	다긴, 두루/두로, 멀	자세/자시/쥬시/쥬셔/쥬세/ 쥬시(仔細), 세세(細細), 필(必), 쥬고(自古), 탄탄(坦坦), 티삼(太甚)
어미 결합 부사	그러나, 모다, 뇌여, 쏘흔, 아오라, 므스므러/므스므라/므스마라, 한사코, 결단코, 구퓌여/구튀여 /꺾튀야/꺾튀여/꺾햐여, 쥬고마 /쥬고매, 차마/참아/차마/참마 /참므/참아	
조사 결합 부사	간대로/간디로, 거디로, 거러로, 그나마, 그대로/그디로, 그리도, 그리로, 날노/날로, 그더도록/ 그디도록, 쏘논, 다시곰/다시음, 그저긱/그저씩/그적긱/그젓긱/ 그젓씩, 더도록, 바론대론, 아마도, 아모도록/아모듀록/아모조록/ 아모쥬로나/아모쥬록/아모쥬로나,	고로(故-), 디디로(代代-), 실은(實-), 시시로(時時-), 실노/실로(實-), 혹은(或-), 진실노/진실로(眞實-), 쥬고로(自古-)

	델로, 스스로/스스라/스스로, 아모래도/아모려나/아모려도/ 아무려나/아무려도/아므려도/ 아므리나/아므려나, 아므리나, 이디도록/이대로록/이더도록/ 이더록, 언제나, 엇미나, 이리도, 이려나/이리나, 이리도록, 이리로, 이만치, 절노/절로/절노, 촘으로, 쥬고마치/쥬고만치, 홀로/홀노	
그 외 접미사 결합 부사 (-다지/더지, -소, -옥/-그, -디, 등)	그더지, 그덧지, 더욱, 몸소, 이닥지, 이더지, 이덧	본디(本-)

본고는 이들 1,226개의 부사를 대상으로 부사 어휘들을 고찰할 것이다. 위에서 분류한 대상인 단순부사는 총 438개로 약 36%의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단순부사들을 형태론적으로 분석하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첫째, 단순부사 중에는 본래부터 부사로 기능했던 어휘가 있는 반면, 명사나 관형사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어휘들도 있다.¹²⁾

둘째, 1음절 단순부사 같은 경우, 접두사와의 구분이 모호한 어휘들도 존재한다.¹³⁾

셋째, 단순부사들 중에는 파생부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어휘들도 있다.¹⁴⁾

넷째, 단순부사들을 이루고 있는 어근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 보인다

12) ① 창동서는 **어제** 장수 조초 디내고 가디록 망극 툃툃혀여 허라
 <추사가-07, 1792년, 해평윤씨(모)→김노경(자)>

② 저는 감기로 그져 낫지 못하오나 **어제**가지 단니옴다
 <신상궁(代조)-01, 1863~1907년, 신상궁(미상)→미상(미상)>

13) ① 괴별 **갓** 드렸다 허오나 이들이 하마 일망이 너머스오나
 <의성김씨-029, 1847년, 여강이씨(아내)→김진화(남편)>

② 약을 씨랴 허오면 보허탕 **갓사온** 약을
 <송병필가-19, 미상년, 미상(남편)→미상(아내)>

14) 현대 국어 '조곰'에 해당하는 '쥬곰'의 경우, 작다를 의미하는 '쥬다'의 어간에 '-옴'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부사인지, 아니면 '쥬곰'으로 등장하여 치경음이었던 'ㅈ, ㅉ'이 경구개음으로 바뀌면서 '쥬'와 '조'의 발음이 같아지고, 19세기에 제2음절 모음 'ㅛ'가 'ㅡ'로 바는 과정을 거치며 '쥬곰>조곰>조곰'의 변화 과정을 거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다.15)

따라서 본고에서는 16세기~20세기 초에 나타난 단순부사의 목록만 제시하고 그 외의 분석은 추후 과제로 남기려 한다.

합성부사는 총 82개, 6.7%의 비율을 보이는데, 형태가 다른 단어끼리의 합성과 형태가 동일한 단어끼리의 합성으로 나눌 수 있다. 형태가 다른 단어끼리의 합성은 다시 동일한 품사끼리 결합된 합성부사와 다른 품사끼리 결합된 합성부사로 나뉜다. 부사 목록에 있는 합성부사 82개는 주로 ‘부사+부사’, ‘관형사+명사’, ‘명사+명사’ 등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 통사적 합성어이며, 이 중 ‘부사+부사’의 결합이 가장 많았다. 합성부사는 ‘어근+어근’의 결합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어근이 파생어인 경우도 있지만,¹⁶⁾ 대체로 단일어인 경우가 많아 형태론적 측면에서 단순성을 띤다. 따라서 한글편지에 나타난 합성부사 역시 목록만을 제시할 것임을 밝힌다.

파생부사는 총 701개, 약 57%의 비율을 보인다. 파생부사는 기존 연구에서도 많이 논의되었지만, 형태론적인 조어법상으로 다루기에 적합하고, 부사의 생산성¹⁷⁾을 보여 주기에 알맞다 여겨 3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본고는 총 5장의 구성으로 나누어 기술하는데, 각각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6세기~20세기 초의 한글편지에 나타난 부사를 대상으로 우선 1장에서는 연구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연구 대상인 부사 목록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연구 대상인 한글편지에 대한 특성을 밝히고, 부사에 관한 기본적 논의를 바탕으로 부사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파생부사에 대하여 이론적 논의를 할 것이다. 3장에서는 16세기~20세기 초 한글편지에 나타난 전체 부사 중, 파생부사를 제시하고,

15) 이승녕(1941)에서는 ‘서르>서로’로 변화하는 것이 부사파생접미사 ‘-로’에 의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유창돈(1978)에서는 ‘바르>바로’의 관계 역시 부사 파생 접미사 ‘-로’가 결합하여 부사로 파생되었다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서로’와 ‘바로’를 ‘-로’에 의한 파생어라고 단정 짓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로’ 파생에 의한 부사라면 앞말이 실질형태소여야 하는데, ‘서’와 ‘바’를 실질형태소로 규정짓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로 ‘바르’는 ‘바르다’의 어간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단지 가능성일 뿐 명확하지는 않다. 만약 ‘바르’가 ‘바르다’의 어간이라면, ‘-로’가 아니라 ‘-오’에 의한 파생일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어근과 접사로 분석하기 어렵거나 혼란스러운 경우가 단순부사에서 다수 관찰이 된다.

16) 송철의(1992)에 따르면 합성부사의 구성성분이 파생어라 할 때, 관여하고 있는 각 접미사들의 기능이 어떻게 다르며 어떤 경우에 어떤 접미사가 선택되는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17) ‘생산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고영근(1972), 송철의(2008), 구본관(1990) 등 많은 학자들이 의견이 상이하다. 또한 연구를 통시론적으로 다룰 것인지, 공시론적으로 다룰 것인지에 따라 생산성의 개념은 달라질 것이다. 2장에서 살피겠지만 본고에서는 특정 접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어가 많으면,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반면에 파생어가 적으면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볼 것이다. 가령, ‘높+-이’의 ‘-이’는 생산성이 높은 접미사이고, ‘집+-을’의 ‘-을’은 생산성이 낮은 접미사이다.

이를 형태론적으로 분류할 것이다.¹⁸⁾ 그리고 분류한 각각의 부사들을 조어법적인 특징을 기본으로 고찰하되, 필요에 따라 통사·의미적 방법으로 바라볼 것이다. 4장에서는 한글편지에서 통사·의미적으로 특이성을 보이는 부사들을 살필 것이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2~4장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며, 본론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다시 확인해 볼 것이다. 또한 남은 문제를 언급하며 마무리할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본고는 한글편지에 나타난 파생부사 어휘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한글편지 부사 어휘에 대해 다루기 전에 한글편지의 특성과 부사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기기에 본 장에서는 한글편지에 대한 이론적 특성과 부사의 정의와 범위, 파생부사의 특성을 기존 논의들을 통해 살필 것이다.

1. 한글편지의 특성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반포되면서 많은 문헌 자료들이 훈민정음으로 기록되었다. 한글편지도 이 중 하나였는데, 다른 문헌 자료들에 비해 백성들의 일상생활에서 활발하고 밀접하게 사용되었다. 또한 한글편지는 한자를 구사할 수 없는 일반 평민뿐만 아니라 궁중과 왕족, 남성, 시녀까지 그 사용 범위가 포괄적이고 넓었다. 한글편지를 뜻하는 ‘언간(諺簡)’을 ‘내간(內簡)’이라 일컫기도 하였는데, 이는 엄연히 ‘여성’을 그 사용 주체로 상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발·수신자를 보면 남녀 구분 없이 왕, 왕족, 사대부, 궁인, 평민 등 거의 전 계층이었다는 점에서 사용 주체가 포괄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⁹⁾ 이처럼 기존 간찰(簡札)이 사대부 계층 이상의 남성 전유물이었다면, 한글편지는 특정 계층을 망라하고,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

18) 본 연구에서는 파생부사를 형태론적으로 분석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표준국어대사전』과 『고어사전』을 참고하였다. 이때 『표준국어대사전』은 인터넷 사전임을 밝힌다.

19) 한글편지는 발·수신자 가운데 여성이 한 명 이상 개입했다는 점에서 남성 전유물이었던 간찰(簡札)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한글편지는 발·수신자가 거의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에, 그들의 관계 -예를 들어 상하 관계, 성별, 가족 내 위치, 위계 등-를 정확히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관계를 통해 높임, 성별 간의 언어 차이, 인칭 대명사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한 가문이나 시대별, 지역별로 사용되는 어휘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각각의 변인(變因)을 확인하고 통시적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글편지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황문환(2010:94)에서는 한글편지의 특성 중 하나로 ‘자연성’을 들어 여타의 언해 자료와의 차별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기존 간본 자료들이 언해의 과정을 거치는 반면 한글편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기에 훨씬 자유로운 어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번역으로 인한 간섭이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황문환(2010:94)에서는 『소학언해』(1587)를 예로 들어 ‘자연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가령 ‘父母ㅣ 굴오샤디 이 날을 잘 섬기는다 ㅎ시거든<소학언해 2:17b>’에서 ‘는다(-는다)’는 내포절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은지니 신 간다 면화 훈 근 간다 <순천김씨묘출토언간-09>’에서는 내포문이 아닌 환경에서도 ‘-는다’가 사용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한글편지의 특성 중 하나인 ‘자연성’을 밝히고 있다. 『소학언해』와 「순천김씨묘출토언간」이 비슷한 시기에 쓰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존 언해 자료와는 다른 한글편지만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글편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휘적 측면에 있어서 다른 간본 자료들보다 조금 더 이른 사용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가령 현대국어의 ‘그저께’의 의미를 지니는 ‘그적긔(그저긔/그저씩/그적긔)’는 17세기 『첩해신어(원간본)』(1676)에 처음 나타났는데,²⁰⁾ 한글편지에서는 그보다 100년 전인 「순천김씨묘출토언간」에서 쓰임이 관찰된다.²¹⁾ 현대국어의 ‘거꾸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글편지에서는 ‘것구로/것고로’의 형태로 쓰이는데, 문헌 자료에서는 16세기 중엽 이후 처음 ‘것꾸로’의 모습으로 등장하다가 18세기가 되어서야 ‘것구로’의 사용 양상을 보였다.²²⁾ 하지만 한글편지에서는

20) 네 代官의 가 내 말로 그적긔 여긔 노력와
<1676,첩해신어-초 1:1ㄱ>

21) 스펠날씩 진봉도 가고 그저긔 사르미 갈 거시라
<1560,순천김씨-85>

22) 가야미논 별애를 쓰어 것꾸로 섬에 오르늦자
<1576,백련초해,14ㄴ>
드레를다가 드러 물 우희 배쳐 것구로 쳐 물에 맞바다 노력가면
<1763,노걸대신석,1:44ㄱ>

16세기부터 ‘것고로’의 모습이 보였으며, ‘것구로’의 형태는 문헌 자료보다 이른 시기인 17세기부터 사용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²³⁾ 또한 ‘것고로’의 형태는 한글편지 외에 어떤 문헌 자료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처럼 한글편지는 기존 간본 자료나 문헌들에 비해 사용 양상이 유연했으며 자유로웠고 따라서 실생활에서의 언어 사용 양상을 보다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언어 자료라 할 수 있다.

2. 부사의 정의와 범위 한정

부사에 대한 정의는 주시경(1910), 김두봉(1977), 박승빈(1986), 최현배(1959), 김민수(1971), 허웅(1975), 고영근(1987), 민현식(1987), 서정수(2005), 남기심·고영근(2014) 등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 내리고 있고, 또한 현대까지 진행되고 있다. 부사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주시경(1910): “억은 엇더하게 (움)라 이르는 여러 가지를 다 이름이라.”

김두봉(1922): “억은 ‘어떠하게’란 말에 ‘떠하’와 ‘궀’를 줄인 것(억은 씀씨나 억을 꾸미어 금하는 씨)”

박승빈(1935): “용언의 의의를 수식하는 단어”

최현배(1959): “어찌씨는 풀이씨의 앞에서 그 위의 풀이씨가 어떠하게(어찌) 들어 남을 보이는 씨를 이름이니: 어떠하게(어찌) 하(되)느냐?의 물음에 대하여. 그 내용을 대답하는 말에 해당하는 씨이니라.”

김민수(1971): “부용어는 구문상 용언으로 된 요소에 두루 얹혀, 그 뜻을 정밀하게 하며, 수의적으로 표현되는 지엽 요소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이나 존재 상태 들레 대하여 ‘어떻게’나 ‘어디’에 해당하는 상황을 표현 하는데, 이 속성어의 제한을 받는 중심어는 용언이라고 지정된다.”²⁴⁾

23) 녀늬뉼 이룬 무지헝뉼 명디 고도 것뉼치막 것고로 안 밧고라 가니
<1560,순천김씨-165>
동토 헝 고디 것구로 밧고 도라오면 즉시 뉼늬니라
<1650,이동표가-03>

24) 김민수(1971)에서는 ‘부사’라는 용어 대신 ‘부용어’라는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때, ‘부용어’를 ‘지엽적 요소’라 지칭한 것은, 본질적이거나 중요하지 않고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것을 의미하

허 웅(1975): “어찌말은 풀이씨의 뜻을 꾸미는 성분으로 꾸밈씨는 굴곡을 하지 않는다.”

고영근(1987): “용언이나 다른 말 앞에 놓여 그 말의 뜻을 분명히 제한해 주는 품사.”

민현식(1991): “부사는 용언을 수식하는 단어류”

서정수(2005): “체언 이외의 여러 문장 성분을 수식하는 낱말”

남기심·고영근(2014): “부사는 용언이나 다른 말 앞에 놓여 그 말의 뜻을 분명히 제한해 주는 품사이다.”

부사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결국 ‘용언 앞에 놓여 용언을 꾸며주거나 그 뜻을 한정한다.’는 점에서 학자들은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 중 고영근(1987), 서정수(2005), 남기심·고영근(1985)에서는 부사의 수식 범주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용언 외의 다른 성분도 수식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부사는 주로 용언 앞에서 용언을 수식하지만, 때로는 다른 문장성분 앞에서 그 말의 뜻을 분명히 해주는 역할도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문장성분 중 하나인 부사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부사와의 구분을 명확히 할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부사이기에 부사어와의 구분이 필요할 것이고, 그에 따라 본고에서 다룰 부사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사어에 대한 정의들은 대부분의 논의에서 유사하다.

최현배(1959), 유창돈(1978), 허웅(1975), 이익섭·임흥빈(1983), 남기심·고영근(1985), 권재일(2012) 등에서는 부사어를 ‘서술어를 꾸미는 말’ 혹은 ‘용언을 꾸미는 말’, ‘술어를 수식하는 말’, ‘문장의 형식에서 어찌의 형식으로 된 것’ 등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한편, 남기심·고영근(2014)에서는 부사어는 특정 성분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데, 특정 성분은 서술어, 다른 부사어나 관형어, 체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사어의 성립 기준으로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가 될 수 있고, 체언에 부사격조사가 결합하여 부사어가 될 수 있고, 부사성 의존명사가 앞에 오는 관형어와 더불어 부사어가 되기도 하며, 용언의 활용형에 부사형 어미 ‘-게’가 붙어서 부사어가 되기도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권재일(2012)에서는 부사어의 실현 방식에 따라 부사 또는 보

는 것으로, 부사의 필수적이지 않은 특성을 염두에 두고 내린 정의인 듯하다.

조사가 결합한 부사, 체언류 또는 부사격조사나 보조사가 결합한 체언류, 부사절 내포문, 부사격조사 ‘에’ 또는 ‘으로’가 결합한 ‘-기’와 ‘-음’에 의한 명사절 내포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서정수(1994)에서는 부사어를 형태나 성분 구조에 따라 부사, 부사구, 후치사구, 부사절 등으로 분류하였다.

지금까지 언급한 기존 논의에서의 정의와 분류를 토대로 정리해 본다면, 다음 일곱 가지가 부사어가 될 수 있다.

- ① 부사 자체: 꽃이 **매우** 예쁘다.
- ② 체언 자체: **사과** 같은 거.
- ③ 부사구: **조금 더 자세히** 말해봐.
- ④ 부사절: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 ⑤ 체언+부사격조사: **집까지** 가자.
- ⑥ 용언의 어간+부사형전성어미: 너는 참 **빠르게** 걷는다.
- ⑦ 체언구: 철수는 **그 다음 날** 학교에 갔어.

이처럼 품사인 부사는 부사어의 일부가 될 뿐이며, 부사와 부사어는 명확히 구분되는 문법 범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부사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기에 품사로서 오롯이 부사인 것만 다룰 것이고, 문장 성분으로의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것들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령, ‘tiping이’는 부사이기에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tiping하게’는 부사어이고 품사로는 형용사이기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3. 파생부사의 특성

한글편지에 나타난 파생부사를 논의하기에 앞서 본 절에서는 파생부사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논의할 것이다. 먼저 파생부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용어의 개념들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기에, 다음 기본 개념들-어근, 어간, 어기, 접사-을 한정하기로 한다. 그리고 난 후 ‘파생어’, ‘파생 접사의 생산성’, ‘단어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형태소가 어떠한 문법 범주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근(root), 어간(stem), 어기(base) 등의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러한 개념들은 연구자에 따라서 혹은 연구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각각의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익섭(1975)>

- ① 어근: 굴절접사(어미)와 직접 결합될 수 없으며 동시에 자립형식도 아닌 단어의 중심부.
- ② 어간: 굴절접사(어미)와 직접 결합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단독으로 단어가 될 수 있는 단어의 중심 부분.
- ③ 어기: 어근과 어간을 묶는, 접사에 대(對)되는 용어

<노명희(2009:80)>

- ① 어근: 굴절어미가 직접 결합할 수 없는 의존형식. 단일형태소뿐만 아니라 복합형식도 포함.
- ② 어간: 굴절접사(어미)와 직접 결합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단독으로 단어가 될 수 있는 단어의 중심 부분.
- ③ 어기: 어근과 어간을 아우르는 개념이되 파생과 복합과 같은 형태론적 조작이 적용되는 대상.

<이선웅(2012)>

- ① 어근: 복합어의 형성에 나타나는 실질형태소. 한편으로는 규칙 어근과 불규칙 어근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 어근과 복합 어근으로 나뉜다.
- ② 어간: 활용어미가 직접 붙을 수 있는 부분. 문장 형성의 요소로서 단어 형성의 요소인 '어근'과 층위를 달리함.
- ③ 어기: 어근과 어간을 아우르는 용어.

이러한 각각이 정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어근(root)은 단어에서 어미와 결합할 수 없고, 자립할 수 없는 실질형태소.

어간(stem)은 용언에서 어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어기(base)는 단어 형성에서 중심을 이루는 부분으로 어근과 어간을 포함하는 개념.

접사(affix)는 파생어 형성에 있어 어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어기 또는 어근에 선행하거나 후행하며 그 의미를 한정하는 부분.²⁵⁾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정리된 각각의 개념들의 정의를 전제로 하여 파생부사들을 살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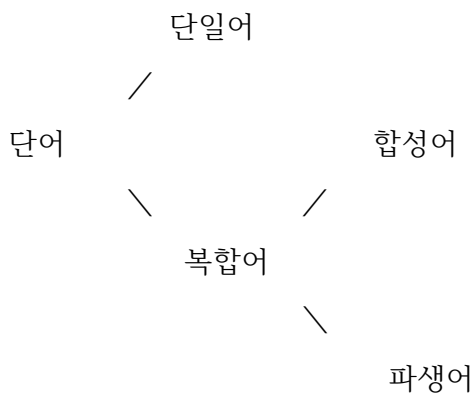
파생 혹은 파생어에 대한 정의는 여러 학자들이 언급해 왔는데, 주요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허웅(1975)에서는 ‘뿌리에 말을 만드는 가지가 통합되는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익섭·임홍빈(1983)은 ‘그 어간의 직접 구성요소의 하나가 파생접사인 단어’, 남기심·고영근(1985)은 ‘실질형태소에 형식형태소가 붙어서 이루어진 낱말’이라 정의한다. 구본관(1998)에서는 이러한 파생의 개념을 명확히 논의하고 있는데, 파생과 굴절의 차이를 제시하며 파생의 어기는 단어 이하이고 어휘 고도 제약을 지니며, 파생은 공시적으로 새로운 어휘를 만드는 과정이라 언급하고 있다. 이 정의들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파생접사를 이용하여 새로운 단어를 형성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파생어 중 본 연구에서 다룬 파생부사는 다른 품사의 어기에 접미사가 결합하여 부사로 파생된 것들이다. 가령, 형용사 ‘빠르다’의 어간 ‘빠르-’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빨리’라는 부사가 파생된 것이 그러하다. 파생부사는 기존 품사의 성질이 사라지고 부사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빨리’는 ‘빠르다’라는 용언의 서술성이 없어지고, 후행하는 용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파생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접사가 필요한데, 이때 접사가 파생어 형성에 참여하는 정도를 ‘생산성(productivity)’라 한다. 단어의 형성과 관련된 ‘생산성’은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현재까지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고영근(1972)은 접미사를 규칙적인 접미사와 불규칙적인 접미사로 나누어 전자는 생산성이 있고, 후자는 생산성이 결여되었다고 제시한다. 하치근(1993)에서는 해당 접사가 만들어낸 파생어 수가 많으면

25) 접사(affix)에 대한 개념은 그 외의 개념과는 달리 학자마다 공통된 의견을 지니고 있다. 이희승(1950), 최현배(1959), 이익섭·임홍빈(1983)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공통적으로 ‘어기 또는 어근에 첨가 되어 새로운 의미나 문법 기능을 나타내는 형태소’로 규정되고 있다.

생산성이 높다고 언급하고 있고, 민현식·왕문용(1994)에서는 접사가 두 개 이상의 어형에서만 확인되면 생산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성’의 개념을 ‘생산성’의 유무로 논한다는 자체가 무리일 수 있고, 또한 연구를 통시적으로 다룰 것인지, 공시적으로 다룰 것인지에 따라 생산성의 개념은 달라질 것이다. 고영근(2018)에서는 생산성을 측정할 객관적 기준이 없음을 언급하여, 만약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생산성을 말하지 어렵다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파생부사를 다루는 본고의 목적에 따라 생산성이라는 개념을 언급할 수밖에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하치근(1993)의 견해에 따라 특정 접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어가 많으면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반면에 파생어가 적으면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볼 것임을 밝힌다.

단어 형성법에 따른 단어의 구조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⁶⁾



단일어(simple word)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말하는데, 가령 ‘꽃, 예쁘(다)’ 등이 있다. ‘예쁘(다)’의 경우 실질형태소와 형식형태소, 즉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 국어의 용언은 어간과 어미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때 어미는 문법적인 역할만을 담당하므로 단어 형성에서는 어미를 배제하고 논의한다. 복합어(complex word)는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눌 수 있다. 합성어(compound word)는 어기나 단어끼리 만나 이루어졌으며, 접사가 결합하지 않은 복합어이다. 파생어(derived word)는 구성요소의 어느 한 쪽이

26) 단어의 형성법에 따른 단어의 구조는 학자의 견해에 따라 단일어와 합성어로 나누고 합성어를 다시 복합어와 파생어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학교문법에 따라 단어의 구조를 나누었음을 밝힌다.

접사인 복합어를 가리킨다. 고영근(2018)에서는 합성어는 어휘 의미를 띤 요소끼리 결합한 단어라고 언급하고 있고, 파생어는 어휘 의미를 띤 요소의 앞이나 뒤에 형식 의미를 지닌 요소가 결합한 단어라고 언급하고 있다.

Ⅲ. 파생부사의 유형

현대국어의 파생부사와 한글편지 상에 나타난 파생부사는 문장에서의 기능과 역할에 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16세기~20세기 초까지의 한글편지에 나타난 파생부사 들은 접미사에 의해 부사 파생과 조사·어미에 의한 파생으로 나눌 수 있다. 접미사에 의한 파생부사 유형에는 ‘명사+접미사/ 동사+접미사/ 형용사+접미사/ 부사+접미사’가 있고, 조사와 어미에 의한 파생부사 유형에는 ‘어기+조사/ 어기+어미’가 있는데, 파생 부사는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선행 어기에 접미사가 결합하여 부사를 파생하는 것이 기에 대체적으로 통사적 파생법에 의한 부사 파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표적인 부 사 파생 접미사로는 ‘-이’가 있는데, 현대에서도 그러하지만 16~20세기 초까지도 부 사를 파생하는 가장 생산적인 접미사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접미사 ‘-이’는 형용사 어간, 동사 어간, 어근에 결합하는데, 한글편지에서는 동사 어간에 ‘- 이’가 결합하여 부사를 파생한 경우는 그리 많이 관찰되지는 않았다. 형용사 어간에 결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형용사 어간은 단일 어간일 수도 있지만, 파생형용 사에도 자유롭게 결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편 한글편지에서 자주 관찰되는 접미사에 ‘-오/-우’가 있는데, 앞서 언급한 ‘-이’가 형용사 어간에 주로 결합하여 부 사를 파생했다면, ‘-오/우’는 동사 어간에 주로 결합하여 부사를 파생한다. 그렇다하 여 ‘-이’와 ‘-오/우’가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 둘 접미사가 상보 적 분포를 보이기 위해서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 겹침이 없어야 하는데, ‘-이’와 ‘-오/ 우’가 함께 사용되어 파생부사를 형성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이’가 형용사 어간에 주로 결합하지만 그렇다하여 동사 어간에 결합을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오/우’ 외에도 부사를 파생하는 접미사들은 다양하고, 접미사 외에 어미, 조 사에 의한 부사 파생 등 파생부사 형성에 기여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한편 파생부사를 형태론적으로 분석할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다. 가령, ‘아무리’는 시기에 따라 ‘아무리/아무리/아무리/아무리’ 등 다양한 이형태 혹은 이표기를 보인다. 이런 경우를 포함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는 파생부사들은 그 부사가 사용되기 시작한 첫 시기를 원형으로 보고 분석할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아무리’는 15세기 『훈민정음 언해본』에서부터 ‘아무리’의 형태로 관찰되기 시작하였고, 한글편지에서도 ‘아무리’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그러하다면 ‘아무리’의 형태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또한 현대국어의 ‘무섭다’에서 온 파생부사인 ‘므셔이’는 한글편지에서 16세기 이후에 사용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므스엽다’는 15세기부터 간본 자료에서 사용되었고, 따라서 ‘므셔이’는 어간 ‘므식엽-’에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휘로 형태론적 분석을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접미사, 어미, 조사에 의한 부사 파생²⁷⁾을 살펴볼 것이다. 접미사에 의한 파생에서는 ‘-이/-히/-오/-우’와 그 외의 접미사에 의한 파생을 전부 살필 것이고, 어미와 조사가 결합하여 파생부사를 형성하는 경우 역시 고찰할 것이다. 또한 각각의 파생에 따른 비율을 통해 빈도수도 확인해 볼 것이다.

1. ‘-이’에 의한 파생

접미사 ‘-이’는 파생부사 형성에 있어서 생산성이 가장 높다.²⁸⁾ 본고에서 다루는 파생부사는 총 701개로, 이 중 접미사 ‘-이’가 결합된 파생부사는 총 311개로 높은 빈도수를 차지한다. 접미사 ‘-이’가 결합되는 여기로는 명사, 어근, 용언의 어간, 부사가 있다.²⁹⁾ 먼저 접미사 ‘-이’가 결합한 파생부사의 빈도수를 선행 어기를 기준으로 표를 통해 살펴보겠다.

27) 파생(派生)이란, 형태소 이상의 단위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므로, 파생어를 형태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형태소 경계에서의 음운론적인 특성을 살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형태론적으로 파생부사를 논의할 것이지만, 음운론적인 분석이 관여될 수 있음을 밝힌다. 또한 필요에 따라 통사·의미적으로도 고찰할 수 있음을 밝힌다.

28) 현대국어에서는 형용사나 일부 명사와 결합하는 반면에 중세, 근대에서는 다양한 선행 어근에 결합하여 부사를 파생하였다.

29) 기주연(1994)에서는 부사 파생 접미사 ‘-이’의 선행 어근을 13가지로 분류하였다.

선행 어근은 다음과 같다.

① 형용사+-이 ② 동사+-브/브+-이 ③ 명사+-답+-이 ④ 명사+-롭/롭+-이 ⑤ 어근+-압/엮+-이
⑥ 명사+-젓-+-이 ⑦ 어근+-ㅎ+-이 ⑧ 어근+-스럽+-이 ⑨ 형용사+-죽/죽+-이 ⑩ 명사+-이
⑪ 형용사+-술/살+-이 ⑫ 동사+-이 ⑬ 부사+-이

<표 5> 선행 어기+ '-이'가 결합하여 파생된 부사 비율

어 종 음절수 선행 어기	한자어(총 136개)			고유어(총 175개)			
	1음절	2음절	3음절	1음절	2음절	3음절	4음절
명사/어근	3.2%	33.8%	0%	0.9%	18.6%	1.9%	0.6%
용언의 어간	0%	1.6%	2.2%	15.4%	10.3%	5.8%	0%
부사	0.3%	2.5%	0%	0%	2.2%	0.3%	0%

접미사 '-이'가 결합한 파생부사의 수는 총 311개이며, 이 중 한자어가 총 136개, 고유어가 총 175개에 해당한다. 또한 2음절의 한자어 명사 혹은 어근에 결합하여 부사를 파생한 빈도수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유어에서 역시 2음절 명사 혹은 어근에 결합하여 부사를 파생한 빈도수가 높다.

다음 절에서 조어법적 특징에 따른 형태론적 분석을 통해 이들 어기와 접미사 '-이'와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1. 명사/어근+ '-이'

명사/어근+ '-이'가 결합하여 파생된 부사 목록은 다음 표와 같다.

<표 6> 명사/어근+ '-이'가 결합하여 파생된 부사 목록

(가)
ㄱ
과이(過), 쾌이(快), 괴이(怪), ㄱ이(可), 능이(能), 디되(大都), 순이(順), 특이(特), 편이/편니(便)
ㄴ
각별이/각벼리(各別), 간간이(間間), 간단이(簡單), 간절이(懇切), 고고이(孤高), 고연이(固然), 공순이(恭順), 공연이/공여니(空然), 공정이(公正), 귀둥이(貴重), 규연이(巋然), 극심이(極甚), 극진이(極盡), 급급이(急急), 기특이/기트기(奇特),

괴구이(崎嶇), 긴급이(緊急), 긴긴이(緊緊), 근절이(懇切), 년년이(年年), 다행이(多幸),
 대득이(大得), 막막이(漠漠), 막연이(漠然), 망측이(罔測), 명명이(明明), 무양이(無恙),
 무탈이(無頃), 미령이(靡寧), 미편이(未便), 민망이(憫惘), 무궁이(無窮), 무슈이(無數),
 무심이(無心), 무사이/무사이(無事), 면면이(面面), 무정이(無情), 무한이(無限), 박절이(迫切),
 번극이(煩劇), 번번이(番番), 부다니(不斷), 불가이(不可), 불안이(不安), 불평이(不平),
 불행이(不幸), 성실이(性實), 수편이(隨便), 슈상이/슈상이(殊常), 순전이(純全), 슬난이(散亂),
 식식이(色色), 심상이/심상이(尋常), 안강이(安康), 안상이(安詳), 완년이(完然), 완완이(緩緩),
 완홀이(緩忽), 요란이(搖亂), 요원이(遙遠), 우연이/우연이(偶然), 웅장이(雄壯), 원통이(冤痛),
 위황이(危慌), 의수이/의수이(依數), 은근이(慇懃), 의구이(依舊), 일일이(日日), 이삭이(哀惜),
 자서이/자서니/자서이/자서이(仔細), 적실이(的實), 전연이(靦然), 절절이(節節), 죄송이(罪悚),
 준절이(峻截), 지그기(至極), 지그미(只今), 자연이(自然), 탁실이(着實), 태평이/태평이(太平),
 평복이(平復), 편안이(便安), 평안이/평안이(平安), 평온이(平溫), 평탄이(平坦), 풍성이(豐盛),
 팝근이(逼近), 현슈이(懸殊), 현저이(顯著), 황송이(惶悚), 황황이(遑遑), 흔쾌이(欣和)

(나)

ㄱ

곳이, 뵈기, 쪽이

ㄴ

가마니, 가만이/가마니, 거룩이, 고단이, 고즈기, 과시미, 관겨이, 굵거이, 그득이, 녁녁이,
 니도이, 다긴이, 단단이, 답답이, 대단이, 도련이, 두더기, 디단이, 만만이, 맛당이, 망측이,
 든든이/든든이/든든이, 멀즈기, 무던이/무던이, 뭇술이, 반드시, 번거이, 변변이, 브경이³⁰⁾,
 속속이, 슈고이, 서운이, 섭섭이, 식현이/식현이, 심심이, 슬드리/슬드리, 쪽쪽이, 쫓질이,
 아득이, 알드리, 약약이, 어득이, 엇더이, 쉼용이, 언현이/언현이/언현이, 종용이, 튼튼이,
 흐므시, 의전이/의전이

ㄷ

브즈런이/브즈런이, 아으라니/아으라이, 어렴프시, 어즈러이

30) ‘브경티’라는 단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브경’을 어근으로 추측했다.

르

구석구석이, 고죽고죽이

(가)는 한자어로 된 명사나 어근을 어기로 하고 거기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부사이다. 어기의 발음이 대부분 유성음으로 끝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¹⁾ (가ㄱ)은 어기가 1음절로 된 파생 부사이고, (가ㄴ)은 어기가 2음절로 된 파생부사이다. 이 중 2음절 어기로 이루어진 파생부사의 수가 월등히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들 1음절, 2음절 어기들은 대체적으로 서술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널리 쓰이고 있다. 1음절의 어기를 가지고 있는 한자어인 경우, ‘-히’가 결합되는 것이 보통인데, ‘과이(過), 쾌이(快), 괴이(怪), ㄱ이(可), 능이(能), 디되(大都)’처럼 ‘-이’형을 가지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를 통해 모음과 모음 사이의 ‘ㅎ’이 탈락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데, 이는 수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나)는 고유어로 된 명사나 어근을 어기로 하고 거기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부사이다. (가)에 비해 빈도수는 낮지만, 음절 유형이 한자어에 비해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의 어기의 발음은 모음 또는 ‘ㄱ, ㄴ, ㄹ, ㅂ, ㅅ, ㅇ’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 부사들은 대체로 현대국어에서 부사형 전성어미 ‘-게’와 공존한다.³²⁾³³⁾

한편, 위에 제시된 파생부사들 중 어간이 ‘Xㅎ-’형인 것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어근인 ‘X’에 바로 ‘-이’가 결합했다고 보는 견해와 어간인 ‘Xㅎ-’에 ‘-이’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ㅎ’가 탈락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³⁴⁾ 이동석(2015)에서는 전자를 ‘어근 어기설’, 후자를 ‘어간 어기설’이라 명명하였다. 그런데 ‘Xㅎ-’에 ‘-이’가 결합할 때, ‘ㅎ’가 탈락하는 현상을 설명하기에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될 수 있

31) 유성음 외에도 어기의 발음이 ‘ㄱ’으로 끝나는 경우와 ‘ㅂ’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수는 유성음에 비해 많지 않다.

32) 가령, ‘알드리, 아득이’는 현대국어의 ‘알뜰히, 아득히’에 대응되는 부사인데, 현재 ‘알뜰히, 아득히’는 ‘알뜰하게, 아득하게’와 공존하고 있다.

33) ‘-이’ 부사 파생과 ‘-게’ 부사형은 임흥빈(1976)과 심재기(1982)에 의해 다루어진 바가 있는데, 임흥빈(1976)에서는 ‘-이’와 ‘-게’의 의미 특성을 각각 [-대상화]와 [+대상화]로 파악하였고, 심재기(1982)에서는 [-대칭성]과 [+대칭성]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이’는 분리성이 없지만, ‘-게’는 분리성이 있음을 공통적인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34) 전자의 견해로는 이승녕(1961), 유필재(2007)가 있고, 후자의 견해로는 고영관(1987), 구분관(1996)이 있다.

다. 보통 모음 ‘ㆍ’와 ‘ㅡ’가 또 다른 모음과 만날 때, 탈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듯 ‘Xㅎ-’에 ‘-이’가 결합할 때, ‘ㆍ’가 탈락하여 ‘X히’가 되는 현상을 음운론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ㅎ’가 탈락하는 현상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1.2. 용언의 어간+‘-이’

용언의 어간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부사는 높은 생산성을 보여 준다. 용언의 어간+‘-이’가 결합한 파생부사 목록을 밝히고, 이들의 형태론적 특성을 각각의 예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³⁵⁾

<표 7> 용언의 어간+‘-이’가 결합하여 파생된 부사 목록

ㄱ
가치/갓치/갓티/갓치/갓티, 고디, 고이, 구디/구지, 길이/기리, 기피/깁히, 나이, 널이/널니, 니기, 달니/달리, 덕이, 도히, 마니/마이/만니/만니/만히/마히, 미이/미이, 믹이, 먼니/먼리/멀니/멀리/멀이, 붉이, 설이, 업시/업수이, 울히, 수이/쉬이/슈이/쉬이/수히/슈히, 저기, 조히
ㄴ
각기/갓가이, 고로이/괴로이/괴로이, 고마이, 과그리/과글리, 놀라이, 늦거이, 므서이, 둔거이/뚫거이, 뚝갓치/뚝갓티/뚝갓치/뚝갓티/뚝갓치/뚝갓티/뚝갓치/뚝갓티, 어러이, 즐거이, 어엿비/에엿째, 반가이, 새로이/시로이, 외로이, 폐로이(弊), 경업시(景), 덧업시, 말업시, 수업시(數), 실업시(實), 턱업시, 한업시(限)

35) 가령, 현대국어에서 ‘해돋이’는 남기심·고영근(1985:214)에 따르면 ‘해돋-’처럼 두 어근이 합성되면서 ‘-이’가 결합한 구성으로 보고 있다. 즉, 합성어가 파생의 과정을 거친 합성어의 파생이라는 것이다. ‘일일이’, ‘집집이’도 마찬가지로 합성과 파생이 겹친 합성어의 파생으로 보고 있다. 이익섭(1965:573)에 따르면 ‘해돋-’은 한 단어로 볼 수 없고, 파생접미사 ‘-이’가 결합하면서 단어가 형성되고 있으므로 파생어로 보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허웅(1983:133)에 의하면 ‘여달이, 불박이’와 같은 단어는 ‘여달다’, ‘불박다’처럼 합성어 형성이 가능하기에 이를 ‘합성법의 결합(합성어의 파생)’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합성어의 파생’을 보이는 부사인 경우 파생어로 보고 고찰할 것임을 밝힌다.

ㄷ

사오나이, 공교로이(工巧), 네스로이(例事), 대스로이, 슈고로이(受苦), 스스로이,(私私), 영화로이(榮華), 공번되이(空番), 급작되이/급작되이, 새암되이, 그지업시, ㄱ이업시, 밤낮업시/밤낮업시, 버릇업시, 부지업시/브질업시, 속절업시/속절업시, 어히업시, 정신업시(精神), 주착업시, 즈롬업시, 흘일업시

용언의 어간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파생된 부사는 총 103개의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 용언의 품사에 따라 어간이 형용사인 경우, 동사인 경우로 나눌 수 있고, 형태론적 분석에 따라 (X+-롭-)+‘-이’, (X+-없-)+‘-이’, (X+-되-)+‘-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특이할 점은 용언의 품사에 동사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형용사의 부사화가 동사에 비해 보다 생산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파생부사를 용례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하겠다.³⁶⁾

(1) ㄱ티<근히(ㄱ티)/곧--+이>

- ㄱ. 서방니미 와도 민셔방 ㄱ티 든녀갈가 내 반길 부니니 느저 오면 흘가 흐노라
<순천김씨-147,1560,신천강씨(모)→순천김씨(녀)>
- ㄴ. 가상이논 간밤도 어제과 ㄱ티 디내고 샌 후 괴운도 나은 일이 업슨가
<숙명-32,1652~1674년,인선왕후(모)→숙명공주(녀)>

36) 중세국어 시기부터 사용된 부사일 경우, 통시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어원/형태론적 분석>의 순서를 사용하여, 본 부사의 어원과 분석을 둘 다 밝힐 것이다. 여기서 형태론적 분석의 대상은 어원이 아니라, 한글편지에 쓰인 부사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형태 혹은 이표기가 존재하는 경우, 대표 어휘 하나만을 다룰 것이다. 다만, 통시론적이나 형태론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언급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예시문이 다수일 경우 시대에 따른 대표 예문만 제시할 것이다. 이는 후술할 모든 파생 부사에 적용될 것임을 미리 밝힌다.

(2) 고디<고디/곶--이>

- ㄱ. 나는 고디 아니 듣다니 혼 나히나 저머시면야 더도록 설오라
<순천김씨-073,1560년대년,신천강씨(모)→순천김씨(녀)>
- ㄴ. 놈이 고디 드를가 커니와 저의 그리 말 밍그라 내는 용심이 하 흥악하니
<진주하씨-008,1590~1617년,곽주(남편)→진주하씨(부인)>
- ㄷ. 상소 비답의 고디 못흐엿다 하니 고롭기논 7이업고 죽히 민망흐라 흐노라
<선찰 9-047,1700년,안동김씨(모)→송상기(녀)>

(3) 고이<고비/곶--이>

- ㄱ. 신을 황녹비로 고이 흐라 흐오니
<진주하씨-047,1590~1652년,미상(녀)→진주하씨(모)>
- ㄴ. 덕손이야 더 집의셔 아니 기리면 고이 흐디 아프려도 저만은 못훈가 시브다
<선찰 9-099,1697년,안동김씨(모)→송상기(자)>

(4) 구디<구디/곶--이>

- ㄱ. 바다 네게 구디 간스히여 두어라
<순천김씨-098,1560년,신천강씨(모)→순천김씨(녀)>
- ㄴ. 그리 구디 흐오실 것 잇습 새로 아히을 다리고 과세을 흐오시니
<추사-27,1842년,김정희(남편)→예안이씨(아내)>

(5) 길이<기리/길--이>

- ㄱ. 환세만 길이 흐기 밋니 던동
<순원(규)-07,1849년,순원왕후(재종누이)→김흥근(재종동생)>

(6) 기피<기피/깊--+이>

- ㄱ. 몸이 병욱 **기피** 든 휘면 므서시 관겨히 앓가온 거시 잇논고
<진주하씨-001,1590~1617년,곽주(남편)→진주하씨(부인)>

(7) 나이<나이/낫--+이>³⁷⁾

- ㄱ. 병환은 어제부터 음식을 먹기를 점점 **나이** 하고 줌도 자고
<선찰9-086,1700년,안동김씨(모)→송상기(자)>
- ㄴ. 요스이는 **나이** 디내니
<순원(규)-15,1848년,순원왕후(재종누이)→김흥근(재종동생)>

(8) 날이<너르--+이>

- ㄱ. 미양 목전의 일만 싱각 마오시고 **날이** 싱각하고
<추사-20,1840년,김정희(남편)→예안이씨(아내)>

(9) 니기<니기/닉--+이>

- ㄱ. 문아기 올 제 드려 보내새라 디데야 흐리라 **니기** 드려라 드려라
<순천김씨-069,1560년대,신천강씨(모)→순천김씨와 민서방 맥(녀)>

(10) 달리<달이/다르--+이>

- ㄱ. 약도 ** **달리** 고티논 일도 이시되
<숙명-64,1652~1674,인선왕후(모)→숙명공주(녀)>
- ㄴ. 내제 **달리** 갖닷 말을 말게 하여라
<의성김씨-070,1849,김진화(시아버지)→진성이씨(며느리)>

37) 용언의 어간이 동사인 유일한 어휘로, 따로 분류하여 다루지 않고 같이 다루도록 하겠다.

(11) 덕이<저기/덕--+이>

- ㄱ. 덕덕 원군 회편의 하셔 밧즈와 보옵고 환후 **덕이** 낫즈와
<추사가-26,1791,김노경(자)→해평윤씨(모)>

(12) 도히<도히/동--+이>

- ㄱ. 바비라 **도히** 머기소
<순천김씨-072,1537~1592,채무이(남편)→순천김씨(아내)>
- ㄴ. 새히예 **도히** 잇는다
<총암공-04,1613~1683,임일유(부)→미상(녀)>
- ㄷ. 눈물이 흐르니 모드며 썸나기 네스오 **도히** 썸나시니
<선세연독-25,1682~1742,미상(누나)→송요화(남동생)>
- ㄹ. 스연 남으나 조금 알파 네 형의게도 못히고 그친다 내내 **도히** 잇거라
<추사가-07,1792,해평윤씨(모)→김노경(자)>

(13) 만히<만히/맏--+이>

- ㄱ. 이리 **만히** 심심하니 장 밧습 바다 드마라
<순천김씨-014,1560년대,신천강씨(모)→순천김씨(녀)>
- ㄴ. 어제 네 형은 출 노리개엿 거슬 숙휘지이 **만히** 가지되 네 목은 업스니
<숙명-01,1652~1659,효종대왕(부)→숙명공주(녀)>
- ㄷ. 실본을 **만히** 훈가 흐노라 대쵸논 쏘 두 말 보낸다
<선세연독-32,1759,송요화(부)→미상(녀)>
- ㄹ. **만히** ㄱ지고 와 짐만 되옵고
<의성김씨-094,1848,진성이씨(며느리)→김진화(시아버지)>

(14) 멀리<머리/멀--+이>

- ㄱ. 브리고 **멀리** 나오니 아마도 과계 사름을 그르 밍그는 거시로쇠
<진주하씨-101,1590~1606,곽주(남편)→진주하씨(부인)>
- ㄴ. 지축뿐이읍 신은 **멀리** 니위호⁹완 디 날포 되오니
<명안공주-02,1659~1674,현종(손자)→장렬왕후(양주 조씨)(할머니)>
- ㄷ. **멀리** 떠나오오니 서운호여 호읍시는 일 민망히 너기읍⁹이다
<이동표가-25,1664~1668,이동표(자)→미상(모)>

(15) 막이<막이/뭇--+이>

- ㄱ. **막이** 녀기시는가 의심이 잇스오나 어이 짐작으로 아오리잇가
<창계-01,1682,임영(자)→임천조씨(모)>

(16) 마이<마이/뭇--+이>

- ㄱ. 텅별이논 업쳐져 **마이** 상호여 잇다 하니 엇디 업쳐딘고 놀라이 너기뇌
<진주하씨-142,1590~1613,곽주(남편)→진주하씨(부인)>
- ㄴ. 몸은 무스 하니 대경이 수일을 녹눅 등으로 **마이** 알파호더니야
<창계-14,1665~1673년,임영(남동생)→미상(막내누이)>
- ㄷ. 풍설은 이러호고 신집 **마이** 치워호니 병날싸 민망호외
<송준길가-054,1725~1757,송익흠(남편)→여흥민씨(아내)>

(17) 붉이<불기/붉--+이>

- ㄱ. 너희들이 **붉이** 보고 디내는 일노 폐를 막고져 호는 일이니
<순원(어필2)-04,1850년,순원왕후(재종누이)→김흥근(재종동생)>

(18) 수이<쉬비/쉽-+-이>

- ㄱ. 보기웃 **수이** 오면 아므려나 알성 미쳐 가고져 헝뇌마는 주근 동 산 동
<순천김씨-072,1537~1592,채무이(남편)→순천김씨(아내)>
- ㄴ. 아희 병은 **수이** 헝리던가
<송준길가-013,1640~1682,백천조씨(모)→미상(자)>
- ㄷ. **수이** 오마 헝여시니 기드리노라
<선찰 9-077,1700,안동김씨(모)→송상기(자)>
- ㄹ. **수이** 헝츠나 헝시면 식훤헝올 듯헝오나
<의성김씨-033,1847,여강이씨(아내)→김진화(남편)>
- ㅁ. 기성은 부리고 **수이** 늠려 오신다 헝니 엇지 그런지
<의성김씨-158,19세기중반,미상(사촌누이)→미상(사촌남동생)>

(19) 업시<업시/업-+-이>

- ㄱ. 보기는 쉬 적 **업시** 더리 나둔니고 글사니는 나도 하 요광되니
<순천김씨-052,1560~1592,채무이(남편)→순천김씨(아내)>
- ㄴ. 더 개절 가읍되오니 더욱 무음이 아므라타 **업시** 굿브오이다
<숙휘-30,1662,명성왕후(올케)→숙휘공주(시누이)>
- ㄷ. 대단 연고 **업시** 디내시고 깃브기 ㄱ이 업스디
<송준길가-057,1739,송익흠(남편)→여흥민씨(아내)>
- ㄹ. 즈니가 공명이 낮븐 것 **업시** 다 헝여 보아시니
<순원(규)-07,연대 1849,순원왕후(재종누이)→김흥근(재종동생)>

(20) 올히<올히/올-+-이>

- ㄱ. 필종의 비즈헝고 **올히** 가셔도 올히 왔다 비즈헝소
<순천김씨-072,1537~1592,채무이(남편)→순천김씨(아내)>

(21) 저기<저기/적--+이>

- ㄱ. 누워 잇습다가 **저기** 흐리웁거늘 브디흔 일로 어제 소레 왓스와서
<진주하씨-106,1602,곽주(사위)→벽진이씨(장모)>
- ㄴ. 즉금 **저기** 나아 디내웁느이다 총총 잠 덕스오며
<송준길가-042,1726,밀양박씨(아내)→송요화(남편)>
- ㄷ. 오늘 일끼는 **저기** 청낭흐다
<명성황(민)-10,1875,명성황후(고모)→민영소(조카)>

(22) 조히<조히/종--+이>

- ㄱ. 나는 **조히** 이시니 녀 마라 디교은 온다기 아니 날 녀녀가 업더니
<추사가-36,1831,김노경(시아버지)→미상(손녀)>
- ㄴ. 아히들도 **조히** 잇느냐 짝이 형제는 엇더히여 가느니 녀이로다
<추사가-32,1831,김노경(시아버지)→(며느리)>

(23) 설이<설이/셋--+이>

- ㄱ. 너히 보고 **설이** 너길 붓니언마는 하 모습 둘 디 업서 스노라 일빅 귀니
<순천김씨-041,1560년대,신천강씨(모)→순천김씨(녀)>
- ㄴ. 하늘님도 그디도록 녀의 인칭도 **설이도** 민드르션다
<숙휘-30,1662,명성왕후(올케)→숙휘공주(시누이)>

(24) 갓가이<갓가비/갓갑--+이>

- ㄱ. **갓가이** 집을 짓고더 하니 자내 짐작히여 기별흐소
<진주하씨-059,1590~1617년,곽주(남편)→진주하씨(부인)>
- ㄴ. 궁 **갓가이** 두든 못홀 거시니 브디 가 내여 보내고
<추사가-06,1792년,해평윤씨(모)→김노경(녀)>

ㄷ. 모름 더 당그이니 수이 갖가이 가면 참지 못 가 볼 듯
<의성김씨-067,1838년,김진화(시아버지)→진성이씨(며느리)>

(25) 고로이<고로이/고롭--이>

ㄱ. 날 고로이 사다가 초보게 하고 아무란 거시나 의지호려더니
<순천김씨-154,1560년대년,신천강씨(모)→순천김씨(녀)>

ㄴ. 아직 이제도 머릿노나라 다룬 디는 각별 고로이 알핀 디 업스되
<숙휘-22,1642~1674년,인선왕후(모)→숙휘공주(녀)>

(26) 고마이<고맙--이>

ㄱ. 내가 심복 고마이 알거든 저는 히 다 진 디 와서
<추사가-02,1775년,해평 윤씨(숙모)→김노직(조카)>

(27) 과그리<과글이/과글--이>

ㄱ. 나는 벼슬도 과그리 브리디 몰하고 인칭은 다 사랏고
<순천김씨-083,1560년대년,김훈(부)→순천김씨(녀)>

ㄴ. 제 명디 과그리 하여 줄 세 업스니
<송준길가-017,1681년,백천조씨(미상)→미상(미상)>

(28) 놀라이<놀라이/놀랍--이>

ㄱ. 7장 놀라이 너기뇌 그려도 엇디 구러 미쳐 받고 흐뇌
<순천김씨-051,1560년~1592년,채무이(남편)→순천김씨(아내)>

ㄴ. 텅널이눈 업쳐져 미이 상하여 잇다 하니 엇디 업쳐딘고 놀라이 너기뇌
<진주하씨-142,1590년~1613년,곽주(남편)→진주하씨(부인)>

(29) 둥거이<둥거비/둥겁--이>

- ㄱ. 횡단과 보선도 하나 **둥거이** 기워가느니 길히 시늬시게
<순천김씨-017,1560년대,신천강씨(모)→순천김씨(녀)>

(30) 어러이<어러비/어럽--이>

- ㄱ. 이제 지미 지그기 **어러이** 구려 보내노라
<순천김씨-035,1560년대,신천강씨(모)→순천김씨(녀)>
ㄴ. 과동을 그리 **어러이** 아니 녀기고
<선세연독-31,1756,송요화(시아버지)→여흥민씨(며느리)>

(31) 어옛비<어옛비/어옛브--이>

- ㄱ. 날 **어옛비** 녀겨 내 말 듣소
<순천김씨-160,1560,채무이(남편)→순천김씨(아내)>
ㄴ. 내 이리셔 가품새 근시미도 도히 브릴 동 알가 **어옛비** 녀기소
<순천김씨-020,1560년 이후,채무이(남편)→순천김씨(아내)>

(32) 즐거이<즐거비/즐겁--이>

- ㄱ. 전년 이때에 모다셔 **즐거이** 디내던 이리 그 더디 네 일이 되어
<숙명-47,1652~1674,인선왕후 장씨(모)→숙명공주(녀)>

(33) 반가이<반가비/반갑--이>

- ㄱ. 니외 부즈 **반가이** 만난 소식 드르섯습
<송병필가-49,1908~1928,미상(녀)→전주이씨(모)>
ㄴ. 오늘 밤 등삭 다레오시니 니일은 가와 **반가이** 뵈옵고

<김상궁(代,조)-01,19세기중반,김상궁(미상)→유씨(미상)>

(34) 사오나이<사오나비/사오납-+-이>

ㄱ. 내 팔지 이리 사오나이 되여 잇거니 속저리랴

<순천김씨-094,1560년대,신천강씨(모)→순천김씨(녀)>

ㄴ. 뭇다 흐오실스록 이리 사오나이 구오니 쏘 더 믹이게 흐여습다 근심이읍

<숙휘-33,1681~1689/1694~1696,인현왕후(조카며느리)→숙휘공주(시고모)>

(1)~(34)은 단순 형용사 어간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부사로 파생된 어휘와 그 용례이다. 이 어휘들은 어간의 음절 끝소리가 자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³⁸⁾ 따라서 자음 어간 뒤에 접미사 ‘-이’가 연결될 때 다양한 표기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가령, (1) ‘ㄱ티’의 경우, ‘가치/갓치/꺄치/꺄티’가 이형태 혹은 이표기인데, 15세기에 형용사 ‘곧흐-’에 ‘-이’가 결합하여 ‘곧히’로 쓰이다, ‘곧히’의 ‘ㄷ’과 ‘ㅎ’이 축약되어 ‘ㄱ티’로, 18세기에 1음절의 ‘ㄷ’가 ‘ㅌ’로 변하며 ‘가티’로 변하였다. 또한, 어간 자음 말음이 ‘ㅂ’³⁹⁾과 ‘ㅅ’인 어휘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들 어휘들은 후행하는 접미사 ‘-이’와 결합하면서 ‘ㅂ’과 ‘ㅅ’이 탈락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어간 말음 ‘ㅂ’이 탈락하는 현상은 접미사 ‘-이’ 앞에서는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3) ‘고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0) ‘달리’는 ‘다르다’의 의미인 형용사 어간 ‘다르-’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다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달ㅇ-’로 나타나다가 이후 ‘달ㄹ-’로 나타났는데, 한글편지에서는 분철 형태인 ‘달이’는 나타나지 않고, ‘달리’와 ‘달니’의 형태만 존재한다. 18세기에 어중 ‘ㄹ’을 ‘ㄹ니’으로 표기하던 당시의 표기 경향에 따라 ‘달니’의 형태가 나타났다고 추측된다.

(14) ‘멀리’는 ‘먼니/먼리/멀니/멀이’의 이형태 혹은 이표기를 갖고 있는데, 형용사 ‘멀다’의 어간 ‘멀-’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한 후 연철하여 ‘머리’로 쓰이다, 16세기 이후 중철 표기에 따라 ‘ㄹ’이 추가된 ‘멀리’로 나타나게 되었다. ‘멀니’는 ‘멀

38) ‘널이’와 ‘어엿비’만 제외됨을 밝힌다.

39) 모음 어미 앞에서는 ‘ㅃ’으로 실현된다.

리'의 어중 'ㄹㄹ'을 'ㄹㄴ'으로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멀이'는 머리를 분철 표기한 것이다.

(23) '설이'는 '서럽다'의 뜻을 지닌 형용사 '췌다'의 어간 '췌-'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부사이다. 16,17세기 한글편지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어간 '췌-'의 'ㅂ'이 탈락하면서 '설-'의 형태가 되었고, 여기에 '-이'가 결합하면서 '설이'로 쓰이게 되었다.

(27) '과그리'는 '갑작스럽다, 급하다'의 뜻을 지닌 형용사 '과ᄃᆞᆫ다'의 어간 '과ᄃᆞᆫ-'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부사이다. 결합 과정에서 'ᄃ'가 탈락되고, 16세기에 둘째 음절 'ᄃ'의 소실을 거치면서 'ᄃ'가 'ㄱ'로 변하였다. 이형태로 중철 표기인 '과글리'는 17세기 중반에 관찰되지만 분철 표기인 '과글이'는 한글편지 자료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35) 늦거이<늦기--업->

ㄱ. 제 즈장을 모하 노코 늦거이 스러지고 헛부오니

<의성김씨-027,1847년,여강 이씨(아내)→김진화(남편)>

(36) 므셔이<므श्यक비/므스--업->

ㄱ. 날이 하 므셔이 더오니 어이들 디내논고

<선찰9-026,1698,안동김씨(모)→송상기(자)>

ㄴ. 나는 훈가지로 이시디 김집 하 므셔이 패헛엇기

<송준길가-071,1743~1770,여흥민씨(시어머니)→함양여씨(며느리)>

(35)~(36)은 합성형용사 어간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파생부사를 형성한 어휘와 그 용례이다. (35), (36)는 '-업-/-업-'에 의해 형용사를 파생한 후, 다시 '-이'가 결합하여 부사를 파생했는데, '-업-/-업-'은 중세국어에서는 주로 동사의 어간에만 결합하였으나⁴⁰⁾, 근대국어에서는 동사의 어간, 형용사의 어간, 어근과도 결합하여 형용

40) ㄱ. 미답-(밌--업-): 信 미더울 신 미들 신

사를 파생하였다.⁴¹⁾ ‘-압-/-업-’에 선행하는 어근으로는 한자어는 보이지 않으며, 고유어 어기와만 결합하여 주관적인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어휘를 파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파생형용사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다시 부사를 파생하였다. ‘늦거이’는 16세기에 ‘늦거이’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형용사 어간 ‘늦기-’와 접미사 ‘-업-’이 결합하여 ‘늦겁-’이 되고, 다시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므셔이’는 15세기에 동사 ‘므식다’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얼-’이 결합하여 ‘므스얼-’의 형태로 변화하였는데, 석주연(2001:53)에 따르면 중세국어 시기의 ‘-업-’에 의한 형용사 파생은 어간 말음이 ‘i’인 동사 어간을 중심으로 일어났고, ‘-업-’이 통합되는 과정 중에 ‘i’가 탈락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15세기 중엽 ‘빙’의 변화와 16세기 ‘△’의 변화⁴²⁾로 말미암아 ‘므스업-’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며, ‘-’가 탈락하면서 ‘므셔-’의 형태가 되었고, 여기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37) 공교로이<공교(工巧)+-롭->

가. 일기논 공교로이 년혀여 벗도 되 아니혀업고 바람기 서늘혀오니

<송준길가-066,1756년,여흥민씨(며느리)→송요화(시아버지)>

<1576,신합-하:3ㄴ>

ㄴ. 부끄럽-(붓그리--+업-): 얼며 주류물 7장 보몬 뉘히 붓그럽디 아니혀니

<1481,두시-초,3:50ㄱ>

ㄷ. 어즈럽-(어즈리--+업-): 아되나 사르미 어즈러븐 므스미라도

<1447,석상-13:53ㄱ>

41) 석주연(2001:54)에서는 근대국어 시기에 ‘-압-/-업-’은 활발한 생산성으로 많은 신조어를 만들어 냈고, 이와 함께 전대에 존재했던 어기의 음운론적 제약이나 통사론적 제약이 완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근대국어 시기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업-’에 의한 파생형용사의 형성으로 인해 현대국어에서의 형용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고 명시하고 있다. 송철의(1992)에서는 현대국어에서 동사 어간으로부터 ‘-압-/-업-’에 의해 형성된 대부분의 파생어들이 어휘화했을 뿐 아니라, 동사 어간으로부터 이 접미사에 의해 새로이 파생어가 형성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압-/-업-’은 현대국어에서 생산성이 없다고 하였다.

42) 16세기에 ‘△’의 변화를 보면, 대체로 초성에서 ‘△>ㅇ’으로 변화하며 음가가 소실되었으나, 간혹 ‘△>ㅅ’으로 변화하기도 하였다.

(38) 네스로이<네사(例事)+-롭->

ㄱ. 네 오라바님은 오늘은 어제도곤 기운이 펍 낮고 밤의 짐도 네스로이 잤다

<숙명-44,1652년~1674년 인선왕후(모)→숙명공주(녀)>

ㄴ. 내 팔즈니 흘일업습니 흐느니 언나 더 드려 네스로이 밍그올꼬

<송준길가-057,1739년,송익흠(남편)→여흥민씨(아내)>

(39) 대스로이<대스+-롭->

ㄱ. 즈탄 무궁이올 초 대스로이 문져 못즈오신 일 감축

<서희순(代,조)-02,1890년대,서희순(궁인)(미상)→미상(미상)>

(40) 슈고로이<슈고로비/슈고(受苦)+-롭->

ㄱ. 하셔 bat즈와 보옵고 여러 스연 슈고로이 덕어 겨옵시니 감격호오며

<선세언독-15,1646~1683,송병하(사위)→권씨(장모)>

(41) 스스로이<스스(私事)+-롭->

ㄱ. 스스로이 돈 두 냥을 겨유 겨유 꾸니여 쓸 흐 냥

<송준길가-040,1723~1737,밀양박씨(미상)→미상(미상)>

(42) 영화로이<영화(榮華)+-롭->

ㄱ. 영화로이 흥츠흐옵시기 혈축흐옵느이다

<의성김씨-125,1833,미상(제수)→김진화(시아주버님)>

ㄴ. 잘 ㄱ르쳐 늬의 늬의 싸지디 아니코 가국이 태평 영화로이 디내기 브라운

<순원(어필1)-02,1851,순원왕후(재종누이)→김흥근(재종동생)>

(43) 새로이<새로이/43>새+-롭->

- ㄱ. **새로이** 참혹흐믈 다 덕으랴 보션 와시니 두거니와 후의논 마라 안심티 아니타
<총암공-02,1611~1683,임일유(부)→미상(녀)>
- ㄴ. **새로이** 슬프온 둥 한마님 기휘 지금 차복디 못흐오오시니
<선세언적-13,1704,안동권씨(며느리)→박성한(시아버지)>
- ㄷ. 일가의 **새로이** 환흠흐미 측냥티 못흐니 감격흐미 엇더타 흘 길 업니
<순원(규)-07,1849,순원왕후(재종누이)→김흥근(재종동생)>

(44) 외로이<외+-롭->

- ㄱ. 내 모름물 자바 하 **외로이** 와시니 무흔 모름물 잡노라마논
<순천김씨-166,1560년대,신천강씨(모)→순천김씨(녀)>
- ㄴ. 동침이 **외로이** 스촌들을 의지흐옵다가
<의성김씨-131,1833,미상(제수)→김진화(아주버니)>

(45) 폐로이<폐(弊)+-롭->

- ㄱ. 실은 연연의 **폐로이** 만히 바다 보내시니 알외으올 말습 업스오디
<진주하씨-154,1619,주씨(사돈)→진주하씨(사돈)>
- ㄴ. 사름을 보내려 한다 혼들 물게 하여 그리 **폐로이** 흘 줄을 어이 알리
<선찰 9-022,1697,안동김씨(모)→송상기(자)>

(37)~(45)는 ‘-롭-’에 의해 형용사를 파생한 후, 다시 ‘-이’가 결합하여 부사를 파생한 어휘이다. ‘-롭-’은 명사나 어근을 어기로 취하는데, 대체로 한자어 명사와 어근들이다. 또한 -롭-’은 선행 음운이 모음으로 끝나는 여기와만 결합할 수 있다는 음운론적 제약을 보이고 있다. ‘-롭-’은 후행 음운으로 유성음이 오면 ‘-롤-’으로 실현이 되

43) 형용사 ‘새롭-’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 15세기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요소가 후행했기 때문에 ‘새로비’로 쓰여야 하는데, 문헌에서는 ‘새로비’의 형태로 쓰인 것은 보이지 않았다.

는데, 15세기경, ‘뵤’이 ‘ㅣ’ 모음 앞에서는 [hi] 혹은 [i]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편, 김창섭(1996)에서는 ‘-롭-’의 의미를 ‘여기의 속성이 풍부히 있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46) 쑤ᄃᆞ티<쑤ᄃᆞ티/쑤+ᄃᆞ->

ㄱ. 하 쑤ᄃᆞ티 돈녀가니 지금 섭섭 ᄃᆞᆫ 뵤을 텅티 못ᄃᆞ여 ᄃᆞ며

<선찰9-031,1698,안동김씨(모)→송상기(자)>

(46)‘쑤ᄃᆞ티’는 명사 ‘쑤’에 형용사 ‘ᄃᆞ-’의 파생 부사 ‘ᄃᆞ티’가 결합하여 부사로 쓰이고 있다.

(47) 그지업시<그지업시/그지+-업->

ㄱ. 그지업시 깃게라 우리논 두 고대 당시 무스타 나논 숨만 브터 인노라

<순천김씨-071,1560년대년,신천강씨(모)→순천김씨(녀)>

ㄴ. 그지업시 깃거ᄃᆞ며 보온 듯 반기니 송심원덕 병환은 ᄃᆞ가지로 등ᄃᆞ시다 ᄃᆞ니

<선세연독-03,1633년,진성이씨(장모)->송준길(사위)>

(48) ᄃᆞ이업시<ᄃᆞ이업시/ᄃᆞ+-업->

ㄱ. 하 ᄃᆞ이업시 그리오니 나도 아ᄃᆞ려나 쉬 가고져 가노라 쑤 뵤 열ᄃᆞ 말

<순천김씨-065,1560년대년,신천강씨(모)→순천김씨(녀)>

ㄴ. 가상의 형데논 다 ᄃᆞᄃᆞ다 ᄃᆞ니 ᄃᆞ이업시 깃거ᄃᆞ노라

<숙명-24,1652~1674년,인선왕후(모)→숙명공주(녀)>

ㄷ. ᄃᆞ이업시 섭섭이 녀겨 가니 애ᄃᆞ다 나논 개창은 ᄃᆞ가지로다

<선찰 9-060,1700년,안동김씨(모)→송상기(녀)>

ㄹ. ᄃᆞ이업시 즐겨ᄃᆞ노라

<월성이씨-03,1716년,월성이씨(모)->권순경(자)>

(49) 밤낫업시<밤+낫+-업->

- ㄱ. 저근 거션 스월 시무나흔날부터 역지시통하여 수상을 **밤낫업시** 지는다
<송병필가-24,1870,송지수(시아버지)→전주이씨(며느리)>

(50) 버릇업시<버릇+-업->

- ㄱ. 유비장이 권당이니 흘디하여 **버릇업시** 슈욕 말고 후디하여 득리고 잘 잇고
<자손보전-05,1705~1731,완산이씨(모)→맹숙주(자)>

(51) 브질업이<부질+-업->

- ㄱ. **브질업시** 기드리디 마읍쇼셔
<이동표가-29,1677,이동표(자)→미상(모)>

(52) 속절업시<속절업시/속절+-업->

- ㄱ. **속절업시** 승으진 통스만 드라 곱히곱히 갈무리하옵고
<의성김씨-087,1847,미상(장모)→김진화(사위)>

(53) 어히업시<어히+-업->

- ㄱ. 묘물이 다 그리 만들고 돕는 듯하야 **어히업시** 말이 나지 아니하옵
<추사-29,1842,김정희(남편)→예안이씨(아내)>

(54) 정신업시<정신(精神)+-업->

- ㄱ. 그씨 아히를 일코 **정신업시** 이를 쓰더니
<송병필가-58,1897,미상(언니)→전주이씨(동생)>

ㄴ. 나는 그동안 담체로 **정신업시** 디내다가 어제 오늘이야 조금 나흐나

<명성황(민)-128,1880~1895,명성황후(고모)→민영소(조카)>

ㄷ. 일읍이 소요 **정신업시** 놀나온 말슴 엇지 다 알외오며

<송병필가-64,1928년 이전,미상(동생)→미상(언니)>

(55) 주착업시<주착(主着)+-업->

ㄱ. **주착업시** 안죽 의복 음식의 아는 이 업스오니 이탁 이탁호오이다

<의성김씨-028,1847,여강이씨(아내)→김진화(남편)>

(56) 즈롬업시<즈롬+-업->

ㄱ. 창년은 **즈롬업시** 크다 호오니 가련 가련 츄마 싱각지 못호올소이다

<의성김씨-004,1832,여강이씨(아내)→김진화(남편)>

ㄴ. 괴절 더위라도 **즈롬업시** 무양호오니 괴특 괴특 보비오나

<의성김씨-010,1834,여강이씨(아내)→김진화(남편)>

(57) 한업시<한(限)+-업->

ㄱ. 황공 탐탐 반갑습기 뉘와 하교을 듯줍는 듯 **한업시** 반기웁고 쥌세 뵈웁스오니

<의성김씨-092,1847,진성이씨(며느리)→김진화(시아버지)>

(58) 흘일업시<흐--+ㄹ--+일+-업->

ㄱ. 상감 외손봉스 흐리 업셔 **흘일업시** 염종슈로 흐랴 흐나 뉘옴은 빠디 아니호외다

<순원(어필2)-04,1850,순원왕후(재종누이)→김흥근(재종동생)>

(59) 경업시<경(景)+-업->

- ㄱ. 불이 나 이곳이 손을 데여 쓰지 못하니 이러들 하여 장시 **경업시** 지내고
<권씨부인-01,1830년,안동권씨(장모)→여명섭(사위)>

(60) 덧업시<덧--+업->

- ㄱ. 어제 어이 간고 녀며 **덧업시** 든녀가니 섭섭하여 닳디 못호노라
<선세연독-12,1625~1683,백천조씨(모)→미상(자/녀)>
- ㄴ. 손서는 거번의 **덧업시** 든녀오오니 섭섭호오이다 하송호오신 것슨
<추사가-21,1767~1788년,김노경(손서(손녀사위))→광산 김씨(장조모)>
- ㄷ. 싱각스록 감회호옵고 반갑스온 등 **덧업시** 훌쳐 드러오오니
<궁인(代,민)-31,1883~1895,미상(미상)→민영소(미상)>
- ㄹ. 더욱 **덧업시** 뵈옵고 오온 일 놀이
<서기이(代,조)-03,19세기 후반,서기이씨(미상)→미상(미상)>

(61) 말업시<말+-업->

- ㄱ. 이리 알타가 하 설오면 내 소노로 주그디 **말업시** 쇼쥬를 밍게 히여 먹고
<순천김씨-041,1560년대,신천강씨(모)→순천김씨(녀)>

(62) 수업시<수(數)+-업->

- ㄱ. 무슨 **수업시** 설워 조식들 식툰던 이리 다 그립고 아저기 효양이 오던
<순천김씨-166,1560년대,신천강씨(모)→순천김씨(녀)>
- ㄴ. 빈 듯호고 하 적막 호젓하니 혼자 안자셔 흥긋 섭섭한 마음의 **수업시** 울고
<숙휘-25,1653~1662,인선왕후(모)→숙휘공주(녀)>
- ㄷ. 나홀만의 보람이 나디 **수업시** 나니 내 마음에 아무라타 못호고
<월성이씨-01,1716,월성이씨(모)→권순경(자)>

ㄹ. 또 하인 오며 글시 바다 탐탐 반갑기 못지 더흔 듯 수업시 반기고 슬피니

<의성김씨-074,1847,여강이씨(모)→김흥락(자)>

(63) 실업시<실(實)+-업->

ㄱ. 그도 못히고 설워 못 보내니 실업시 잇소 하니 이런 민망히예라

<순천김씨-009,1560년대,신천강씨(모)→순천김씨(녀)>

(64) 턱업시<턱+-업->

ㄱ. 집이 돈이 턱업시 모즈르 근의게 추이하여

<의성김씨-071,1847년,여강 이씨(모)→김흥락(자)>

(47)~(64)은 ‘없-’에 의해 형용사를 합성한 후, 다시 ‘-이’가 결합하여 파생부사를 형성한 어휘와 그 용례이다. ‘없-’은 형용사의 어간으로, 선행하는 어기는 명사이다. 즉, ‘(명사+형용사의 어간)+-이’의 형태론적 특성을 갖는다. 명사에 형용사 어간이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합성형용사는 통사적 합성어로서 구로 쓰인다.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 서 조사가 생략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렇게 합성된 합성형용사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다시 부사를 파생한 것이다.

(65) 공번되이<공번(空番)+-되->

ㄱ. 공번되이 아니 녀기면

<순천김씨-105,1560년대년,채무이(남편)→순천김씨(아내)>

(66) 급작되이<급작+-되->

ㄱ. 급작되이 썩 흐노라 드러쳐시니 이런 비변이 업서 웃노라

<숙명-37,1652~1674년,인선왕후(모)→숙명공주(녀)>

(67) 새암되이<새암+-되->

ㄱ. **새암되이** 심난 심난하고 내내 측량치 못하올소이다

<송준길가-089,1756,여흥민씨(며느리)→송요화(시아버지)>

(65)~(67)은 ‘-되-’에 의해 형용사를 파생한 후, 다시 ‘-이’가 결합하여 파생부사를 형성한 어휘와 그 용례이다. ‘-되-’는 형용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인데, ‘-되-’에 선행하는 어기들은 명사나 어근으로 한자어와 고유어를 둘 다 어기로 취하여 파생형용사를 형성하였다. 이렇게 파생된 파생형용사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다시 부사를 파생한 것이다. ‘-되-’는 중세국어 시기에 ‘-되외-’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때 ‘-되외-’는 모음 어미 앞에서만 사용된다는 제약이 있었다.⁴⁴⁾

1.3. 부사+‘-이’

부사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다시 부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절에서는 부사+‘-이’가 결합한 파생부사 목록을 밝히고, 이들의 형태론적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표 8> ‘부사+‘-이’가 결합하여 파생된 부사 목록

ㄱ
떡이
ㄴ
년지시, 벽벽이, 분명이(分明), 분연이(奮然), 얼푸시/얼프시, 왕왕이(往往), 응당이(應當), 의례이(依例), 일즉이/일즉이, 졸연이(猝然), 흘연이(忽然), 황연이(晃然), 술수리
ㄷ
이러특시

44) 석주연(2001:56-57)에서 언급하고 있다.

위 부사 어휘들은 부사에 다시 접미사 ‘-이’를 취해 부사를 파생하였다. ㄱ은 1음절 부사에 ‘-이’가 결합하여 부사가 되었고, ㄴ은 2음절, ㄷ은 3음절 부사에 ‘-이’가 결합하였다. ‘부사+-이’의 경우 선행 부사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때 ‘-이’는 선행 부사의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은 부사에 ‘-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부사의 용례이다.

(68) 년지시<년즈시/년줏+-이>

- ㄱ. 오늘노 전 빅 낭만 **년지시** 비즈 혀여 드러보니 쥬웁소서
<궁인(代.민)-14,1883년~1895년,미상(미상)→민영소(미상)>
- ㄴ. 향주의 고간의 주와쓰니가 이번은 달니 **년지시** 쓰기스웁노이다
<궁인(代.민)-15,1883년~1895년,미상(미상)→민영소(미상)>

(69) 껍이<떡+-이>

- ㄱ. 어제부터 쇼곰 나아 오늘은 **떡이** 낫스오니 깃브기 ㄱ이업습
<송준길가-047,1723~1737,밀양박씨(아내)→송요화(남편)>

(70) 벽벽이<벽벽+-이>

- ㄱ. 내 몸의 **벽벽이** 혀염죽헌 직분을 싱각지 아니하고
<의성김씨-066,1765,김주국(시아버지)→진성이씨(며느리)>
- ㄴ. 이는 **벽벽이** 구괴로 휘방하는 말인 거시 일이 순 도위 집의 가실 제
<순원(어필2)-01,1844,순원왕후(재종누이)→김흥근(재종동생)>

(71) 분명이<분명(分明)+-이>

- ㄱ. 아귀 집 이룬 **분명이** 도죽홀 놈의 이런가 식브니
<진주하씨-104,1590~1617,곽주(남편)→진주하씨(부인)>

(72) 분연이<분연(奮然)+-이>

- ㄱ. 장숙 디내온 날 꿈의 **분연이** 흐르시 뵈오니
<창계-10,1683~1686,임영(남동생)→미상(막내 누이)>

(73) 얼프시<얼푹+-이>

- ㄱ. 무궁히 큰집의셔도 삼상을 **얼프시** 못차 아조 깊고 먼 일이 되시니
<순원(규)-30,1842년,순원왕후(재종누이)→김흥근(재종동생)>

(74) 왕왕이<왕왕(往往)+-이>

- ㄱ. 녁신의 드러 애스고 나리 심히 더우매 **왕왕이** 천증이 이논 듯흐디
<월성이씨-02,1716,월성이씨(모)→권순경(자)>
- ㄴ. 이어 덕스오심 보오니 설증 **왕왕이** 훌치읍시고
<의성김씨-022,1847,여강 이씨(아내)→김진화(남편)>

(75) 응당이<응당(應當)+-이>

- ㄱ. 죽히 든든호시랴 호오며 **응당**의 디뎌 못호여 심녀늘 쓰오실 거시니
<선세연독-24,1668~1737,송요경(자)→안정나씨(모)>
- ㄴ. 의송 든든이 더겨 보내여시니 **응당**의 초즈실 듯호옵더니마논 엇디 호신디
<이동표가-29,1677,이동표(자)→미상(모)>

(76) 의례이<의례(儀禮)+-이>

- ㄱ. 교영은 **의례**이 호실 터히니 그디로 회답호지 다른 스연 무엇 잇느냐
<명성황(민)-065,1866~1895,명성황후(고모)→민영소(조카)>
- ㄴ. 예소논 **의례**이 흘 일이나 성의 불가이 아시니 남이 엇지 호나 초초 보고

<명성황(민)-119,1875~1895,명성황후(고모)→민영소(조카)>

(77) 일즉이<일즉+-이>

- ㄱ. 아적 은산이 가되 **일즉이** 가니 가는 줄 몰라 유무도 못하고 섭섭하여 호노라
<선찰 9-087,1700,안동김씨(모)→송상기(자)>

(78) 졸연이<졸연(猝然)+-이>

- ㄱ. 효말이 **졸연이** 병을 어더 하 둥하니 아므 병인 줄은 모르고
<선찰9-091,1700,안동김씨(모)→송상기(자)>
- ㄴ. **졸연이** 가서 들포 시집사리 하는 일 닛디 못하고 빅시 절박 절박한가
<송준길가-036,1732,밀양박씨(모)→송익흠(자)>
- ㄷ. 갑시 **졸연이** 어려올가 시브외 잠 덕습니
<선세연독-29,1699~1714,송요화(남편)→안동김씨(아내)>

(79) 흘연이<흘연(忽然)+-이>

- ㄱ. **흘연이** 내가 실성치 아닌 전 자니게 밍냥흔 말을 주식드려 하였겟나
<추사가-02,1775,해평 윤씨(숙모)→김노직(조카)>
- ㄴ. 선현 구긔니 말나 하더니 어제 **흘연이** 이런 고이흔 말을 하니
<순원(어필2)-01,1844,순원왕후(재종누이)→김흥근(재종동생)>

(80) 황연이<황연(晃然)+-이>

- ㄱ. **황연이** 빈집이니 침각스록 감회하옵고 반갑스온 등 덧업시 흘쳐 드려오오니
<궁인(代,민)-31,1883~95,미상(미상)→민영소(미상)>

(81) 술수리<술술+-이>

ㄱ. 미양 속머리 알푼고 가슴 답답고 알푼고 음시글 술수리 머거도 느리디 마오
<순천김씨-028,1560년대,신천강씨(모)→순천김씨(녀)>

(82) 이러투시<이러투+-이>

ㄱ. 므슨 일궤랄 일이 업시 이러투시 흰헝헝여 남이 브라도 보디 못홀 듯하니
<순원(규)-33,1855,순원왕후(재종누이)→김흥근(재종동생)>

(68)~(82)은 부사 ‘년좇, 꺾, 벅벅, 분명, 분연, 얼푼(얼푼), 왕왕, 응당, 의례, 일즉(일즉), 졸연, 흘연, 황연, 술술, 이러투’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다시 부사로 파생된 어휘들이다. 보통 이러한 구성 방식은, 선행 부사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인데, 선행 부사는 한자어가 53.3%, 고유어가 46.6%로 사용되고 있다.

부사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부사로 파생된 경우, 이때 ‘-이’가 파생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기존 품사를 파생시키지 않았고, ‘-이’가 결합하기 전과 ‘-이’가 결합한 후 의미상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현대국어에서 ‘일찍:일찍이’는 동일한 의미의 부사로 쓰이지만,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 가령, ‘제주도에 폭설이 내렸다는 말은 {일찍이/*일찍} 들어본 적이 없다.’에서 ‘일찍이’는 가능하지만, ‘일찍’은 성립하지 않는다. ‘일찍’과 ‘일찍이’ 모두 ‘일정한 시간보다 이르게.’라는 공통된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의미상의 차이가 없지만, ‘일찍이’에는 추가적으로 ‘예전에. 또는 전에 한 번.’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⁴⁵⁾ 그러나 한글편지에 쓰인 위 부사들은 그러한 의미상의 차이점을 찾을 수 없었고, 따라서 이때 ‘-이’를 부사를 파생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것인지는 여전한 문제로 남는다. 그렇다면 통시론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가 결합하기 전 부사들의 어원을 살펴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가령, 현대국어 ‘일찍’에 해당하는 ‘일즉’은 ‘이르--+직’, ‘더욱’은 ‘더으--+욱’과 같이 해당 어휘의 어원을 형태론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부사를 어원적으로 분석하기엔 불가능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서 벗어난

45) 비슷한 예로 ‘더욱:더욱이’를 들 수 있다.

논지이기에 이 문제는 추후 과제로 남기고 넘어갈 것이다.

2. '-히'에 의한 파생

본고에서 다루는 파생부사는 총 701개로, 이 중 접미사 '-히'가 결합된 파생부사는 총 135개로 빈도수를 보인다. 접미사 '-히'가 결합되는 여기로는 명사/어근(한자어, 고유어 포함 단일 어기), 용언의 어간, 부사가 있다. 이 중, 명사/어근에 접미사 '-히'가 결합하는 경우는 119개로 '-히' 결합 부사 중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데, 어간이나 부사에 결합하는 양상은 낮은 빈도수를 보인다. 또한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히' 파생부사는 '-이'와의 공기 양상도 자주 관찰되고, 형태론적으로 '-이' 파생부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앞서 논의한 '-이' 파생부사와 비슷한 양상으로 분석할 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

다음은 명사 혹은 어근에 접미사 '-히'가 결합하여 파생된 부사의 비율을 나타낸 표이다.

<표 9> 명사/어근+'-히'가 결합하여 파생된 부사 비율

비율 음절수 선행 어기	한자어		고유어			
	1음절	2음절	1음절	2음절	3음절	4음절
명사/어근	21.4%	42.2%	4.4%	18.5%	1.4%	0%
용언의 어간	0%	0%	4.4%	1.4%	0%	0%
부사	1.4%	2.9%	1.4%	2.2%	0%	0%

위 표에서 알 수 있듯, 2음절의 한자어 명사/어근에 '-히'가 결합하여 파생부사가 된 비율이 월등히 높다. 접미사 '-히'가 결합한 한자어와 고유어의 비율을 본다면, 67.9%가 한자어에 결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절에서 조어법적 특징에 따른 형태론적 분석을 통해 이들 어기와 접미사 '-히'와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명사/어근+‘-히’

명사/어근에 ‘-히’가 결합하여 파생된 부사 목록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0> 명사/어근+‘-히’가 결합하여 파생된 부사 목록

(가)

ㄱ

가히(可), 감히(敢), 격히(激), 경히(輕), 과히(過), 군히(窘), 궁히(窮), 귀히(貴), 극히(極), 독히(足), 등히(重), 급히/급피(急), 긴히(緊), 박히/박기(薄), 비히(倍), 속키(速), 순히(順), 심히(甚), 장히(壯), 족히(足), 직히(直), 진히(津), 편히(便), 험히(歇), 후히(厚), 흉히(凶), 쾌히(快)

ㄴ

간고히(艱苦), 경경히(耿耿), 경선히(徑先), 고고히(枯槁), 고극히(苦劇), 고단히(孤單), 고독히(孤獨), 고약히(孤弱), 고이히(怪異), 고적히(孤寂), 고집피(固執), 골몰히(汨沒), 공연히(空然), 과도히(過度), 괴상히(怪狀), 구구히(區區), 구차히(苟且), 극진히(極盡), 급급히(急急), 급박히(急迫), 대단히(大壇), 디완히(遲緩), 막년히(漠然), 망극히(罔極), 망조히(罔措), 명명히(明明), 무양히(無恙), 무익히/무익키(無益), 미령히(靡寧), 민망히(憫惘), 박익히(迫阨), 세세히(細細), 쇼쇼히(小少), 시급피(時急), 신기히(神奇), 요요히(遙遙), 요원히(遙遠), 용이히(容易), 의연히(依然) 자세히/즈세히/즈시히(仔細), 절박히(切迫), 조급히(躁急), 종용히(從容), 지극히(至極), 지리히(支離), 편편히(便便), 평선히(平善), 평순히(平順), 평안히(平安), 한심히(開心), 허다히(許多), 허소히(虛疏), 험후히(歇後), 황낙히(荒落)

(나)

ㄱ

대히, 성히, 짝히, 알히, 조히/췌히

ㄴ

가죽히, 고요히, 고죽히/고죽히, 관겨히, 굽굽히, 낙낙히, 넉넉키, 니도히, 다긴히,
 답답히, 든든히, 불상히/불상히, 브경히, 서의히, 섭섭히/섭섭히, 슈슈히 식힐히,
 아득히/아득히, 조용히/쥬용히, 흐운히

ㄷ

고디식히, 아⁹라히

‘-히’가 결합된 파생부사는 총 135개로 이 중 한자어 명사/어근+‘-히’ 86개, 고유어 명사/어근+‘-히’가 33개로, 선행 어기가 한자어 명사/어근인 경우가 훨씬 높은 빈도수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가ㄱ)은 1음절 한자어에 ‘-히’가 결합하여 부사로 파생된 어휘들인데, ‘과히(過)와 니도히⁴⁶⁾’의 경우만 ‘X+-이’형과 ‘X+-히’형을 동시에 갖고 있고, 나머지는 ‘X+-히’형의 모습만 보인다. (가ㄴ)은 2음절 한자어에 ‘-히’가 결합하여 부사로 파생된 어휘들인데, ‘X+-이’형과 ‘X+-히’형을 동시에 갖고 있는 어휘의 빈도수가 1음절 한자어 부사보다 높다.⁴⁷⁾ ‘X+-이’형과 ‘X+-히’형을 동시에 갖고 있는 어휘를 살펴보면, 대체로 ‘-히’가 결합하는 명사/어근이 유성음인 경우이다.

한편, 위에 제시된 파생부사들 중 어간이 ‘Xㅎ-’형인 것들이 다수 존재한다. 어근에 ‘-ㅎ-’가 결합하여 형용사를 파생하는 경우, 그 파생된 형용사의 어간이 또 다른 단어의 어기가 되며 부사 파생 접미사 ‘-이’를 만나 부사를 파생할 수 있다. 이때, ‘-ㅎ-’와 ‘-이’가 만나면서 ‘ㆍ’가 탈락하게 되어 ‘-히’로 나타나게 된다. 이에 따라 ‘Xㅎ-’에 ‘-이’가 결합할 때, ‘ㆍ’가 탈락하여 ‘X히’가 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만약 그러하다면, 파생 접미사 ‘-이’와 ‘-히’의 구분이 점차 일관성이 없어지고 구분이 무의미하

46) 황문환 외(2017)에 따르면 ‘니도이(니도히)’는 ‘아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예를 통해, ‘니도ㅎ-’라는 쓰임을 확인할 수 있고, ‘니도’는 용언의 어근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아주’라는 해석은 불가능해 보인다. ‘아주’의 해석보다는 ‘감정이 없다. 생각이 없다’ 정도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① 곱 난쳐^ㅎ고 망극^ㅎ한 소정과 **니도^ㅎ호^온** 등 지극 슬프기는 흑조 부견천일 ^ㅎ면 넷말^ㅎ고

<순명효-10,1894~95,순명효황후(미상)→김상덕>

② 또 아즈바^님몬 그리도록 겨시다가 **니도^히** 가시니 지극 서온코 그지^업다

<순천김씨-074,1560년대,신천강씨(모)→순천김씨(녀)>

47) ‘X+-이’형과 ‘X+-히’형을 동시에 갖고 있는 어휘는 다음과 같다.

-고고히(枯槁), 공연히(空然), 극진히(極盡), 급급히(急急), 막년히(漠然), 명명히(明明), 무양히(無恙), 민망히(憫憫), 요원히(遙遠), 자세히/즈세히/즈시히(仔細), 지극히(至極)-

다는 뜻일 수 있다. 고영근·구본근(2008)에서는 통시론적으로 보았을 때, ‘-히’는 ‘-이’와 동일한 것이고, 따라서 ‘-히’를 ‘-이’에 포함시켜 함께 다룰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2.2. 용언의 어간+‘-히’/

용언 어간에 ‘-히’가 결합하여 파생된 부사 목록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1> 용언의 어간+‘-히’가 결합하여 파생된 부사 목록

새로히, 되히, 작히/작히/죽키/죽히/직히

앞서 살펴본 용언의 어간+‘-이’가 결합하여 파생된 부사에 비해 용언의 어간+‘-히’가 결합하여 파생된 부사는 매우 낮은 빈도수를 보인다. 이는 용언의 어간+‘-히’의 파생이 그만큼 생산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히’가 붙어 부사로 파생된 용언은 모두 형용사이다.

(83) 새로히<새로이/새롭--+히>

ㄱ. 나는 오늘 제스 격야호오니 **새로히** 망극지통 엇지 다 호올잇가

<추사-07,1818,김정희(남편)→예안이씨(아내)>

ㄴ. 나는 제스 지격호오니 **새로히** 감모 ㄱ이업스오며

<추사-08,1818,김정희(남편)→예안이씨(아내)>

(84) 되히<되--+히>

ㄱ. 그져 쫘도 **되히** 아니 누고 설스을 호오니

<송병필가-44,1906,미상(딸)→전주 이씨(어머니)>

(85) 작히<작히/작--+히>

ㄱ. 뜻밖 초소를 하니 **작히** 감축하라 은제 서울 길 흐는지 궁금하다

<송병필가-52,1885,이용연(부)→전주이씨(녀)>

ㄴ. 답소를 못하였스니 **작히** 무심이 오오섯시려 무안호오며

<송병필가-63,1922,미상(재종 동생)→미상(아주머니)>

(83) ‘새로히’는 앞서 언급한 ‘새로이’와 형태론적, 통사론적, 의미론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새로히’가 쓰인 한글편지를 보면 동일한 시기, 동일 발신자에게서 총 2번의 쓰임이 확인되고 있고, 그에 비해 ‘새로이’는 훨씬 높은 빈도수로 쓰이고 있다. (84) ‘되히’는 ‘새로히’와는 달리 ‘-이’로 통용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단 1건의 쓰임이 확인된다. (85)의 ‘작히’는 ‘작(小)--히’로 분석할 수 있는데, ‘작히/죽키/죽히/직히’로 다양하게 쓰인다. 또한 이형태 혹은 이표기 정보들을 보았을 때, ‘-히’로 인한 파생이 뚜렷해 보이는데, ‘죽키’로 실현되는 것은 중철되면서 ‘ㄱ’과 ‘ㅎ’의 축약이 반영된 결과이다.

2.3. 부사+‘-히’

부사에 ‘-히’가 결합하여 파생된 부사 목록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2> 부사+‘-히’가 결합하여 파생된 부사 목록

두르히, 영히(永), 옷작키, 정녕히(丁寧), 졸연히(猝然), 통히, 홀런히(忽然), 황연히(晃然), 흠흠히

위 부사 어휘들은 부사에 다시 접미사 ‘-히’를 취해 부사를 파생하였다. ‘부사+--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선행 부사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때 ‘-히’는 선행 부사의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은 부사에 ‘-히’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부사의 용례이다.

(86) 두르히<두루이/두르+-히>

- ㄱ. 먹덕쌀 종묘쌀 브디 두르히 가 뵈와라
<선세언독-11,1682,백천조씨(모)→미상(자/녀)>

(87) 영히<영+-히>

- ㄱ. 자내는 가슴 알턴 디 이제나 영히 도하 겨신가
<진주하씨-061,1590~1606,곽주(남편)→진주하씨(부인)>
ㄴ. 아히들도 무탈 충실 을눅 학기는 영히 이각되여 식음이는 잘하여 지니며
<송병필가-07,1889,송병필(남편)→전주 이씨(아내)>

(88) 옷작키<오작(?)+히>

- ㄱ. 올 갖튼 요염이 업스오디 옷작키 심여되읍셔 민망이 지니읍
<의성김씨-167,1848,안영록(하리)→김진화(상관)>

(89) 정녕히<정녕+-히>

- ㄱ. 네 가당이 임종 시 정녕히 뉴언이 범연치 아니헝거늘
<의성김씨-066,1765,김주국(시아버지)→진성이씨(며느리)>

(90) 졸연히<졸연+-히>

- ㄱ. 졸연히 그런 괴이헌 일이 업다 쿠니와
<숙휘-29,1653~1674,인선왕후(모)→숙휘공주(녀)>

(91) 통히<통+-히>

- ㄱ. 막스물 잡디 못히여 네 아바님 제곰 두고 겨집 드린 후는 **통히** 헤랴 호디
<순천김씨-060,1560년대,신천강씨(모)→순천김씨(녀)>

(92) 흘련히<흘연+-히>

- ㄱ. 그 음석을 막 가져간 후의 **흘련히** 니러 안자 슬토록 머근 후의 쏘 자다가
<월성이씨-01,1716,월성이씨(모)→권순경(자)>

(93) 황연히<황연+-히>

- ㄱ. 형데분 다 봉평 가겏스오니 집안은 **황연히** 뷔옵고
<의성김씨-096,1849,진성이씨(며느리)→김진화(시아버지)>

(94) 훌훌히<훌훌+-히>

- ㄱ. **훌훌히** 썸나옵신 후 월환호와 오래오나 평안히 환관호옵신 문안을 모라오니
<의성김씨-148,1849,미상(조카며느리)→미상(큰아버님)>

(95) 니도히<니도+-히>

- ㄱ. 예 인는 아들도 내 썸들 받다녀 **니도히** 니르고 도흔 고득로 가시니
<순천김씨-028,1560년대,신천강씨(모)→순천김씨(녀)>
- ㄴ. 서울의셔 **니도히** 나온 줄은 모르올너이다
<선세연적-08,1680년~1692년,남양흥씨(아내)→박성한(남편)>
- ㄷ. 나는 요스어는 괴운이 **니도히** 나온 듯하니
<선찰9-079,1700년,안동김씨(모)→송상기(자)>

(86)~(95)은 부사에 접미사 ‘-히’가 결합하여 부사로 쓰이는 어휘들이다. 이 중, ‘홀런히, 황연히, 니도히’는 접미사 ‘-이’와 통용되어 사용된다.

(84) ‘옷작키’는 한글편지에 딱 한 차례 사용되고 있어서, 정확한 양상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오죽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오작’+‘-히’가 결합되면서 중철 표기로 인해 ‘ㄱ’과 ‘ㅎ’이 축약되어 초성에 ‘ㅋ’으로 나타났다. 현대국어의 ‘오죽이’ 당시 ‘옷작’이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만, 당시 자료에서 ‘오작(ㅎ다)’이라는 어휘를 발견할 수 있었고,⁴⁸⁾ 따라서 ‘옷작’이 아니라 ‘오작’이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그렇다면, ‘오작’에서 둘째 음절 초성 ‘ㅈ’이 첫째 음절 받침에 겹쳐 사용되었고, 7종성법에 따라 ‘ㅈ’으로 바뀌어 ‘옷작’이라는 쓰였던 것은 아닐까 추측해본다.

3. ‘-오/우’에 의한 파생

부사 파생 접미사 ‘-오/우’는 앞서 살펴본 ‘-이’ 다음으로 생산성이 높은 접미사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가 생산성이 현대까지 꾸준히 이어지며 부사를 파생하는 기능을 한다면, ‘-오/우’는 중세에는 활발한 생산성을 보였지만, 근대 후기 이후로는 유지되지 못하였다.⁴⁹⁾ 따라서 현대에는 ‘-오/우’에 의한 파생을 분석하지 않을 정도로 어휘화되어 쓰이고 있다. 하치근(1993)에 따르면, 파생 접미사의 생산성은 어휘사전에 올라와 있는 파생어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또 파생어의 형성 체계를 수립하고 그 빈자리를 찾아내는 일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생산성이 있는 파생어는 어휘화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와 접사가 모두 형태소와 어휘소의 자격을 갖는다고 하였다. ‘-오/우’는 ‘-이’, ‘-히’와 달리 형용사의 어간보다 동사 어간에 더 자유롭게 결합되는 특징이 있고, 이형태 또는 이표기를 통해 모음조화 현상이 파괴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오/우’가 결합한 파생부사 목록을 밝히고, 이들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48) 아바님 드라시면 오작ㅎ실가 차마 ㄱ이업스오이다

<의성김씨-097,1850년.진성이씨(며느리)→김진화(시아버지)>

49) 이현희(2006:224)는 ‘-오/우’와 결합한 어휘들은 중세국어에서 형성되었던 것들이 대부분이며, 근대 국어로 오면서 형태만 변화하였기 때문에 근대 후기의 생산적인 부사 파생 접미사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표 13> ‘부사+‘-오/우’가 결합하여 파생된 부사 목록

것고로/것구로, 너모/너무, 마조/마지, 모도, 미오/미우, 바로, 아오로, 외오/외요,
조초/쥬초, 즈조/즈쥬/즈주/즈쥬/자쥬/즈로/즈록/즈롭

(96) 것구로<것꾸로/것굴--+오>

- ㄱ. 명디 고도 것뉘치막 **것고로** 안 밧고라 가니 보와셔 히여 보내여라
<순천김씨-165,1560년대년,신천강씨(모)→순천김씨(녀)>
- ㄴ. 방툭의 바근 남글 빼허다가 동토 훈 고디 **것구로** 박고
<이동표가-03,1650년대이후,미상→미상>

(97) 미오<밀오/밧--+오>

- ㄱ. 음식 금긱힝읍시고 **미오** 조심힝읍셔 진복힝읍소서
<의성김씨-167,1848,안영록(하리)→김진화(상관)>
- ㄴ. 네 형이 **미오** 지쳐 녀녀 노이지 못힝게다 등하의 슈즈 그리며
<송병필가-50,1875,이용연(부)→전주이씨(녀)>

(98) 바로<바르/바르--+오>

- ㄱ. 나는 집으로 **바로** 느려가고 아기 다룬 디 가 둔녀갈 디 이시니
<진주하씨-104,1590년~1617년,곽주(남편)→진주하씨(부인)>
- ㄴ. 그도 못 보내고 편지도 못 하고 **바로** 느려간 일 섭섭 7이엿다
<추사가-10,1793년,해평윤씨(시어머니)→기계유씨(며느리)>
- ㄷ. 훈 사름을 위하여 새로 큰 일을 **바로** 하고져 힝는다
<순원(어필2)-04,1850년,순원왕후(재종누이)→김흥근(재종동생)>
- ㄹ. **바로** 어린놈이 디단 성춘터니 압척이를 힝는다 단 중하여 못 갖더니
<송병필가-48,1902년~1928년,미상(녀)→전주 이씨(모)>

(99) 마조<마조/맞--오>

- ㄱ. 두 손근 마조 쥐여 가슴 우히 연고 나드를 디내며
<순천김씨-073,1560년대,신천강씨(모)→순천김씨(녀)>

(100) 조초<조초/쫓--오>

- ㄱ. 글을 쓰디 못하여 계유 쓰니 조초 허마 경의 글월 굿퉁 더긴 것 보고
<숙명-20,1659~1674,인선왕후(모)→숙명공주(녀)>

(101) 너모<너무/넘--오>

- ㄱ. 저기 너모 슈 만코 님내 나니 문 머글쇠
<순천김씨-155,1560년~1592년,채무이(남편)→순천김씨(아내)>
- ㄴ. 돌시 칼할 민드니 제 간의 너모 크니 고타 조리자
<숙명-35,1652년~1674년,인선왕후(모)→숙명공주(녀)>
- ㄷ. 하셔 스연은 보옵고 즈부 등도 이리 되올 줄은 모릅고 너모 피잔허온
<송준길가-082,1740년,여흥민씨(며느리)→송요화(시아버지)>
- ㄹ. 이 굿득허신디 너모 심녀마시옵기 브라옵는이다
<의성김씨-114,1848년,미상(녀)→김진화(부)>
- ㅁ. 각식으로 녀여 무궁무궁 너모 이절 모오시고 관심허오셔
<송병필가-64,1928년이전,미상(동생)→미상(언니)>

(102) 아오로<아오로/아올--오>

- ㄱ. 제 공스 아오로 벗겨 가옵는이다
<숙휘-04,1641~1674,현종대왕(자)→인선왕후(모)>
- ㄴ. 귀인이 도망 이 노비를 후소싱 아오로 디디 못집이 츠디하고
<송시열-01,1671,송시열(시할아버지)→박씨(손자며느리)>

ㄷ. 녕감 훗것 상인의 것 아오로 열흔 가지를 일코 갓웃 다믄 고리를 가져가셔
<선찰 9-027,1698,안동김씨(모)→송상기(자)>

(103) 모도<모도/몹--오>

- ㄱ. 흔 병이 브랄 거시 업서 일만 가지 일이 모도 아니 녕위햏야
<의성김씨-001,1765,김광찬(남편)→진성이씨, 김종수(아내, 아들)>
- ㄴ. 거긔 빈디가 무더와 온 안방과 등방과 사랑방과 모도 빈디니
<의성김씨-100,1831,미상(녀)→김진화(부)>
- ㄷ. 모도 업서 못흔다 햏면 대단이 미편홀다
<의성김씨-139,19세기 후반,미상(누나)→김흥락(남동생)>

(104) 즈조<즈조/죇--오>

- ㄱ. 요스이논 글로 더 분별햏뇌 머글 거시나 즈조 햏여 보내고 더더 두디 마소
<순천김씨-051,1560~1592,채무이(남편)→순천김씨(아내)>
- ㄴ. 니려셔기논 즈조 햏논가 일시도 닛디 몹햏여 눈어 암암햏여 햏뇌
<진주하씨-066,1614,곽주(남편)→진주하씨(부인)>
- ㄷ. 네 아빅 괴별을 이제논 즈조 드를 길히 그 념녀를 어이 다 덕으리
<선찰 9-015,1688~1709,송규렴(할아버지)→이하곤의 처(손녀)>
- ㄹ. 일긔가 더우디 즈조 미령햏오신 거시 심회를 상시여 그러햏시읍
<송병필가-49,1908~1928,미상(녀)→전주이씨(모)>

(105) 외오<외--오>

- ㄱ. 어버이 외오 녏기시면 다함 내 이를 슸퍼 조심햏여 그른 일 업게 햏여사
<진주하씨-016,1590~1606,곽주(남편)→진주하씨(부인)>
- ㄴ. 공경햏고 조심햏며 버릇업슨 상된 말햏여 외오 녏기게 말며
<자손보전-04,1704,완산이씨(모)→맹숙주(자)>

ㄷ. 이적 쾌초 여상시 업소오심 **외오** 낙낙 두립스온 맛음 측냥 못흐옵고

<의성김씨-134,1848,미상(제수)→김진화(아주버니)>

ㄹ. 염일일 칠순 심신 격일호오시니 든든 경축호오시려 **외오** 경축호오며

<송병필가-63,1922,미상(재종 동생)→미상(아주머니)>

(96)~(105)은 용언 어간에 부사 파생 접미사 ‘-오/우’가 결합하여 파생부사를 형성한 예이다. (96) ‘것구로/것고로’는 동사 ‘것굴-’에 부사 파생 접미사 ‘-오’가 결합한 예이다. 한글편지에서는 총 2번의 쓰임을 보이는데, 17세기에 ‘것구로’의 형태로 사용 모습을 보이고, 이보다 이른 시기인 16세기에 ‘것고로’의 모습이 관찰된다. 2장에서 언급하였다시피 한글편지 외 문헌 자료에서는 16세기 중엽 이후 처음 ‘것꾸로’의 모습으로 등장하다가 18세기가 되어야 ‘것구로’의 사용양상을 보였다.⁵⁰⁾ 하지만 한글편지에서는 16세기부터 ‘것고로’의 모습이 보였으며, ‘것구로’의 형태는 문헌 자료보다 이른 시기인 17세기부터 사용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⁵¹⁾ 또한 ‘것고로’의 형태는 한글편지 외에 어떤 문헌 자료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97) ‘미오/미우’는 한글편지에서는 19세기 문헌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형용사 ‘밧-’과 부사 파생 접미사 ‘-오/우’가 결합한 것이다. (98) ‘바르’는 동사 ‘바르다’의 어간인데, 어간 말음 ‘ㄷ’가 접미사 ‘-오/우’와 결합하며 ‘ㄷ’가 탈락되었고,⁵²⁾ 현대국어에서 부사 ‘바로’로 어휘화하여 쓰이고 있다. (99) ‘마조’는 동사 어간 ‘맛-’에 접미사 ‘-오’가 결합하였다. (100) ‘조초’는 ‘좃--+오’로 분석할 수 있고,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좃아, 따라’의 의미로 사용된다. (101)의 ‘너모’는 ‘넘--+오’로 분석할 수 있고, (102) ‘아오로’는 ‘아올--+오’로 분석할 수 있다. 각각 동사 어간 ‘넘-’, ‘아올-’에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오’가 결합된 것이다. (103) ‘모도’는 ‘모이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 ‘몸-’에 부사 파생 접미사 ‘-오’가 결합한 것이다. (104) ‘즈조’는 형용사 어간

50) 가야미논 별애를 쓰어 **것꾸로** 섬에 오락놋짜

<1576,백련초해-14ㄴ>

드레를다가 드러 물 우희 배쳐 **것구로** 쳐 물에 맛바다 느려가면

<1763,노걸대신석-1:44ㄱ>

51) 명디 고도 것등치막 **것고로** 안 밧고라 가니 보와셔 히여 보내여라

<1560,순천김씨-165>

동토 훈 고디 **것구로** 박고 도라오면 즉시 돛느니라

<1650,이동표가-03>

52) 조일규(2014:163)에는 밑말의 끝소리가 [ㄷ]일 경우에는 [ㄷ]가 줄어들면서 ‘-오/우’가 결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오’에 부사 파생 접미사 ‘-오’가 결합한 것이다. 18세기 1음절에서 모음 ‘ㅏ’가 ‘ㅑ’로 바뀌면서 ‘자조’ 형태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105) ‘외오’는 ‘외오다’의 어간형 부사인지, ‘외다’에 부사 파생접미사 ‘-오’가 결합한 것인지에 따라 두 가지로 고찰해 볼 수 있다. ‘외오다’는 ‘멀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형용사이고,⁵³⁾ ‘외다’는 ‘그르다’의 의미를 지니는 형용사이다. 따라서 한글편지에 사용된 ‘외오’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형태론적 분석의 시작이 될 것이다. (105ㄱ)은 ‘어버이께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105ㄴ)은 ‘~버릇없고 상스러운 말을 하여 그릇되게 여기게 말며’로, (105ㄷ)은 ‘~멀리서 두려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옵고’, (105ㄹ)은 ‘~멀리서 경축합니다’로 해석 가능하다. 그렇게 본다면 (105ㄱ,ㄴ)은 기본형이 ‘외다’이기에 이때 ‘-오’는 부사 파생 접미사이고 따라서 ‘외오’는 파생부사이다. 하지만 (105ㄷ,ㄹ)은 기본형이 ‘외오다’이고, 이때 ‘-오-’는 어미로서, 어간형 부사라 해야 옳을 것이다. 또한 한글편지에서 ‘외오’의 두 가지 의미 말고도 하나가 더 사용되고 있는데, ‘말이나 글 따위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두다.’의 의미인 ‘외우다’가 사용되는 모습도 한 차례 발견할 수 있었다.⁵⁴⁾ 결론적으로 ‘외오’는 세 가지의 의미와 그에 따른 형태론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첫째는 ‘외다’가 ‘그르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이때, ‘외오’는 ‘어간+접미사’의 구성을 띠며, 파생부사이다. 둘째는 ‘외다’가 ‘멀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인데, 이때 ‘외오’는 ‘어간+∅’의 구성으로, 어간형 부사로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는 ‘외오’가 ‘잊지 않고 기억해 두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96)~(103)은 모두 동사 어간에 ‘-오/우’가 결합하여 파생부사를 이룬 예이고, (104), (105ㄱ,ㄴ)만 형용사 어간에 ‘-오/우’가 결합하여 파생부사가 된 예이다. 이처럼 ‘-오/우’는 형용사보다 동사 어간에 더 자유롭게 결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오/우’는 동사 어간에 결합하여 파생부사를 만드는 경우에 생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⁵⁵⁾ 또한 ‘마조, 모도, ㄱ초, 아오로, 외오, 고초’는 이형태 혹은 이표기가 존재하더라도 양성 모음조화를 잘 지키고 있지만, ‘두루, 바로, 너모, 조조’는 이형태나 이표기

53)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큰사전』에서는 ‘외오다’가 ‘멀다의 의미를 가지는 궁중말’이라고 등재되어 있다.

54) 경예는 마천스 열던을 누리 외오이고 이제야 문선이나 넓히랴 흥니
<창계-07,1691,임영(남동생)→미상(막내누이)>

55) ‘-이’, ‘-히’ 부사 파생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이’, ‘-히’ 부사 파생은 형용사 어간에 결합할 때 훨씬 생산적인 모습을 보인다.

정보를 보면 양성파 음성의 ‘-오/우’가 모두 결합함으로써 모음조화가 파괴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4. 그 외 접사에 의한 파생

앞서 살펴본 접미사 외에도 부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들이 존재한다. 한글편지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 외 접미사’로는 ‘-혀, -내, -로, -다지/더지, -욱(ㄱ), -소, -디’ 등이 존재하였다. 본 절에서는 그러한 접미사들을 ‘그 외 접미사’라 지칭하고 ‘그 외 접미사’가 결합하여 파생부사가 된 목록과 예를 밝히고, 이들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표 14> ‘부사+’그 외 접사가 결합하여 파생된 부사 목록

겨으니, 그더지/그뎃지, ㄱ으내, 날로/날노, 더욱, 도로여/도로혀, 별너/별노/별로, 몬내/몬니/뎃내/뎃니, 몸소, ㅁ춤내, 새로/시로, 본디(本-), 봄내, 여름니/여름내, 전혀(全-)/뎃혀(全-), 흥여(幸-)/흥혀(幸-)

(106) 겨으니<겨을+-니>

ㄱ. 두통도 잊고 면종 **겨으니** 반흔 곳 업시 그러흐니

<의성김씨-052,1849년,여강이씨(아내)->김진화(남편)>

ㄴ. **겨으니** 담긋치 두 두리로 오르락누리락 비로도 들고 간 곳마다 곱논 두시

<의성김씨-052,1849년,여강이씨(아내)->김진화(남편)>

(107) ㄱ으내<ㄱ을+-내>

ㄱ. 녀름 **ㄱ으내** 뉴 업슨 가난의 지쳐 아마도 오래 못 살리

<자손보전-20,1769년,미상(고모)->서명천(조카)>

ㄴ. 온 녀름 **ㄱ으내** 기별을 모르니 답답 썩썩기 ㄱ이업스나

<자손보전-20,1769년,미상(고모)->서명천(조카)>

(108) 봄내<봄+-내>

- ㄱ. 본촌 역딜 **봄내** 빗칠 듯 이 마은 다 혀여시나
<의성김씨-055,1850,여강이씨(아내)→김진화(남편)>

(109) 여름내(여름+-내)

- ㄱ. 나셔방도 **여름내** 푸러타 혀니 고이습 고을은 가보시니 엇더혓
<의성김씨-055,1850,여강이씨(아내)→김진화(남편)>

(110) 못내<못내/못+-내>

- ㄱ. **못내** 든든 반갑습더이다
<창계-01,1682,임영(자)→임천조씨(모)>
- ㄴ. **못내** 일긫좁노이다 기별혓소셔
<진주하씨-109,1590~1652,미상(녀)→진주하씨(모)>
- ㄷ. 든든 **못넌** 알외오며 여긫셔는 상후 문안 만안혓오시웁고
<궁인(代,조)-17,1875~1907,궁인(미상)→미상(미상)>

(111) 못춤내<못춤+-내>

- ㄱ. 덩덕당 병환은 **못춤내** 물약지효⁵⁶⁾를 엇디 못혓와 천만 의외에 상시 나오니
<숙휘-06,1685,숙종(조카)→숙휘공주(고모)>
- ㄴ. 소견은 **못춤내** 올흔 줄을 모긫기 판셔드려도 옴기디 아니코 업시 혀엇더니
<순원(규)-04,1847~1849,순원왕후(재종누이)→김흥근(재종동생)>

56) ‘물약자효(勿藥自效)’의 오기가 아닌가 추측된다.

(106)~(111)은 접미사 ‘-내’가 결합하여 부사로 파생한 어휘와 그 예이다. 이 중, ‘겨으니’, ‘ㄱ으내, 봄내, 여름내’는 선행 어휘가 명사이고, ‘못내, 못춤내’는 선행 어휘가 부사이다. 이때 전자의 ‘-내’는 ‘그 기간의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의미를 지니고, 후자의 ‘-내’는 ‘그때까지’라는 의미를 지닌다.

(112) 그더지<그+-더지>

ㄱ. 병도 약착 약착 그더지 몽창스러운고 답답

<의성김씨-023,1847,여강이씨(아내)→김진화(남편)>

ㄴ. 철이 직지에 가 그덧지 속는고 아모려나 춤아 집이나 도라와 죽어시면

<의성김씨-023,1847,여강이씨(아내)→김진화(남편)>

(113) 이더지<이+-더지>

ㄱ. 아모려나 춤아 집이나 도라와 죽어시면 이더지 이탁 답답호오리

<의성김씨-023,1847,여강이씨(아내)→김진화(남편)>

ㄴ. 제가 이셔시면 이덧 망창호게습

<의성김씨-028,1847,여강이씨(아내)→김진화(남편)>

ㄷ. 부려흔 샤름쳐로 지내오니 엇지 이닥지 완호온고

<추사-27,1842,김정희(남편)→예안이씨(아내)>

(112)~(113)은 접미사 ‘-다지/더지’가 결합하여 부사로 파생된 어휘들과 그 예이다. 이때 ‘-다지/더지’는 ‘거기에 이를 정도까지’의 뜻을 더하여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그더지(그덧지)’와 ‘이더지(이닥지/이덧)’는 한글편지에 총 8회의 빈도를 보이는데, ‘이닥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성김씨 학봉 김성일가 언간」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 파생부사들은 1800년대 중반이라는 비슷한 시기에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14) 별로<별(別)+-로>

- ㄱ. 아모 날이나 **별로** 볼 일이 내드르면 내 가 뵈오리이다
<숙명-10,1661,현종(남동생)→숙명공주(누나)>
- ㄴ. 나는 친구세에 **별노** 가감이 업시 먹고 자고 무스 무려흔 샤롬쳐로 지내오니
<추사-27,1842,김정희(남편)→예안이씨(아내)>
- ㄷ. **벼리** 알픈 디는 각별티 아니디 미양 속머리 알픈고 가슴 답답고 알픈고
<순천김씨-028,1560,신천강씨(모)→순천김씨(녀)>

(115) 새로<새+--로>

- ㄱ. 자내 들 집으란 두 간이나 **새로** 짓고 나고더
<진주하씨-059,1590~1617,곽주(남편)→진주하씨(부인)>
- ㄴ. 모시 관디는 **새로** 장만흐되 밧침이 깃지 더러워 불상흐고
<이동표가-15,1644~1698,이동표(미상)→미상(미상)>
- ㄷ. 우리 초시도 다 파흐고 **새로** 식골셔 뵈이올 거시니 민망흐오려니와
<송병필가-30,1882년 이전,송지수(시아버지)→전주이씨(며느리)>

(116) 날로<날+-로>

- ㄱ. 내 괴시는 **날로** 파려코 도흔 드시 니러 안자셔 마리나 흐고 이시니
<순천김씨-028,1560,신천강씨(모)→순천김씨(녀)>
- ㄴ. 더리들 믹죽근흐여 **날로** 원기만 쇠패흐니
<숙휘-25,1653~1662,인선왕후(모)→숙휘공주(녀)>

(114)~(116)은 부사 파생 접미사 ‘-로’가 결합하여 부사로 파생된 어휘들과 그 예이다. ‘별로(別-)’는 한자어 ‘別’과 접미사 ‘-로’로 이루어진 파생어인데, 17세기부터 보여 현재까지 쓰이고 있다. 예시문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듯, 17세기에는 ‘별로’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18세기 이후부터는 대부분 ‘별노’의 형태로 쓰였다.⁵⁷⁾

(117) 도로혀<도르혀/도로--혀>

- ㄱ. 큰 무덤을 다 다녀엿습고 도로혀 과도히 스랑들을 흐느기 시브오니
<선세언독-15,1646~1683,송병하(사위)→권씨(장모)>
- ㄴ. 도로혀 고이흔 듯시브고 고틱 고틱하다
<자손보전-08,1750,달성서씨(외조모)→맹지대(손자)>
- ㄷ. 그도 다 뜻대로 아니 되오니 도로혀 웃습고
<추사-01,1818,김정희(남편)→예안이씨(아내)>

(118) 전혀<전혀/전(全)--혀>

- ㄱ. 음식을 전혀 못 먹고 지내니 적패흔 굶히 이려하니 아마 지털 못흘가 시버
<선세언독-33,1699~1764,송요화(부)→미상(녀)>
- ㄴ. 전혀 그 못 당힐 악경과 천니의 우환 고틱별 후 더 못흐오신디
<의성김씨-096,1849,진성이씨(며느리)→김진화(시아버지)>

(119) hing혀<hing혀/hing(幸)--혀>

- ㄱ. hing혀 험과 달나 만나기 쉽디 아닐가 념녀하니
<창계-03,1683,임영(남동생)→미상(막내누이)>
- ㄴ. hing혀 못기 어렵지 아니커든 곱선생드려 쇼갈의 무어시 당약인고 무려보와라
<선세언독-27,1740,조준명(삼촌)→송기연·함양여씨(조카부부)>

(117)~(119)는 앞말에 ‘-혀’가 결합하여 파생부사를 이룬 어휘들이다. (117) ‘도로혀’는 동사 어간 ‘돌-’에 접미사 ‘-으-’가 결합되어 연철한 ‘도르-’에 다시 접미사 ‘-혀-’가 결합되어 부사로 파생되었고, (118) ‘전혀’는 한자어 ‘전(全)’에 접미사 ‘-혀-’가 결합하여 부사로 파생된 어휘이다. (119) ‘hing혀’ 역시, 한자어 ‘행(幸)’에 ‘-혀-’가 결합되어 파생된 어휘이다.⁵⁸⁾

57) 어종의 ‘르르’이 ‘르ㄴ’으로 나타나는 것은 근대국어 시기의 표기 현상이다.

(120) 더욱<더욱/더으--+옥>

ㄱ. 나리 하 험하니 **더욱** 분별 분별하옵노이다

<죽산안-01,1571,안씨부인(모)→정철(자)>

ㄴ. 다리에 도든 거스로 약 브르고 산침 맞기로 너머 못 가느니 **더욱** 섭섭하와

<숙취-05,1641~1674,현종(자)→인선왕후(모)>

ㄷ. 저리 급히 써나오시니 **더욱** 섭섭 애끓소오이다

<송준길가-096,1747,송기연(조카)→미상(고모(김치공의 처))>

ㄹ. 흥년은 한심하고 우리는 **더욱** 독흥을 만나 아직 먹을 낭식이 하마 업스니

<의성김씨-158,19세기 중반,미상(사촌누이)→미상(사촌남동생)>

(120) ‘더욱’은 ‘더하다’의 의미인 동사 어간 ‘더으-’에 접미사 ‘-옥/옥’이 결합하여 부사화되었거나 혹은 접미사 ‘-ㄱ’이 결합하여 부사로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옥’보다 ‘더욱’의 형태가 수적으로 더 우세한데, 이는 앞서 언급한 ‘-오/우’ 파생과 같은 맥락으로 따져볼 수 있다. 파생부사에서 선행 음절말 모음의 성질이 음성인 경우, 양성인 경우에 비해 ‘-오/우’의 교체가 좀 더 자유로웠고, 따라서 선행 음절말 모음과 동일한 성질의 모음인 ‘더욱’보다 ‘더옥’이 수적으로 우세하게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동사 어간 음절말 모음이 양성일 경우 모음조화를 지키는데 반해, 동사 어간 음절말 모음이 음성인 경우 후행 접미사는 모음 성질에 상관없이 자유로운 결합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1) 몸소<몸소/몸+-소>

ㄱ. 몸소 일이 다르니 그렇성 닉는 거시 아니 되옵노이잇가

<순원(어필1)-11,1851,순원왕후(재종누이)→김흥근(재종동생)>

58) 심재기(1982)에 의하면 ‘-혀’형 파생부사는 선행 어기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형태론적 배려에 의해 추가된 부정형 접미 형태소 ‘-어’에 기원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121) ‘몸소’는 명사 ‘몸’과 접미사 ‘-소’가 결합한 것인데, 15세기 문헌에서는 ‘몸소’의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서 특이할만한 점은 16세기 이후 ‘ㅅ’이 소실되었다면, ‘ㅅ’의 음가가 사라지기 때문에 ‘몸오’로 나타나야 하는데, ‘몸소’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16세기부터 동남방언에서 ‘ㅅ’이 ‘ㅆ’으로 변한 부사들⁵⁹⁾이 종종 관찰된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동남방언의 세력이 커짐에 따라 영향을 준 것은 아닐지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한글편지에서는 ‘몸소’가 「순원왕후어필봉서 언간」에서 순원왕후(재종누이)가 김흥근(재종동생)에게 보낸 편지에 한 차례 등장하는데, 순원왕후의 본관이 안동지방이라는 점 또한 이를 뒷받침 해 줄 수 있을 듯하다.

(122) 본디<본디/本(本)+-디>

ㄱ. 궁헌 이리사 **본디** 칭각디 아니고 정승 세가 니로덜라

<순천김씨-004,1560년대,신천강씨(모)→순천김씨(녀)>

ㄴ. 그 말은 **본디** 누우님이 그 칙 일흠을 아디 못흐야 그 일흠을 써 달라 흐거늘

<숙휘-03,1653~1662,현종대왕(장인)→정제현(사위)>

ㄷ. 그 도포가 **본디** 잘못 물나 무이 좁고 모양이 아니 되어스오니

<의성김씨-029,1847,여강이씨(아내)→김진화(남편)>

(122) ‘본디’는 한자어 ‘本’과 부사파생 접미사 ‘-디’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로 19세기까지 쓰이게 된다. 한글편지에서는 ‘본디’의 이형태나 이표기가 관찰되지 않지만, 한글편지 외 문헌 자료에서는 ‘본디로, 본디록, 불리, 본디록, 본디, 본디, 본되’ 등 다양한 표기가 존재하였다.

59) 손소>손수, 몸소>몸소 등이 있다.

5. 활용형과 곡용형의 부사화

본 절에서는 어기나 어근에 어미나 조사가 결합하여 부사로 파생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⁶⁰⁾

형태론적 분석을 통해 접미사인지의 여부를 구분해내는 것은 공시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부사 파생에 기여한 어떠한 문법적 성분을 조사나 어미가 화석화하여 접미사가 되었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그대로 조사와 어미로 보아야 하는지, 그도 아니라면 두 가지의 기능을 중첩해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별의 어려움이 따른다. 이들 조사와 어미를 화석화하여 접미사가 된 것이라 본다면, 이들과 화석화되지 않은 조사와 어미를 구분하기에 모호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부사화를 담당하는 특정 조사와 어미가 결합하는 어간과 어기는 정해져 있는지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어간이나 어기에 결합하여 부사화를 이룬 이러한 조사와 어미들을 접미사로 분류하지 않고, 본래 그대로의 문법적 요소인 조사와 어미로 볼 것이다.

5.1. X+어미

용언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하거나 혹은 ‘Xㅎ-’에 어미 ‘-고’가 결합하여 부사를 파생하기도 한다. 본 절에서는 어미가 결합하여 파생부사가 된 목록과 예를 밝히고, 이들의 형태론적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앞말에 어미가 결합하여 부사로 파생된 파생부사 목록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5> ‘X+어미’가 결합하여 파생된 부사 목록

구뜰여/구티여/긱티야/긱티여/긱ㅎ여, 뇌여, 그러나, 한스코, 결단코, 또한, 아오라, 차마/차마/춤아/춤아/춤, 쥬고마/쥬고매, 므스므러/므스므라/므스마라

60) 어기나 어근을 편의상 ‘X’라 지칭할 것임을 밝힌다.

(123) 구퓌여<구퓌여/구퓌--어>

- ㄱ. 듀야 외오셔 녀녀 측낭업습더니 **구퓌여** 못호오심이 아니 겨오신가 시브오니
<송준길가-080,1740년,여흥민씨(며느리)→송요화(시아버지)>
- ㄴ. **구퓌여** 그 죄로 치온 거시 아니오라 물 깃난 무자히 차모를 노샹
<송준길가-092,1757년,여흥민씨(며느리)→송요화(시아버지)>
- ㄷ. 디신은 명정 일노 알외나 어느 씨 못호야 **구퓌여** 그쳐로 번거흔 씨
<명성황(민)-094,1885~1890년,명성황후(고모)->민영소(조카)>

(124) 뇌여<뇌여/뇌--어>

- ㄱ. **뇌여** 잡말 말라코 이시니 므슴 말호리
<순천김씨-041,1560,신천강씨(모)→순천김씨(녀)>
- ㄴ. 밧씩셔논 몯 가도 울고 가도 울고 하니 **뇌여** 몯 가리라 호노이다
<진주하씨-156,1622,미상(녀)→진주하씨(모)>

(123)~(124)는 어미 ‘-아/어’가 결합된 활용형이 그대로 굳어져 만들어진 파생부사이다. ‘-아/어’가 결합하여 부사로의 파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어미 ‘-아/어’가 모두 부사 파생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고, 음운론적으로도 여전히 어미의 기능을 하고 있기에 본고에서는 접미사가 아니라 어미로 본다. ‘-아/어’는 음운론적 이형태로서 기능하는데, 선행 모음이 양성이면 ‘-아’, 음성이면 ‘-어’로 실현이 되는 모음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중 ‘구퓌여’는 ‘ㆍ’의 소실과 재음소화 등으로 많은 이형태를 지니고 있다. ‘뇌여’는 ‘거듭하다’를 의미하는 ‘늑외다’의 어간 ‘늑외-’에 어미 ‘-어’가 결합하여 ‘다시’라는 의미의 부사로 파생되었다.

(125) 초마<초마/츄--아>

- ㄱ. 미양 우르시던 일을 **초마** 싱각 못호여 받즈와 우리썬 툃뎃 망극 망극호여라
<선세연독-05,1633년,미상(모)→미상(녀)>

ㄴ. 무궁하나 셔역이 **차마** 어려와 이만 한다

<추사가-41,1832년,김노경(시아버지)→(며느리)>

ㄷ. 그는 더욱 공교로운 듯하여 다항하데 다내는 일이 다 **춤** 못할 일이나

<창계-10,1683~1686년,임영(남동생)→미상(막내 누이)>

(125) ‘춤’은 ‘춤다’의 옛말인 동사 ‘춤다’의 어간 ‘춤-’에 어미 ‘-아’가 결합한 활용형이 부사로 쓰이게 되었는데, 제1음절 ‘ㆍ’가 ‘ㅏ’로 바뀐에 따라, 19세기 이후 ‘차마’ 형태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철 표기의 예인 ‘춤아’도 확인할 수 있다.

(126) 한스코<한스ㅎ--고>

ㄱ. 그저 건네기는 깃허 무섭다고 **한스코** 물에 못 들게 하더라

<의성김씨-050,1848,여강이씨(아내)→김진화(남편)>

ㄴ. 하도 망측한 세상 보아 무심치 아이코 명손 모 **한스코** 가 보고 온다

<송병필가-70,1895,전주이씨(모)→미상(녀)>

(127) 결단코<결단ㅎ--고>

ㄱ. 대던의셔 **결단코** 그른 일은 아니실 거시오

<순원(어필1)-10,1851년,순원왕후(재종누이)→김흥근(재종동생)>

(126)~(127)은 ‘Xㅎ-’에 어미 ‘-고’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부사의 예이다. 각각 ‘한사ㅎ-’, ‘결단ㅎ-’에 연결어미 ‘-고’가 결합한 후 ‘ㆍ’탈락과 ‘ㅎ+ㄱ’의 축약으로 인해 형성된 파생부사이다.⁶¹⁾

61) 배영환(2010)에 따르면 ‘-코’말음 부사는 기원적으로 ‘X하코’의 통사적 구성이 축약되어 어휘화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이는 그 여기에 비해 ‘강조’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128) 그러나<그러나/그러ㅎ--+나>

- ㄱ. **그러나** 나 이리 군ㅎ니 설워 종의게 온 가지 거시라 하 나도*별
<순천김씨-087,1560,신천강씨(모)→순천김씨(녀)>
- ㄴ. 그런 깃븐 일이 업다 **그러나** 여증은 업디아닐 거시니
<선찰 9-018,1662~1708,송규렴(부)→이익명의 처(녀)>
- ㄷ. **그러나** 하 깃븐 테 말라 ㅎ쇼셔 지리ㅎ여 이만 알외읍느이다
<이동표가-17,1677,이동표(자)->미상(모)>

(128) ‘그러나’는 ‘그러ㅎ-’에 연결어미 ‘-나’가 결합하면서 ‘ㅎ-’가 탈락하는 과정을 거쳤다. 15세기부터 현재까지 변화없이 사용되고 있다.

5.2. X+조사

조사가 결합하여 파생부사를 형성하는 경우 그에 선행하는 요소는 체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하다면, 체언에 후행하는 요소가 접미사인지 조사인지 구분이 애매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X+조사’의 형태가 통시적인 과정을 거치며 어휘화하여 부사가 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렇게 형성된 부사들은 독립된 품사로 기능할 것이기에 이때 조사를 접미사의 기능을 한다고 판단하여 파생부사로 볼 것이다.⁶²⁾

본 절에서는 조사가 결합하여 파생부사가 된 목록과 예를 밝히고, 이들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표 16> ‘X+조사’가 결합하여 파생된 부사 목록

간대로/간디로, 고로(故-), 그대로/그디로/거디로, 그더도록/그디도록, 그리도, 그리로, 그나마, 그대로/그디로, 그적긔/그저씩/그졌긔/그졌씩, 날노/날로, 더도록, 바른대론, 다시곰/다시음, 디디로(代代-), 쏘는, 실은(實-), 스스로/스스라/스스로, 시시로(時時-), 실로(實-)/실노(實-), 이디도록/이대도록/이더도록/이도록/이리도록, 이리도, 아모려면,
--

62) 고영근(1989)에서는 조사가 접미사로 전환되는 일은 극히 일부이며, 이들이 특정 어근과 통합되어 문법성을 상실함으로써 새로운 단어를 파생하는데 참여하였으므로 접사화했다고 보고 있다.

아모도록/아모듀록/아모조록/아모조로나/아모조록/아모조로나/이무려나, 아마도, 이리로,
아모래도/아무려도/아모려도/아므려도/아므리나/아므려나/아므리나, 아마도, 이만치,
언제나, 엇미나, 이러나/이리나, 쥌고마치/쥌고만치, 쥌고로(自古-), 절노/절로/절노,
진실로(眞實-)/진실노(眞實-), 춤으로, 혹은(或-), 홀로/홀노

(129) 실로<실(實)+-로>

- ㄱ. 네 **실로** 네 당형으란 막숨매 먹다녀 든니모로 올 제 네 당형도 전송을
<순천김씨-055,1560년대,신천강씨(모)→김여물(자)>
- ㄴ. **실로** 인간 지미업서 세상이 실로 관겨티 아니혀여 흐노라
<선찰9-112,1660~1708,송규렴/안동김씨(삼촌/숙모)→미상(조카)>
- ㄷ. 예는 대되 무스 흐고 툄쇠 녍신은 무스 흐나 **실로** 괴이혀여라
<월성이씨-01,1716,월성이씨(모)→권순경(자)>

(130) 고로<고(故)+-로>

- ㄱ. 이런 말슴 창피 괴로와 흐오시나 일념 블망 **고로** 즈연 말슴이오며
<서기이(代조)-05,1888~1890년대,서기 이씨(미상)→윤용구(미상)>

(131) 별로<별(別)+-로>

- ㄱ. 아모 날이나 **별로** 볼 일이 내드르면 내 가 뵈오리이다
<숙명-10,1661,현종(남동생)→숙명공주(누나)>

(132) 간대로<간대로/간대+-로>

- ㄱ. 쇼성도 될 듯흐오니 **간대로** 관겨흐올잇가
<추사-24,1841년,김정희(남편)→예안이씨(아내)>

(133) 진실로<진실(眞實)+-로>

- ㄱ. 그 마른 올흔 마린가 **진실로** 그리 니를 짜기면 흔 집의 잇다가
<진주하씨-059,1590~1617,곽주(남편)→진주하씨(부인)>
- ㄴ. **진실로** 이 두리면 오늘 니일 니예 나흘 거시니 시작혀며셔 브디 브디
<진주하씨-142,1590~1613,곽주(남편)→진주하씨(부인)>

(134) 홀노<홀로/홀+-로>

- ㄱ. 한가흠과 집을 위혀여셔는 **홀노** 만항분이 아니니 재재 싱각홀스록 식현히
<순원(어필1)-09,1841년 경,순원왕후(재종누이)→김흥근(재종동생)>
- ㄴ. 내 무음 곳기논 아모 쉽디 못홀 듯혀니 내가 **홀노** 착흔 듯혀니
<순원(어필1)-08,19세기 중반,순원왕후(재종남매)→미상(재종남매)>

(135) 시시로<시시(時時)+-로>

- ㄱ. 이번 온 즈식들로 하여 더욱 문 닛조오실 줄 아오매 **시시로** 싱각혀웁고
<진주하씨-156,1622,미상(녀)→진주하씨(모)>
- ㄴ. 반찬 곳찬코 먹으면 직분의 올코 **시시로** 쇠고기도 스 먹스오니
<의성김씨-021,1847,여강이씨(아내)→김진화(남편)>

(136) 디디로<디디(代代)+-로>

- ㄱ. 이 봉스도 노비 던디를 너히 조손애도 **디디로** 못즈식이 맛다
<송시열-01,1671,송시열(시할아버지)→박씨(손자며느리)>

(137) 그리로<그리+-로>

- ㄱ. 데천 곧 쓰오면 시시 편당혀오매 **그리로** 권혀오나

<송시열-02,1679년,송시열(스승)→정보연의 처 민씨(제자의 아내)>

ㄴ. 문안 알외옵고 그리로 헝츠ㅎ읍신 후 문안 아득ㅎ오니

<의성김씨-102,1833년,미상(녀)→김진화(부)>

(138) 즈고로<즈고(自古)+-로>

ㄱ. 즈고로 공명ㅎ느니 시비간 이런 일이 종종이오 만일 슈익ㅎ여 면티 못ㅎ량이면

<순원(규)-29,1848,순원왕후(고모)→김병주(조카)>

(139) 스스로<스스+-로>

ㄱ. 아히 쇼견이 요러흔 줄을 오히려 몰나시니 스스로 붓그러위

<추사가-02,1775,해평윤씨(숙모)→김노직(조카)>

(129)~(139)는 선행어에 조사 ‘-로’가 결합하여 부사로 파생된 예이다. 조사 ‘-로’는 음운론적 이형태에 따라 ‘-으로’와 함께 쓰이나, 부사화에 나타나는 조사는 ‘-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오직 ‘-로’만 나타난다. 조사 ‘-로’가 결합하여 파생부사가 된 어휘들을 살펴보면 1, 2음절이고, 어기의 음절 말음이 모음 또는 ‘ㄹ’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간대로, 스스로’는 선행 요소에서 조사 ‘-로’를 분리했을 때, ‘간대’, ‘스스’가 되는데, 이는 자립성의 측면에서나 의미적 측면에서나 모호하다. 한편, ‘실노, 진실노’처럼 조사 ‘-로’가 ‘-노’로 교체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ㄹㄹ’이 연속으로 나타날 때, ‘ㄹㄴ’으로 표기하는 근대국어 표기법의 경향에 따른 이표기 방법이라 할 수 있다.

(140) 더도록<더+-도록>

ㄱ. 훈 나히나 저머시면야 더도록 설오라

<순천김씨-073,1560년대,신천강씨(모)→순천김씨(녀)>

(141) 이리도록<이리+-도록>

- ㄱ. 언마를 살 인칭이라 이리도록 글탈논고 이만흔 팔지면 므스므려 쳐즈논 삼긴고
<순천김씨-072,1537~1592,채무이(남편)→순천김씨(아내)>

(142) 그더도록<그더+-도록>

- ㄱ. 그 맛벼소를 히여 가지고 그더도록 간고히 사던 겨지블 이리 흐건다
<순천김씨-093,1560,신천강씨(모)→순천김씨(녀)>
- ㄴ. 그더도록 문 닛즈와 흐옵시다가 가오디 혼 쫓 말숨을 문 듯좁고 오으오디
<진주하씨-156,1622,미상(녀)→진주하씨(모)>

(140)~(142)는 선행어에 조사 ‘-도록’이 결합하여 부사로 파생된 예이다. ‘-도록’은 현대국어의 ‘-토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말이 나타내는 정도나 수량에 다 차기까지’라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이 부사들은 한글편지를 제외한 다른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한글편지 중에서도 발신자가 여성인 경우만 쓰였다는 점이 관찰되었다.⁶³⁾

(143) 아무쵸록<아무+ㅈ+록>

- ㄱ. 아무쵸록 아논 거손 다흐여 보도흐고 구확의 든 빅성을 건져 태평을 날위게
<순원(어필1)-10,1851,순원왕후(제종누이)→김흥근(재종동생)>

(143) ‘아무쵸록’은 ‘아모’와 가지를 뜻하는 ‘조’, 조사 ‘록’이 결합한 것이다. 조사 ‘록’은 받침이 없는 일부 체언류나 ‘ㄹ’받침으로 끝나는 체언류 뒤에 붙어 ‘-으로’, ‘-으로부터’의 뜻을 나타낸다. ‘아모’와 ‘쵸’사이에 ‘ㅅ’이 개재되어 ‘아못쵸록’, ‘아모쵸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구개음화의 비실현 상태인 ‘아모도록’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63) 「순천김씨묘출토언간」과 「진주하씨묘출토언간」에서만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144) 그리도<그리+-도>

- ㄱ. 그리도 못헛겟시니 답답 세상이 귀치 아니헛읍
<송병필가-11,1890년,송병필(남편)→전주이씨(아내)>
- ㄴ. 집안일은 엇지 되라고 그리도 몰나 흑시 간다 헛거든 못 가나니라
<송병필가-47,1928년 이전년,미상(녀)->전주이씨(모)>

(145) 아마도<아마+-도>

- ㄱ. 아마도 내 오래 몯살 거시니 속저룬 업다
<순천김씨-031,1560년대,신천강씨(모)→순천김씨(녀)>
- ㄴ. 아마도 굽굽긔 민망헛기 아므라타 업서 헛노라
<숙휘-25,1653~1662,인선왕후(모)→숙휘공주(녀)>
- ㄷ. 수이 헛리기도 어렵고 아마도 종신지진이 된가 굽굽 잔잉헛고
<자손보전-20,1769,미상(고모)→서명천(조카)>
- ㄹ. 올흔 저 흑년을 당헛여 아마도 살아날 길 업슬 거시니 저를 엇지헛며
<추사가-42,1832,김노경(시아버지)→죽산박씨(며느리 (딸))>

(146) 이리도<이리+-도>

- ㄱ. 사디 말라코 쯔여니 이리도 여늬이다
<죽산안-01,1571,안씨부인(모)→정철(자)>
- ㄴ. 이리도 더흔 일은 업스디 낫지 아니헛니
<선세언적-20,1795,연산서씨(모)→박종순(자)>

(147) 아므려도<아므리+-어+-도>

- ㄱ. 아므려도 몯히여 보내로다
<순천김씨-031,1560년대,신천강씨(모)→순천김씨(녀)>

ㄴ. 이제 초기에는 **아무리**도 크니 웃던의셔 하여 주오신 칼히 이제 마즈니

<숙명-35,1652~1674,인선왕후(모)→숙명공주(녀)>

(144)~(147)은 선행어에 조사 ‘-도’가 결합하여 부사로 파생된 예이다. 이때 선행어는 각각 ‘그리, 아마, 이리, 아무리’인데, 모두 부사라는 특징이 있다. ‘-도’는 보조사인데, 앞말에 더해져 뜻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148) **아무리**나<아무리+-나>

ㄱ. **아무리**나 수이 편으옵삼을 하느님씩 비옵노이다

<진주하씨-099,1617~1652,미상(녀)→진주하씨(모)>

(149) **언제**나<언제+-나>

ㄱ. 너는 **언제**나 도라올고 흐노라

<송준길가-011,1641~1683,백천조씨(모)→미상(자)>

ㄴ. 나는 년하여 무스히 디내노라 **언제**나 와 든녀가려 흐논고 흐노라

<선찰9-068,1700,안동김씨(모)→송상기(자)>

ㄷ. **언제**나 서울을 면흐실고 절박 절박흐옵

<의성김씨-007,1832,여강 이씨(아내)→김진화(남편)>

(150) **엇미**나<엇미+-나>

ㄱ. 청송 경산이가 나으리 계신 씨 기름 **엇미**나 흐다 흐던지

<의성김씨-017,1841,여강 이씨(아내)→김진화(남편)>

(148)~(150)은 선행어에 조사 ‘-나’가 결합하여 부사로 파생된 예이다. 이때 선행어는 각각 ‘아무리, 언제, 엇미, 아무리’인데, 모두 부사이다. ‘-도’는 보조사인데, 앞말에 더해져 뜻을 강조한다. 이때 ‘엇미나’는 「의성김씨학봉김성일가 언간」에 한 차례

나타나는데, ‘엇미’가 현대어로 ‘얼마’라는 의미이고 ‘얼마’가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언마/얼마/언머/얼머’의 형태로 쓰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방언형이 아닐까 추정된다.

(151) 그적긔<그+적+-의>

ㄱ. 스므날씩 진봉도 가고 그적긔 사르미 갈 거시라

<순천김씨-085,1560년대,신천강씨(모)→순천김씨(녀)>

(151) ‘그적긔’는 지시 관형사 ‘그’와 명사 ‘적’, 부사격조사 ‘의’가 결합한 것으로 ‘적’의 종성 ‘ㄱ’이 중철 표기되면서 ‘그적긔’의 형태를 띄게 되었다. 한편, ‘그적긔’는 간본 자료에서는 1677년 『박통사언해』에 처음 나타났는데 한글편지에서는 그보다 100년 전 시기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52) 실은<실(實)+-은>

ㄱ. 실은 연연의 폐로이 만히 바다 보내시니 알외으 올 말슴 업스오디

<진주하씨-154,1619,주씨(사돈)→진주하씨(사돈)>

ㄴ. 흐며 임심의게도 당부는 흐려니와 실은 도망흔들 제 바로 느려가기 쉬올가

<창계-13,1649~1695,임영(남동생)→미상(막내누이)>

ㄷ. 음식이나 밥이나 실은 흘 거시 업서 제육 밧 업스오니 소견의 불스흐올가

<송준길가-087,1755,여흥민씨(며느리)→송요화(시아버지)>

(153) 흑은<흑(或)+-은>

ㄱ. 흑은 당이 안치웁거든 은가락지 자그만하게 흐 거리 흑와 씨오면 시부오나

<의성김씨-092,1847,진성이씨(며느리)→김진화(시아버지)>

(154) 다시곰<다시+-곰>

- ㄱ. 엇디 이런 설은 이를 보게 헛듯던고 **다시곰** 가농다 도히 잇거샤
<순천김씨-003,1555,미상(미상)→미상(미상)>
- ㄴ. 아무려나 **다시곰** 조심헛읍셔 무스히 헛읍쇼셔
<진주하씨-155,1620,미상(녀)→진주하씨(모)>
- ㄷ. 또 적노라 **다시곰** 싱각헛니 괴이헛다
<월성이씨-03,1716,월성이씨(모)→권순경(자)>

(155) 이만치<이+-만치>

- ㄱ. 아조 유명을 격헛 그음이 업손 니별의 어내 **이만치나** 견디여 사논고
<선세언독-25,1682~1742,미상(누나)→송요화(남동생)>

(156) 거디로<거+-디로>

- ㄱ. 스월의 내려궤셔 즉시 보니갓 헛기에 **거디로** 괴별헛여 쥬엇습누이다
<송병필가-06,1889년,송병필(남편)→전주이씨(아내)>

(152)~(156)은 보조사 ‘-은, -곰, -만치, -디로’가 결합하여 파생부사를 형성하고 있다.

IV. 통사·의미적으로 특이성을 보이는 부사

한글편지는 간본 자료와는 달리 일상적 언어를 보여준다. 발·수신자가 전제되어 있거나, 제약과 간섭 등이 없이 자유로운 형식을 띠는 것은 간본 자료나 언해 자료에서는 찾을 수 없는 한글편지만의 가치일 것이다. 본 장에서는 한글편지에 나타난 부사들 중 통사적 혹은 의미적으로 특이성을 보이는 부사들을 고찰해 볼 것이다.

1. 별로

‘별로’는 현대국어에서 ‘(부정을 뜻하는 말과 함께 쓰여) 이렇다 하게 따로. 또는 그다지 다르게.’의 의미로 사용된다. 하지만 한글편지에 사용된 의미는 현대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 먼저 한글편지에 나타난 예문을 각각 살펴보겠다.

(157)

ㄱ. 아모 날이나 **별로** 볼 일이 내드르면 내 가 뵈오리이다

<숙명-10,1661,현종(남동생)→숙명공주(누나)>

ㄴ. 송현 편지 아니 와습던가 **별노** 맞븐 말 업슨디 어이 맞브닷 말이고

<송준길가-062,1725~1757,송익흠(남편)→여흥민씨(아내)>

ㄷ. 동동흔 모습은 **별노** 간절흐와 이리 말슴을 구구히 흐읍

<추사-20,1840,김정희(남편)→예안이씨(아내)>

‘별로’는 17세기에 처음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부사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별로’는 ‘(부정을 뜻하는 말과 함께 쓰여) 이렇다 하게 따로. 또는 그다지 다르게.’의 의미로 사용된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한글편지에서 사용되는 ‘별로’는 긍정의 서술어와도 공기하고, 그 의미 또한 현대 국어의 ‘별로’와는 다르게 사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별로’의 사용이 17세기 중반에 한 차례 관찰되고, ‘별노’는 18세기 이후로 10회의 빈도로 관찰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어중 ‘르르’보다 ‘르ㄴ’이 훨씬 활발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성철(2014:9)에 따르면 19세기 한글편지에 나타난 ‘ㄹㄹ’ 연쇄 관련 표기에서는 기존의 역행적 유음화인 ‘ㄴㄹ>ㄹㄹ’과 ‘ㄹ’의 비음화인 ‘ㄴㄹ>ㄴㄴ’의 경쟁보다는 ‘ㄹ’ 비음화가 훨씬 월등한 경향으로 드러난다고 밝히고 있다.

(157ㄱ)은 ‘아무 날이나 특별히 볼 일이 있으면 내가 가서 뵈겠다.’로 해석할 수 있다. (157ㄴ)은 ‘송헌의 편지가 아니 왔던가. 따로 바쁜 말 없었는데 어찌 바쁘단 말이냐.’로, (157ㄷ)은 ‘안정되지 못한 마음은 특별히 간절해서 이리 말을 구구히 한다.’로 해석할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 ‘별로’는 부정을 뜻하는 말과 공기하며 나타난다는 통사적 특징이 있다. (157ㄴ)은 ‘별로~없는데’의 구조로 보아 현대국어와 동일한 양상의 통사구조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미는 현대국어와 다르다. 오히려 현대국어의 ‘따로’와 의미상 유사성을 보인다.⁶⁴⁾

통사·의미적 차이는 (157ㄱ,ㄷ)에서 더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 (157ㄱ,ㄷ)은 부정어와 공기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의미 역시 현대와는 다른 ‘특별히’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아마도

‘아마도’는 현대국어에서 ‘아마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의 의미로 형태론적으로 분석한다면 부사 ‘아마’에 보조사 ‘도’를 더해 ‘아마’를 강조하는 의미로 쓰이는 파생부사이다. 한글편지에 쓰인 ‘아마도’에는 현대국어에서처럼 추측의 의미를 보이는 예도 있지만, ‘될 수 있는 대로’의 의미를 지니는 ‘아무썽’과 같은 의미를 보이는 용법도 있다.

(158)

ㄱ. 아마도 내 오래 몰살 거시니 속저룬 업다

<순천김씨-031,1560년대,신천강씨(모)→순천김씨(녀)>

64)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따로’는 ‘한데 섞이거나 함께 있지 아니하고 혼자 떨어져서. 예사의 것과 다르게 특별히.’의 의미이다.

ㄴ. **아마도** 살아날 길 업슬 거시니 저를 엇지혀며

<추사가-42,1832,김노경(시아버지)→죽산박씨(며느리 (딸))>

ㄷ. **아마도** 조심하여 편히 겨소

<진주하씨-016,1590~1606,곽주(남편)→진주하씨(부인)>

ㄹ. **아마도** 내내 평안이 디내고 아희 병 쾌히 나은 쇼식 듯기 브라니

<송준길가-036,1732,밀양박씨(모)→송익흠(자)>

(158ㄱ,ㄴ)은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아마’를 강조하려 이르는 말로 쓰이는 예로, ㄱ은 ‘아마도 내 오래 못 살 것이니’로 해석할 수 있고, ㄴ은 ‘아마도 살아날 길 없을 것이니’로 해석할 수 있다. ‘아마도’는 16세기부터 19세기 자료까지 빈번히 사용되고 있고, 그 표기와 의미가 현대까지 이어진다. 반면 (158ㄷ,ㄹ)은 ‘아무쪼록’의 의미로 쓰였는데, ㄷ은 ‘아무쪼록 조심하여 편히 계시오’로 해석할 수 있고, ㄹ은 ‘아무쪼록 내내 평안이 지내고’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19세기 자료에서는 ‘아무쪼록’의 의미로 쓰이는 ‘아마도’의 사용을 찾아볼 수 없다. 즉, ‘아마도’는 18세기까지 ‘아마’를 강조하는 뜻과 ‘아무쪼록’의 의미가 동시에 사용되다, 19세기 이후로 ‘아마’를 강조하는 뜻으로 의미의 축소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아무쪼록’의 의미로 쓰이는 ‘아마도’는 16세기에서부터 18세기까지 빈번한 쓰임을 보이는데, 총 100회의 빈도를 보인다. 그런데 ‘아마도’가 쓰인 100회의 빈도 중 62회가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자료인 ‘송규렴가 「선찰」 언간’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17세기 자료인 「진주하씨묘출토언간」에서 총 17회의 사용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찰」은 은진 송씨 가문 사람들이 주고 받은 편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신자는 대체로 ‘안동 김씨’이며, 「진주하씨묘출토언간」은 진주하씨와 가족들이 주고 받은 편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발신자는 ‘진주하씨’ 혹은 ‘곽주’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경상도 지역을 거주지 혹은 출생지로 두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아마도’가 경상도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알 수 있는 어휘가 아닐지 추정된다.

3. 아무리

‘아무리’는 현대국어에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정도가 매우 심함을 나타내는 말’과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의 의미로 사용된다.

한글편지 자료에 사용된 ‘아무리’를 보면 현대국어의 두 가지 의미와 유사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와는 다른 의미를 보이고 있는 예들도 확인할 수 있다.

(159)

ㄱ. 아무리 썰습셔도 두로 싱각흐읍쇼셔

<숙휘-30,1662,명성왕후(올케)→숙휘공주(시누이)>

ㄴ. 내 이신 적은 아무리 하여도 무던하거니와

<진주하씨-101,1590~1606,곽주(남편)→진주하씨(부인)>

ㄷ. 약은 아무리 하여도 효험 업고 만실 우환이 밋칠 것 곳흐니 귀춘하다

<의성김씨-063,1845,김진화(부)→미상(녀)>

ㄹ. 아무리 하다 어디 갈고 인논 종이나 어엿비 녀기소

<순천김씨-020,1560년이후,채무이(남편)→순천김씨(아내)>

ㅁ. 민망히 너기오매 나종 아무리 될 줄 모르와 민망히 너기오디

<진주하씨-068,1590~1652,미상(녀)→진주하씨(모)>

ㅂ. 제곰 잇기도 절박하니 아무리 흘 줄 몰나 심난하다

<송준길가-013,1640~1682,백천조씨(모)→미상(자)>

현대국어에서 ‘아무리’가 ‘정도가 매우 심함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려면 보통 연결 어미 ‘-아도/어도’가 붙은 동사와 함께 쓰여야 한다.⁶⁵⁾ 한글편지에서 사용된 ‘아무리 (아무리/아무리)’ 역시 연결 어미 ‘-아도/어도’가 붙은 용언과 함께 쓰이는 예를 확인할 수 있다. (159ㄱ,ㄴ,ㄷ)은 각각 ‘아무리 서러워도 두루 생각하옵소서’, ‘아무리 하여도 무던하거니와’, ‘아무리 하여도 효험없고’로 해석 할 수 있는데, 이때 ‘아무리(아무리/아무리)’는 현대국어와 의미적으로도 유사하고 통사적으로도 유사함을 보이고 있

65) 예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를 들 수 있다.

다. (159ㄹ)은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통사구조가 현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ㄹ을 해석하면 ‘아무리 한다고 한들(비록 그렇다 한들) 어디 갈까?’로 해석 가능함으로써 현대국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아무리’와 ‘하다’ 사이에 ‘흔들’이 생략된 구조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아무리 하다’에 ‘어디’ 또는 ‘엇디’가 후행한다는 특징이 있다.⁶⁶⁾ (159ㅁ, ㅂ)은 현대국어의 ‘아무리’와 달리 ‘어떻게’의 의미로 사용되는 예이다. (159ㅁ)은 ‘민망하게 여기므로 나중에 어떻게 될 줄을 몰라’로 해석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줄 몰라 심란하다’로 해석할 수 있다. ‘아무리’의 의미를 통시적으로 본다면,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현대의 의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면서, 17세기 자료에 ‘어떻게’라는 의미가 파악되는 것으로 보아, 현대로 오면서 그 의미가 축소된 부사임을 알 수 있다.

4. 못춤내

‘못춤내’는 현대국어에서 ‘드디어 마지막에’의 의미로 ‘못+-음-+-내’로 분석할 수 있는 파생부사이다. 한글편지에서는 ‘못춤내’가 사용된 예를 총 세 번의 빈도수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모두 현대국어의 ‘마침내’와 통사구조나 의미 면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160)

- ㄱ. 덩덕당 병환은 **못춤내** 몰약지효를 엇디 못흐와 천만 의외에 상시 나오니
<숙휘-06,1685,숙종(조카)→숙휘공주(고모)>
- ㄴ. 내 소견은 **못춤내** 올흔 줄을 모르기 판셔드려도 옴기디 아니코 업시 흐엿더니
<순원(규)-04,1847~1849,순원왕후(재종누이)→김흥근(재종동생)>
- ㄷ. 바라옵다가 **마춤내** 구티 못흐오니 하 췌흐옵고 툃툃흐오니 이 엇딘 일이온고
<숙휘-30,1662,명성왕후(올케)→숙휘공주(시누이)>

66) 딸도 내 미자 업서 계오구러 쓰거니와 **아무리** **하다** **엇디** 보낼 겨규를 흐리
<순천김씨-033,1560년대년.신천강씨(모)→순천김씨(녀)>

(160ㄱ,ㄴ,ㄷ)의 ‘ㅁ츨내’는 각각 ‘못흐와, 모르기, 못흐오니’와 공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국어의 ‘마침내’의 의미로 쓰였다면, ‘드디어 마지막에’라는 의미로, 부정어와 공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각각 ‘마침내 물약지효(?)⁶⁷⁾를 얻지 못하여. 내 소견은 마침내 옳은 줄을 모르기, 바라옵다가 마침내 구하지 못하오니’로 해석할 수 있는데, ‘마침내’의 의미보다는 현대국어의 ‘끝내’와 통사·의미적으로 더 유사해 보인다. 현대국어의 ‘끝내’는 주로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이며 ‘끝까지 내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160ㄱ,ㄴ,ㄷ)이 각각 부정의 의미를 지니는 말과 호응을 이룬다는 것,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에’라는 의미보다는 ‘끝까지 내내’의 의미와 더 가깝다는 것이 그러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ㅁ츨내’의 어기인 ‘ㅁ츨’은 ‘끝내다’라는 의미로도 쓰인다.⁶⁸⁾ ‘ㅁ츨내’의 ‘ㅁ츨’이 ‘끝내다’의 의미인 ‘ㅁ츨’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한글편지에 사용된 ‘ㅁ츨내’가 현대국어의 ‘끝내’의 의미로 쓰였던 것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마츨내(ㅁ츨내)’가 사용된 양상을 한글편지에서 총 3회 확인할 수 있는데, 모두 왕실 편지에서 관찰되었다는 특징도 확인할 수 있었다.

5. 차마

‘차마’는 현대국어에서는 ‘부끄럽거나 안타까워서 감히’의 의미로 사용되는 부사이다. 현대국어에서는 후행하는 용언을 부정하는 의미로 ‘차마’가 사용되는데, 한글편지에 쓰인 ‘차마’는 긍정문에서도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61)

ㄱ. 볼수록 속상한 중 불쌍 불쌍 **차마** 볼 슈 업습노이다

<송병필가-42,1903년,미상(녀)→전주이씨(모)>

ㄴ. 미양 우르시던 일을 **차마** 심각 못흐여 받즈와 우리썬 툃듯 망극 망극흐여라

<선세언독-05,1633년,미상(모)→미상(녀)>

67) ‘물약자효(勿藥自效)’의 오기가 아닌가 추측된다.

68) 물론 이때 ‘-옵’은 접사가 아니라 명사형 전성어미이다.

ㄷ. 아가 놉 충신히오며 지롱 비상호을 듯 차마 보고 십습나이다

<송병필가-82,1909년,광산 김씨(며느리)→전주이씨(시어머니)>

현대국어에서 ‘차마’는 후행하는 동사를 부정하면서 ‘부끄럽거나 안타까워 감히’의 의미로 사용된다. (161ㄱ,ㄴ)은 ‘차마(차마)’가 현대국어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ㄱ은 ‘차마 볼 수 없습니다’, ㄴ은 ‘매양 우시던 일을 차마 생각 못하여’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차마(차마)’는 부정을 의미하는 ‘업습나이다’, ‘못하여’에 선행하여 사용되고 있다. (161ㄷ)은 ‘차마 보고 싶습니다’로 해석할 수 있는데, ‘차마’를 ‘매우’로 해석함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감히’로 해석해도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지만, ‘부끄럽거나 안타까워’라는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또한 (161ㄷ)은 앞서 언급한 예와는 통사적으로 다르게 쓰이는데, 긍정어와 함께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161ㄱ, ㄷ)은 20세기 초반에 동일한 한글편지에서 사용되는 ‘차마(차마)’의 예인데, 같은 가문 편지에 사용되는 동일 어휘가 통사적, 의미적으로 다르게 사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차마’는 ‘부끄럽고 안타까워 감히’의 의미와 ‘매우’의 의미가 공기하였고, 부정어와 긍정어에 둘 다 선행하는 부사였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본고는 16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한글 편지 자료에 나타난 부사 중 파생부사의 모습에 주목하고, 이에 따라 파생 부사의 모습을 형태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특이성을 보이는 파생부사를 통사·의미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16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총 1,459건의 한글편지 자료에서 수집한 총 1,226개의 모든 부사들을 추출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단순부사, 합성부사, 파생부사로 나누었다. 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파생부사를 다루기에 앞서 한글편지와 부사, 파생부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함으로써 본고에 대한 이해를 도왔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글편지는 계층과 계급,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의 공유물이었으며, 발·수신자가 전제되어 있기에 높임, 성별 간 언어 차이, 인칭, 계급 간 언어 차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이로 인해 당시 언중들의 자연스러운 국어의 사용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을 밝혔다.

부사는 ‘용언 앞에 놓여 용언을 꾸며주거나 그 뜻을 한정한다’는 점에서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부사어와의 구분⁶⁹⁾을 통해 부사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였다. 파생부사를 논의하기 전, ‘어근, 어간, 어기’ 등의 기본 개념들의 의미를 밝히고 한정하였다. 그리고 ‘생산성’의 개념, 단어 형성법에 따른 단어의 구조를 밝혔다.

3장에서는 한글편지에 나타난 파생 부사를 조어법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부사파생접미사 ‘-이’, ‘-히’, ‘-오/우’, ‘그 외의 접사’로 이루어진 파생부사와 ‘활용형과 곡용형의 부사화’에 대해 각각의 예문과 함께 고찰하였다. 접미사 ‘-이’는 파생부사 형성에 있어 가장 생산성이 높았는데, 본고에서 다루는 파생부사가 총 701개인데 이 중 ‘-이’에 의한 부사 파생이 약 311개의 빈도수를 보였다. 현대국어에서는 형용사나 일부 명사와 결합하는 데 반해, 중세·근대 국어에서는 다양한 선행 어기에 결합하여 부사를 파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선행하는 어기로는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어근’ 등이 존재하였다. 접미사 ‘-히’에 의한 부사 파생은 약 135개의 빈도수를 보였는데, 이 중 ‘명사/어근+-히’로 이루어진 파생부사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선행어기가 고유어보다 한자어일 경우 ‘-히’가 조금 더 생산적으로 결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이’형과 ‘-히 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어휘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ㅎ-’와 ‘-이’가 만나면서 ‘ㆍ’의 탈락으로 인해 ‘-히’로 나타난 것이라 한다면 ‘-이’와 ‘-히’의 구분은 무의미한 것은 아닐지에 대한 논의도 다루어 보았다. ‘-오/우’에 의한 부사 파생은 당시 생산성이 높았지만, 현대에는 ‘-오/우’에 의한 파생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어휘화하여 쓰이고 있음을 언급하였고, 형용사 어간보다 동사 어간이 더 자유롭게 결합되는 특성과 여러 이

69) 부사어는 다음과 같은 일곱가지이다.

- ① 부사자체
- ② 체언 자체
- ③ 부사절
- ④ 체언+부사격조사
- ⑤ 부사구
- ⑥ 용언의 어간+부사형 전성어미
- ⑦ 체언구

따라서 부사는 부사어의 일부일 뿐임을 밝혔다.

형태들을 통하여 모음조화가 파괴되어 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의 접사에 의한 부사 파생에서는 접미사 ‘-다지/더지, -옥(ㄱ), -소, -디’ 등에 의한 파생을 다루었다.

‘활용형과 곡용형의 부사화’에서는 ‘어미’가 결합한 것과 ‘조사’가 결합한 것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선행 여기에 결합하는 어미로는 ‘-아/어’, ‘-고’를 관찰할 수 있었고, 조사로는 ‘-로, -도록, -록, -나, -은, -도, -곰, -만치, -디로’를 관찰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한글편지에 나타난 통사·의미적으로 특이성을 보이는 부사를 제시하였는데, ‘별로, 아마도, 아마리, 무침내, 츠마’를 논의하였다.

한글편지에서 사용되는 ‘별로’는 현대국어와 달리 긍정의 서술어와도 공기하고, 그 의미 또한 현대국어의 ‘별로’와는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관찰되었다. 한글편지에 사용된 ‘별로’는 부정어와 공기하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고, 의미 역시 현대와는 다른 ‘특별히’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마도’는 현대국어에서 ‘아마를 강조하는 말’로 사용되는데, 한글편지에 나타난 ‘아마도’는 ‘아마’ 외에도 ‘아무쪼록’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무쪼록’의 의미로 사용되는 양상은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빈번히 보이는데, 19세기에 오면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아무쪼록’의 의미로 쓰이는 ‘아마도’는 한글편지에서 총 100회의 빈도를 보였는데, 이 중 62회가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자료인 ‘송규렴가 선찰 언간’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17세기 자료인 「진주하씨묘출토언간」에서 총 17회의 사용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찰」과 「진주하씨묘출토언간」의 발신자가 모두 경상도 지역을 거주지 혹은 출생지로 두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아마도’가 경상도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알 수 있는 어휘가 아닐지 추정해 보았다.

‘아마리’는 현대국어에서는 다의어로 ‘정도가 매우 심함’과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의 의미로 쓰인다. 과거 역시 동일 의미로 사용되지만, ‘어떻게’의 의미로도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통사적으로도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가령 ‘아마리 (흔들) 흘 줄 몰나 심난하다’에서처럼 ‘아마리’와 ‘하다’가 쓰일 때, 둘 사이에 ‘흔들’이 생략되어 쓰인다는 점이다.

‘무침내’는 현대국어의 ‘마침내’와 통사구조나 의미면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현대국어와는 달리 부정어와 공기하는 현상이 관찰되었고, ‘마침내’의 의미보다는 현

대국어의 ‘끝내’와 통사·의미적으로 더 유사해 보였다. ‘ㄹ춤내’가 부정의 의미를 지니는 말과 호응을 이룬다는 것,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에’라는 의미보다는 ‘끝까지 내내’의 의미와 더 가깝다는 것, 또한 ‘ㄹ춤내’의 어기인 ‘ㄹ춤’이 ‘끝내다’라는 의미로도 쓰인다는 점에서 현대국어의 ‘끝내’와 통사·의미적으로 더 유사해 보인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한글편지에서는 왕실 편지에서만 ‘ㄹ춤내’의 양상이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춤’은 앞선 부사들에 비해 뚜렷한 의미 차이를 보이는 부사는 아니었지만, ‘춤’을 ‘때우’로 해석함에 무리가 없어 보이고, 또한 통사구조 상의 확인한 차이가 관찰되고 있었다.

본고는 16세기~20세기 초 한글편지에 나타난 모든 부사를 추출하고, 그 중 파생부사에 대하여 형태론적으로 고찰하고, 특이성을 보이는 파생부사를 통사·의미적으로 살피었다. 기존 한글편지에 쓰인 부사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거나, 특정 어휘를 중심으로 의미를 규정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전체 부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사라는 어휘의 중요성에 비해 연구가 그리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본고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글편지에 나타난 특정 파생부사의 빈도수가 양적으로 덜 나타난 경우가 있어서 양적 균등성에 있어 공평하고 대등한 비교가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정 파생부사가 한글편지에서 적은 빈도수의 사용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리고 한글편지는 내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요소-성별, 연령, 친소관계, 지역, 계급 등-의 전제가 있어야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한데, 그러한 외적인 요소를 간과한 채 연구를 진행한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이러한 문제들은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기며 한글편지에 나타난 파생부사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한다.

VI. 참고문헌

- 고영근(1987), 『표준중세국어문법론』, 탐문화사.
- _____(1989), “派生接辭의 分析限界”, 『어학연구』 25,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pp. 97-110.
- 고정의(1985), “중세국어 부사의 통사 특징(I)”, 『울산어문논집』 2,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pp. 1-19.
- 구본관(1998),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서울:국어학회.
- 권재일(2012), 『한국어문법론』 태학사.
- 김두봉(1977), 『김더조선말본』, 탐출판사.
- 남기심·고영근(1985), 『표준국어문법론』, 박이정.
- 노명희(2009), “語根 概念의 再檢討”, 『어문연구』 3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 59-84.
- 민현식(1987), “한국어 부사에 대한 연구:중세국어 부사의 유의어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61, 한국국어교육연구회, pp. 201-248.
- _____(1988), “중세국어의 어간형 부사에 대하여”, 『선청어문』 1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pp. 254-266.
- _____(1992a), “중세국어 성상부사 연구(I)”, 『국어국문학』 107, 국어국문학회, pp. 223-252.
- _____(1992b), “중세국어 성상부사 연구(III)”, 『국어교육』 77, 한국국어교육연구회, pp. 37-114.
- 박부자(2014), “언간 자료의 어휘사적 가치에 대한 연구”, 『국어사연구』 18, 국어사학회, pp. 45-78.
- 박승빈(1986), 『역대한국문법대계』, 탐출판사.
- 배영환(2010), “-코'말음 부사에 대하여”, 『국어문학』 48, 국어문학회, pp. 63-87.
- _____(2011), “조선시대 언간의 어휘 성격과 특수 어휘에 대한 고찰=용언 어휘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51, 한국어학회, pp. 57-92.
- _____(2017), “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어휘적 특징 -언간 자료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어휘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35, 영주어문학회, pp. 65-96.

- _____ (2018), “은진 송씨 가문 한글 편지에 나타난 방언형에 대하여”, 『어문규범』 96, 어문연구학회, pp. 33-67.
- _____ (2019), “언간 연구의 국어사적 성과와 전망”, 『한말연구』 53, 한말연구학회, pp. 61-96.
- 서정수(1994), 『국어문법』, 뿌리깊은 나무.
- _____ (2005), 『한국어의 부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석주연(2001), “국어 형용사의 어휘사:파생형용사의 어휘사를 중심으로”, 『한국어의 미학』 9, 한국어의미학회, pp. 49-64.
- 송철의(1992), 『國語의 派生語形成 研究』, 국어학회.
- 신성철(2014), “근대국어(近代國語) 유음화(流音化) 재고(再考)”, 『어문연구』 4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 55-79.
- 유창돈(1978), 『李朝國語史 研究』, 이우사.
- 이광호(2012), “중·근세어 ‘-내’ 부사의 의미”, 『우리말 글』 36, 우리말글학회 pp. 169-190.
- 이금영(2012), “부사 ‘행여’의 통시적 연구”, 『어문연구』 72, 어문연구학회, pp. 79-102.
- _____ (2020), “송준길가 한글 편지의 부사 연구”, 『한글』 329, 한글학회, pp. 701-729.
- 이기문(1961), 『國語史概說』, 민중서관.
- 이동석(2015), “중세국어 부사 파생법의 연구 성과와 과제”, 『국어사연구』 21, 국어사학회, pp. 95-153.
- 이래호(2015), “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현황 및 그 특성과 가치”, 『국어사연구』 20, 국어사학회, pp. 60-126.
- 이선웅(2021),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월인.
- 이승녕(1961), 『중세국어문법:15세기 국어를 주로 하여』, 을유문화사.
- 이승명(2002), “중·근세 국어 부사 어휘의 변천”, 『배달말』 31, 배달말학회, pp. 123-156.
- 이익섭(1986), 『국어학개설』, 학연사.
- 이익섭·임흥빈(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 이현주(2014), “언간에 나타나는 중복형식에 대하여”, 『한국학』 37, 한국학중앙연구원, pp. 117-140.
- 이희승(1950), 『국어학개론』, 민중서관.

- 임유종(1998), “개화기 국어의 부사에 관한 연구:<개화기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민족 문화연구』 3, 한민족문화학회, pp. 143-176.
- 임흥빈(1976), “부사화(副詞化)와 대상성(對象性)”, 『국어학』 4, 국어학회, pp. 39-60.
- 조일규(2014), “어찌씨 뒷가지 ‘-이’의 파생 양상 변천”, 『동남어문논집』 38, 동남어 문학회, pp. 149-203.
- 주시경(1910), 『국어문법』, 동문관.
- 최현배(1959), 『우리말본』, 정음사.
- 하치근(1993), 『국어 파생형태론』, 남명문화사.
- 허 응(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
- 황문환(2010), “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현황과 특성”, 『국어사연구』 10, 국어사학회, pp. 73-131.
- 황문환·임치균·전경목·조정아·황은영(2013), 『(조선시대)한글편지판독자료집1-3』, 역락.
- 황문환·김주필·배영환·신성철·이래호·조정아·조항범(2016),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1-6』, 역락.

A Study on the Derived Adverbs in Korean Letters

-Focusing on data from the 16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Kang Seon-Ji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d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Korean Letters began to be written early after the creation of Hunminjeongeum, Korean Letters were shared by both men and women regardless of the specific class. In addition, Korean Letters unlike Letter(A letter written in Chinese and translated into Korean), do not go through the process of Korean translation, so the actual language must have been reflected more than any other material. For example, in terms of vocabulary, earlier usage patterns than other printed materials could be observed in Hangeul Letters, such as ‘그적긱(그저긱/그저씩/그껏긱)’ and ‘것구로(것고로)’ are the ca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orphologically examine the appearance of derived adverbs in Korean Letters from the 16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and to examine the syntactic and semantic aspects of derived adverbs that show specificit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tracted 1,226 adverb vocabularies appearing in 1,459 Korean Letters from the 16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and divided them into simple adverbs, compound adverbs, and derived adverbs. In addition, derivative adverb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combining affixes, postpositions, and ending of a wor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ammatical form. In addition, morphological analysis was conducted along with each example

sentenc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ined word. On the other hand, in Korean Letters, adverbs showing specificity could also be observed, and they showed syntactic or semantic differences from modern Korean.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some adverbs were mainly used by specific regions or social positions. Adverbs showing specificity included ‘별로, 아마도, 아무리, 막춤내, 츠마’. Unlike the modern Korean times, ‘별로’ can be seen as a phenomenon with positive predicates, The meaning was also used in the sense of ‘specially’ unlike the modern Korean times. It had the meaning of ‘아무쪼록’ as well as the meaning used in modern Korean times. By the way the 62nd episode of ‘아마도’, which is used in the meaning of ‘아무쪼록’ was found in the 「Seonchal of Song Gyu-ryeom family's Korean Letter」, a data from the late 17th and early 18th centuries. In addition, a total of 17 usage patterns were confirmed in the 17th-century data, 「Jinju Ha family's tomb excavation's Korean Letter」. Considering that both 「Seonchal of Song Gyu-ryeom family's Korean Letter」 and 「Jinju Ha family's tomb excavation's Korean Letter」 sender have the Gyeongsang-do area as their residence or birthplace, I estimated that ‘아마도’ might not be a vocabulary to know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Gyeongsang-do. It was confirmed that ‘아무리’ was used as a meaning of ‘어떻게’ along with the meaning in modern Korean, and syntactically, singularities could be found. That is the case when ‘아무리~ㅎ다’ is used, ‘흔들’ is omitted. Unlike modern Korean, ‘막춤내’ was observed to be used with negatives. And It seemed more similar in syntax and semantics to the modern Korean language's ‘to the last’ than the meaning of ‘finally’. In addition, in the Korean letter, only the Royal Letter observed the aspect of ‘막춤내’. Finally, ‘츠마’ was not an adverb that showed a clear difference in meaning compared to the previous adverbs. It seems that there is no problem in interpreting ‘츠마’ as ‘매우’. And unlike modern Korean, differences in syntactic structure that are used with positive words were observed.